

연구보고서 2023-31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이원진
함선유·이주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31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86-7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a.2023.31>

발|간|사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2023년 중반 이후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및 소득 충격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연구는 주로 자체 설문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단기적 충격과 긴급재난지원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보편적으로 지원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현재,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까지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차분히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 충격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지속되었는지, 완전히 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때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정책적 준비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의 경험은 노인 및 극빈층 중심의 기존 소득보장체계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과 같이 최근에서야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진 연간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원내 함선유 부연구위원과 이주미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원내 이아

영 부연구위원과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의 조언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내용	9
제2절 연구 구성	14
제2장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변화	17
제1절 분석 개요	19
제2절 코로나19 전후 고용 변화	23
제3절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특성 변화	36
제4절 코로나19 전후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변화	46
제5절 소결	63
제3장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69
제1절 분석 개요	71
제2절 분석 방법	72
제3절 2016~2021년 연간 소득분배 변화	77
제4절 2019~2023년 분기 소득분배 변화	110
제5절 소결	118
제4장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 빈곤의 종단적 변화	123
제1절 분석 개요	125

제2절 분석 방법	126
제3절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분배 추이	134
제4절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 변화	137
제5절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소득·빈곤 효과 변화	165
제6절 소결	195
제5장 결론	201
제1절 분석 요약	20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07
참고문헌	211
부 록	217

표 목차



〈표 2-1〉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특성	43
〈표 2-2〉 2019년 대비 취업자 감소 업종(상위 10개 세분류 업종)	48
〈표 2-3〉 2019년 대비 취업자 증가 업종(상위 10개 세분류 업종)	50
〈표 2-4〉 2019년 대비 취업자 감소 직종(상위 10개 세분류 직종)	52
〈표 2-5〉 2019년 대비 취업자 증가 직종(상위 10개 세분류 직종)	54
〈표 3-1〉 표본 비율 및 사례 수	73
〈표 3-2〉 결과변수 정의	74
〈표 3-3〉 소득 정의	75
〈표 3-4〉 하위집단 정의	76
〈표 3-5〉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 변화 및 공적이전 효과 변화	95
〈표 3-6〉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 변화	99
〈표 3-7〉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 변화의 집단 간 차이	103
〈표 3-8〉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	106
〈표 3-9〉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의 집단 간 차이	109
〈표 4-1〉 표본 사례 수	128
〈표 4-2〉 하위집단 정의	131
〈표 4-3〉 결과변수 정의	132
〈표 4-4〉 소득 정의	133
〈표 4-5〉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종사상지위 변화: $t \rightarrow t+1$ 변화	140
〈표 4-6〉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종사상지위 변화: $t \rightarrow t+2$ 변화	141
〈표 4-7〉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t \rightarrow t+1$ 변화	143
〈표 4-8〉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t \rightarrow t+2$ 변화	148
〈표 4-9〉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변화	152
〈표 4-10〉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변화	157
〈표 4-11〉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변화의 집단 간 차이	163
〈표 4-12〉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시장소득 분위이동 정의	166

〈표 4-13〉 공적이전소득 효과 정의	166
〈표 4-14〉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개인취업소득분위 변화	168
〈표 4-15〉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가구시장소득분위 변화	169
〈표 4-16〉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t \rightarrow t+1$ 변화	172
〈표 4-17〉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t \rightarrow t+2$ 변화	176
〈표 4-18〉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변화	181
〈표 4-19〉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	189
〈표 4-20〉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의 집단 간 차이	192
〈부표 3-1〉 하위집단 표본 비율 및 사례 수	217
〈부표 4-1〉 하위집단 표본 사례 수	219
〈부표 4-2〉 하위집단 표본 비율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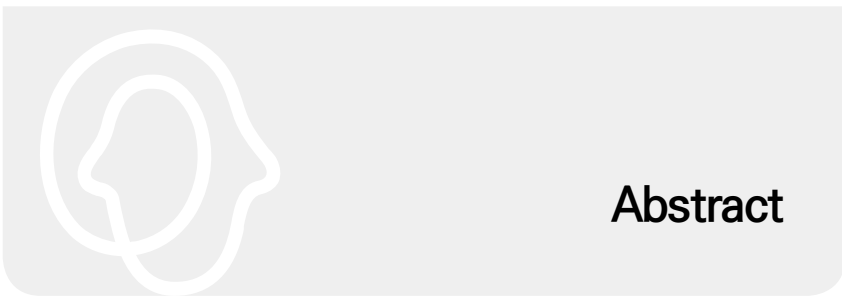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1-1] 1990년대 이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13
[그림 2-1] 코로나19 전후 15세 이상 고용률	24
[그림 2-2] 2008년 금융위기 전후 15세 이상 고용률	25
[그림 2-3]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고용률	26
[그림 2-4] 코로나19 전후 15세 이상 남녀 고용률	27
[그림 2-5]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고용률, 남성	28
[그림 2-6]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고용률, 여성	29
[그림 2-7] 금융위기 전후 연령별 고용률	30
[그림 2-8] 2019년 동기 대비 집단별 고용률 변화, 코로나19 초기	32
[그림 2-9] 2019년 대비 집단별 고용률 변화, 코로나19 후기	33
[그림 2-10] 코로나19 전후 최근 입직자 수	35
[그림 2-11] 코로나19 전후 최근 퇴직자 수	36
[그림 2-12] 코로나19 전후 일시휴직자 수	37
[그림 2-13] 2019년 대비 집단별 일시휴직자 변화, 코로나19 초기	38
[그림 2-14] 코로나19 전후 평균 근로시간	39
[그림 2-15] 2019년 대비 집단별 단시간 근로자 변화, 코로나19 초기	40
[그림 2-16] 코로나19 전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희망자 수	42
[그림 2-17] 코로나19 전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및 실업자 수	42
[그림 2-1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및 월 임금 총액	44
[그림 2-19] 2019년 대비 집단별 평균 임금 변화, 코로나19 초기	45
[그림 2-20] 코로나19 전후 산업별 취업자 수	47
[그림 2-21] 코로나19 전후 직업별 취업자 수	51
[그림 2-22]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취업자 수	56
[그림 2-23] 금융위기 전후 직업별 취업자 수	57
[그림 2-24] 코로나19 전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58
[그림 2-25] 금융위기 전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59
[그림 2-26] 2019년 대비 집단별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 변화, 코로나19 초기	60

[그림 2-27] 2019년 대비 집단별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율 변화, 코로나19 초기	61
[그림 2-28] 2019년 대비 집단별 취업자의 비임금근로 비율 변화, 코로나19 초기	62
[그림 3-1] 2016~2021년 15세 이상 고용률	77
[그림 3-2] 2016~2021년 15세 이상 종사상지위 비율	78
[그림 3-3] 전체 인구 소득분배 추이, 실제 표본	80
[그림 3-4] 전체 인구 소득분배 추이, 재가중 표본	81
[그림 3-5] 18~64세 소득분배 추이, 실제 표본	84
[그림 3-6] 18~64세 소득분배 추이, 재가중 표본	85
[그림 3-7]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수급 실태	87
[그림 3-8]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분배 효과	88
[그림 3-9] 2019~2021년 전체 인구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91
[그림 3-10] 2019~2021년 18~64세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92
[그림 3-11]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전후 2020년 소득·빈곤 변화	102
[그림 3-12]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전후 2020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	108
[그림 3-13] 전체 인구 분기 소득분배 추이	112
[그림 3-14] 전체 인구 연도별 4개 분기 결합 소득분배 추이	114
[그림 3-15] 하위집단별 로그 소득 및 빈곤갭의 2019년 동기 대비 차이	116
[그림 4-1] 2015~2021년 15세 이상 고용률	134
[그림 4-2] 2015~2021년 15세 이상 종사상지위 비율	135
[그림 4-3] 2015~2021년 소득분배지표	136
[그림 4-4] 코로나19 전후 취업 비율 변화	139
[그림 4-5]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19→20 경제활동·소득 변화	162
[그림 4-6]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19→20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	191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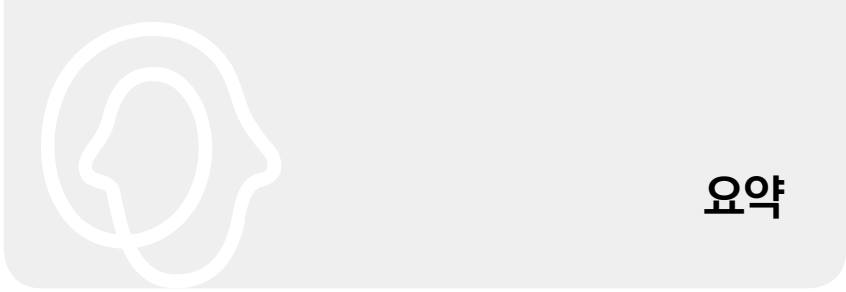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Changes in Labor Market and Income Distribution during the COVID-19 Crisis

Project Head: Lee, Wonjin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labor market and income distribution during the COVID-19 crisis. First, COVID-19 shock on employment was evident in 2020 and the first half of 2021, and faded away until early 2022. Child care gap due to COVID-19 had a long-lasting negative influence on women's employment with children. A decrease in working hours and an increase in temporary leave were also observed. COVID-19 shock on labor market had largely occurred among the service sector and self-employed. Second, COVID-19 shock on market income distribution was observed in 2020.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changes, the level of market income ceased to increase in 2020, while poverty and inequality in market income ceased to decrease in 2020. Women with child, self-employed, and lower income group has experienced larger damage. Third, despite COVID-19 shock on market income distribution, disposable income distribution has not worsened due to an increase in public transfer including large-scale relief program.

Keyword : COVID-19, labor market, income distribution, poverty

Co-Researchers: Ham, Sunyu · Lee, Jumi



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로 월간·분기 반복횡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단기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2022~2023년까지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및 경제활동의 종단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 노동시장 변화를 2019년 노동시장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주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대체로 2022년 초반에 2019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서비스업의 집중도가 높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이들의 고용률은 시간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였다. 단, 미취학 또는 학령기 자녀가 존재하는 여성의 고용률 회복은 더뎠는데, 특히 학령기 자녀가 존재하는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까지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과 경력 단절이 여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0대의 고용률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는 사실도 언급해줄 만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고용 감소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감축이나 일시휴직 증가 역시 관찰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시휴직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을 부분적으로 완충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불완전 취업자 규모는 실업자 규모보다 작지 않았고, 2023년 중반까지 2019년 수준으로 감소하지 못하였다. 산업·직업·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판매 종사자, 임시·일용근로

4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과 자영업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편, 2020년 이후 재정지원일자리 확대는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하였다.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통제할 때 코로나19 이전 시장소득 증가 추이 및 시장소득 분배 개선 추이가 2020년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202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하위집단 분석에서 관찰된 초등학생 동거 여성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가구 내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하락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취업소득 2분위, 비취업자, 가구시장소득 2분위 등과 같이 소득 수준이나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 수준 및 분배는 거의 악화하지 않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직후 2020년의 고용 충격이 상당히 컸고, 그 충격이 2021년에 소폭 완화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직후 2020년까지 고용, 일자리의 질, 근로시간,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가구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

득 빈곤 및 빈곤갭이 증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2021년에 상당히 완화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임시·일용근로자,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단순노무 종사자, 시간제, 중소기업 사업장의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이 감소하였고, 판매 종사자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감소가 확인되었고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 하락이 관찰되었다.

한편, 제4장에서는 공적이전이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9년에 크게 확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확대하지 못하였다. 긴급복지지원은 2019~2020년 수급률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수급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급여 수준이 낮아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 완화 효과가 미미하였다. 고용보험급여와 기초보장급여는 2021년까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고용보험급여는 대체로 임시근로자, 서비스 종사자, 소득 하락 집단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강하게 받은 집단의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켰고, 기초보장급여는 대체로 노인, 1인 가구, 저학력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시장소득 1분위와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여 소득 하락 집단을 지원하는 역할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주요 용어: 코로나19, 노동시장, 소득분배, 빈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내용

제2절 연구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내용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커다란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 영업·이용 제한, 아동·학생 등원·등교 중지, 사회활동 자제 권고 등과 같은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휴직 및 실직, 휴업 및 폐업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 및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 및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축소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하락에 따른 가계 지출 여력 감소로 인해 지출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우선, 다수의 선행연구가 코로나19 이후 고용 및 소득이 감소하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성재민, 2020; 이승호, 2020; 이종관, 2020; 이현주, 정은희, 김문길, 전지현, 2020; 송상윤, 2021; 여유진 외,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중반까지 주로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부분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였고(이종관, 2020, pp.46-48), 코로나19 이전 경제활동 참여 집단의 28.5%가 2020년 9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단축근로, 휴직, 실직, 휴업, 폐업을 경험하였다(여유진 외, 2021, p.185).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은 소득 충격으로 이어져 2020년 중반 이후 시장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고(여유진 외, 2021, p.254; 이승호, 홍민기,

2021, p.29), 특히 소득 충격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저소득 빈곤 및 불평등이 증가하였다(송상윤, 2021, p.4; 여유진 외, 2021, p.266).

코로나19의 고용·소득 충격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청년, 여성, 한부모 가구, 유자녀 가구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남재현, 이래혁, 2020; 오삼일, 이상아, 2020; 김지연, 2021; 손병돈, 문혜진, 2021; 송상윤, 2021; 여유진 외, 2021; 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고영근, 안태현, 2022; 전지원, 차승은, 은기수, 2022; 황선웅, 2022a; 김이레, 남재현, 김새봄, 2023; 양은모, 배호중, 2023; 최진희, 2023).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 매출 감소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하였고 빈곤이 증가하였으며(남재현, 이래혁, 2020),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였다(송상윤, 2021; 손병돈, 문혜진, 2021; 여유진 외, 2021, p.179; 황선웅, 2022a, 2022b). 아동·학생 등원·등교 중지에 따른 돌봄 공백으로 인해 기혼 여성, 유자녀 여성, 한부모 가구의 고용 및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김지연, 2021; 송상윤, 2021; 손병돈, 문혜진, 2021; 고영근, 안태현, 2022),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하였다(김지연, 2021; 고영근, 안태현, 2022). 코로나19 이후 2020년 신규 채용이 부진함에 따라 청년의 고용이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되었다(함선유 외, 2021).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상당히 완화하였다.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은, 비록 소비 증가 효과의 크기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직후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고(김미루, 오윤해, 2020; 김을식 외, 2020; 이승호, 2020; 홍민기, 2020; 남재현, 이래혁,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이영욱, 2021;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2),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시장소득 분배를 크게 개선하였다(여유진 외, 2021, pp.268-269; 최진희, 2023).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정책은 사업체의 영업이익과 고용을 증가시켰다(홍민기, 이승호, 오상봉, 2021). 2020년 아동돌봄쿠폰이 소비를 증가시켰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되었다(이철희, 이수진, 2021).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직후 긴급재난지원 설계 및 평가를 위해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 변화를 조사한 서베이 연구가 이루어졌다(이현주 외, 2020; 여유진 외, 2021; 이영욱,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직후 단기적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긴급재난지원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코로나19 이전 추이와의 시계열적 비교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과 긴급재난지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미루, 오윤해, 2020; 홍민기, 2020). 카드 데이터는 주로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나, 표본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고,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 등 주요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활용하기 어려워 소득분배 효과와 같은 심층분석에 활용되지 못하였다.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는 당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 효과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

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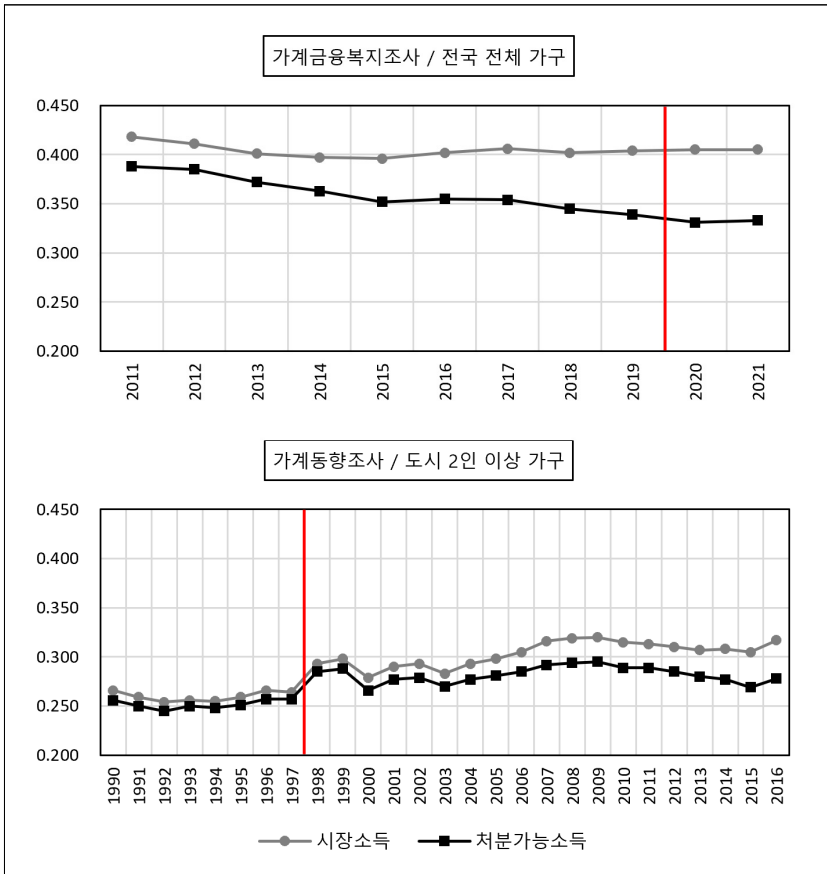
셋째,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월간·분기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위와 같은 자체 서베이 데이터, 카드 데이터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이종관, 2020; 남재현, 이래혁, 2020,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이우진 외, 2021; 함선유, 2022).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교적 빠르게 데이터가 생산되어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소비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하지만 패널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후 개인 및 가구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기가 불가능하였고, 2019년 이후 가계동향조사는 연간 소득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계절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자료를 분석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의 연간 소득을 조사한 서베이 데이터는 2022년에서야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아직까지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분배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 1-1]에서 보듯이 1990년대 말 경제위기는 1998~1999년 소득분배를 크게 악화시켰고, 이러한 단기 충격은 2000년에 진정되었지만 2000년대 중후반까지 노동시장 불평등 확대, 근로빈곤 및 상대빈곤 증가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연간 소득분배는 그다지 악화하지 않았다([그림 1-1] 참조). 코로나

19의 고용·소득 충격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예측과 달리 연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과 같은 하위집단별 심층분석도 필요하다.

[그림 1-1] 1990년대 이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단위: 포인트)



주: 균등화 가구소득 개인단위 분포이다.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이다.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여 시장소득을 정의하였고 공적이전소득에서 현물을 제외하였다.

자료: 1)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2)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둘째,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개인 및 가구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다. 선행연구는 주로 반복횡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밝혔다(예를 들어, 여유진 외, 2021, p.276). 하지만 노동시장 지위는 시변 특성이므로, 반복횡단 데이터로 파악한 노동시장 지위별 소득 변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지위 이동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반복횡단 데이터로 코로나19 전후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휴업·폐업으로 자영업자의 구성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즉, 휴업·폐업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지위 하락의 영향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이전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제2절 연구 구성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현재 가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21년까지의 변화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2022~2023년까지의 최근 변화를 살펴본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주요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첫째, 월간·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단기 변화를 분석하였고 둘째, 반복횡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고용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대체로 소득과 경제활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및 경제활동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며 셋째, 소

득과 경제활동을 함께 조사한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변화와 경제활동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부분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제2장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코로나19 전후 고용 변화

제3절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특성 변화

제4절 코로나19 전후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변화

제5절 소결

제 2 장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장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다. 코로나19는 감염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정책과 무역 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부문의 변화가 상당하였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와 거리두기 정책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영업의 상당한 제약이 생겨났으며, 교육기관 등의 폐쇄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의 돌봄 공백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 역시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위기는 여느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후 이뤄진 선행연구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이 감소하였으며(이용관, 2021), 코로나19 이후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전환율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2배 가량 높았다(황선웅, 2022b). 상용직에 비하여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 자영업자에게 실업, 무급휴직, 휴업이 더 많이 관측되었다(오선정, 2022). 국민연금DB를 활용한 류재린, 문현경(2022)의 연구에서는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등의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구집단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평균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고용 비중이 높은 여성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관측되었다. 백지선, 박우람(2022)은 코로나19의 1차 유행기 동안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하여 노동 참여율이 더 크게 줄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김지연(2021) 역시 코로나19 시기 여성의 고용 충격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모두 발생하였으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 공급 측면에서의 고용 충격이 더 컸던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여성 중에서도 정규직 유무에 따라 노동시장 충격은 달랐는데, 오유라(2022)의 연구에서 여성의 일자리 변화(노동시간, 임금, 경제활동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정규직 여부였다.

그 외 인구집단별 특성으로 청년층의 고용 영향이 여러 연구에서 다뤄졌다. 함선유 외(2021)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청년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고용률 감소의 배경에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의 실적자 수 증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용직의 영향이 최소화되었다는 전체 인구 분석 결과와 달리 청년층의 경우 상용직의 감소 역시 관측되었다. 함선유(2022)는 청년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코로나19 1차(2020년 8~9월)와 3차 유행기(12월)에 고졸 여성 청년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집단은 주요 유행기마다 비자발적인 실직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년 내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성별, 학력별에 따라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코로나19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고용 영향이 관측되었으며, 그 영향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와 비임금 근로자, 여성(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 청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취업유무와 같은 고용상태에 대한 검토 이외에도 근로시간과 불완전 고용, 일시휴직과 같은 일자리 특성 변화와 종사상지위 분포, 산업별, 직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입직자와 퇴직자 동향 등 고용 변동의

원인을 검토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집단별 차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어떠한 집단이 시기별로 가장 큰 변동을 겪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장의 분석은 기존 논의를 종합하는 함의 이외에도 선행연구의 시계열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2021년 까지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종식 이후 회복까지를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하반기 조사 자료까지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의 고용 변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노동시장의 질적인 수준이 이전과 다름이 없는지를 검토한다. 한편, 이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주요 지표 변화를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초래한 위기의 특징을 종합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상당수의 관련 연구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의 차이를 기준으로 2019년 동월 대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이승호, 홍민기, 2021; 함선유, 2022). 이는 주로 코로나19 초기의 연구들로, 코로나19 발생이 2020년 2월 이후라는 시점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활용한 이종관(202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상 추이를 추정하여 실제 추이와 차이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석 방법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나, 이 연구와 같이 장기간의 시계열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2021년 이후로 이어지면서 2021년 1~2월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2020년에 주로 사용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이후의 주요 지표 변화를 살펴본다. 이러한 방법은 관측된 변화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변화의 크기와 코로나19 이후 회복 양상을 보여주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순한 분석 방법을 채택하지만, 코로나19 전후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뤄진 인구 분포의 변화는 고려한다.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의 분포는 코로나19의 유행과는 무관한 변동으로 코로나19 전후 취업자 수 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부 분석에서는 재가중 방법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분포를 2019년과 동일하게 통제한 상황에서 산출한 취업자 수의 변화량을 보고한다.

이 연구는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이후 변화를 살펴보는 만큼, 인구 대표성을 가지는 반복횡단 데이터를 활용한다. 우선 한국 경제활동인구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때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계절조정하여 공표하고 있는 집계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취업시간이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의사 등을 묻는 고용보조지표의 경우 월별 공표 자료를 활용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달 수행되는 조사이나, 임금의 경우 8월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 한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에 관한 자료는 8월 부가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가 수행되어 코로나19 이후 변화를 민감하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나, 산업과 직업은 대분류 수준에서만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과 직업에서 코로나

19 이후 취업자가 줄고, 늘었는지를 자세히 관측하기 어렵다. 또한 가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 수와 같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이질성 역시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인구집단과 가구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지역별고용조사는 반기마다 수행되는 조사로 4월과 10월에 조사가 실시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하여 조사 빈도는 작으나 조사 규모가 크고 가족 관련 사항(C형)과 세분류 직업 및 산업(B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성, 연령(5세 단위),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 자녀 연령과 유무 등을 통해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가장 크게 겪은 집단을 분석한다.

제2절 코로나19 전후 고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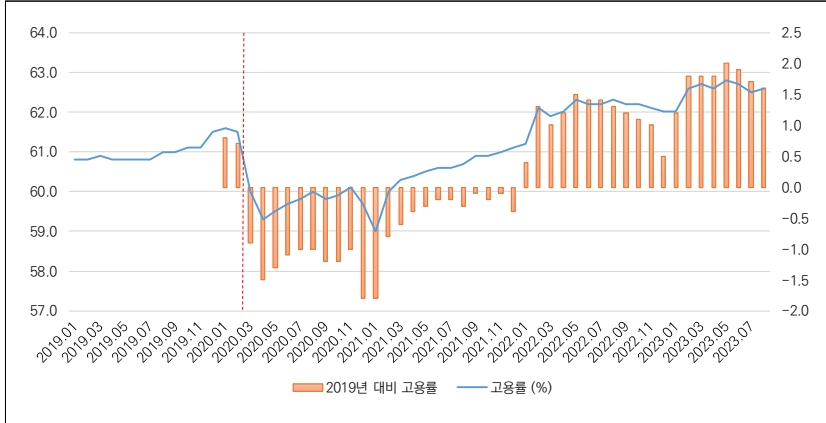
1. 전체 고용률 변화

우선 [그림 2-1]에서 코로나19 이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대구에서 집단감염병이 발생한 2020년 2월 말을 기점으로 2019년 대비 고용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률 감소가 가장 컸던 시기는 2차 유행기인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이다. 이 시기 고용률은 2019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가량 낮았다. 그 후 고용률 감소폭은 차츰 줄어들어 2021년 하반기 무렵에는 2019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2022년 1월에 이르러서는 2019년 동월 수준 이상으로 고용률을 회복하였다. 2022년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하여 가파른 속도로 고용률이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3년 현재까지 큰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24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그림 2-1] 코로나19 전후 15세 이상 고용률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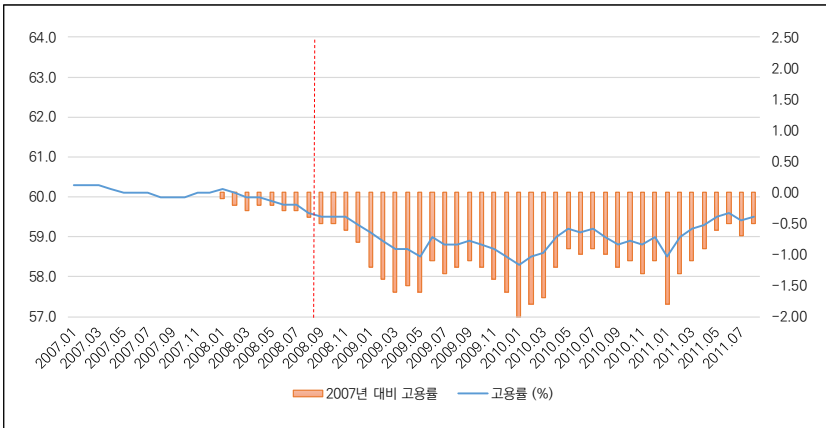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b).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이와 같은 고용률 변화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상당히 급작스럽게 나타났으며, 또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에는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의 고용률과 2007년 대비 고용률 변동을 수록하였다. 2007년 4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파산으로 시작되어 세계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결정적으로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급격한 경색 국면으로 이어졌다. 즉, 코로나19와 같이 단절적인 충격이 아니라 2007년부터 위기의 조짐이 있던 상황에서 2008년 9월을 기점으로 위기가 가속화된 것이다. 실제 고용률 역시 2007년 대비 차츰 줄어드는 추세에서 2008년 하반기에 이르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1월경에는 2007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2%포인트 감소하여 코로나19에 비하여 더 큰 고용률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또한 3년이 지난 2011년 8월까지도 2007년 동월과 같은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고용률의 양상은 코로나19의 위

기가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전의 위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2] 2008년 금융위기 전후 15세 이상 고용률

(단위: %, %포인트)



자료: 통계청. (2023b).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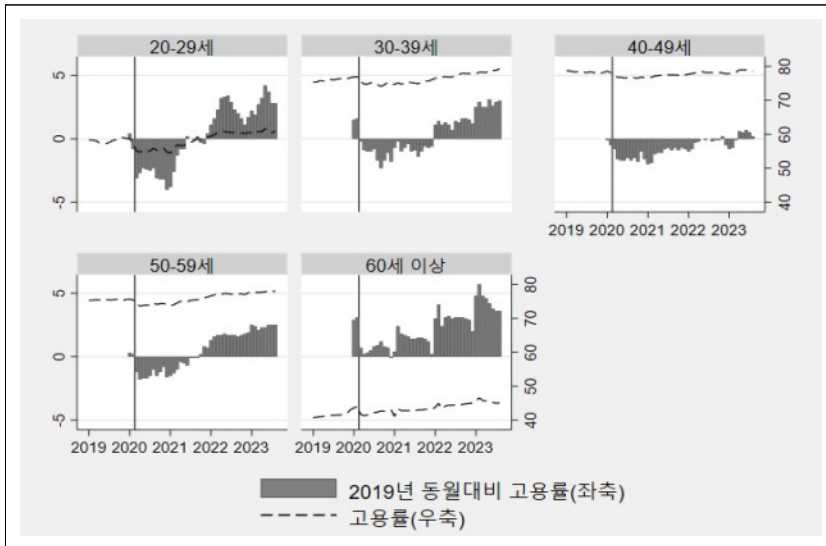
2. 성·연령별 고용률 변화

[그림 2-3]에서 코로나19 이후 인구집단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집단은 20대로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고용률은 전년 대비 3.1%포인트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2020년 12월에는 4%포인트 가량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다. 30대, 40대, 50대 역시 코로나19 유행 직후 고용률의 감소가 관측되지만 20대와 같은 감소폭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30대의 경우 2020년 9월 2.3%포인트 감소가 최고 감소폭이었으며, 2차 유행기인 2020년 12월 무렵에 고용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40대는 2021년 1월 2.0%포인트, 50대는 2020년

12월 1.6%포인트의 고용률 감소를 가장 큰 폭의 감소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고용률의 감소는 관측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1~2월 고용률 상승폭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고용률 추세가 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고용률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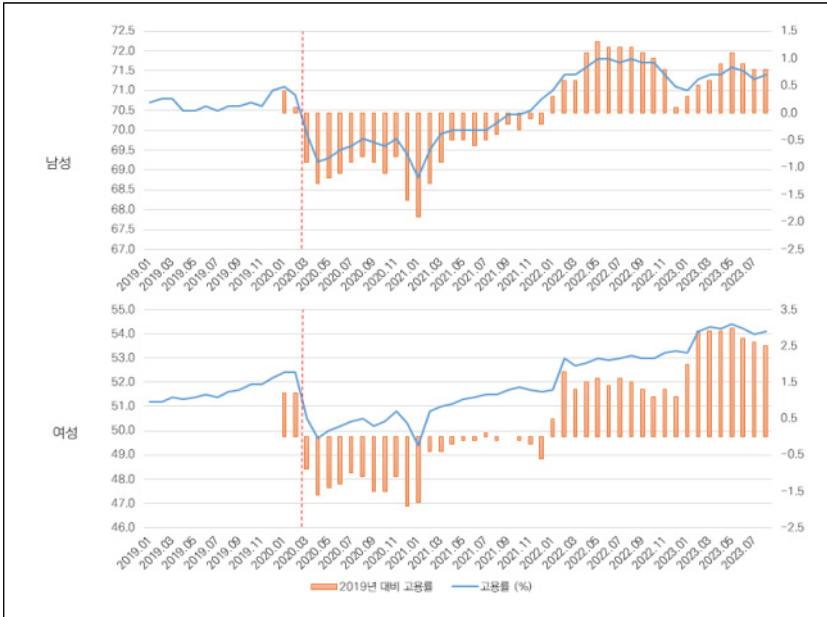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c). 연령별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고용률이 회복된 시기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2021년 6월, 30대는 2022년 1월, 40대는 2023년 4월, 50대는 2021년 10월로 확인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고 빠른 영향을 받은 20대가 고용률의 회복에도 가장 빨랐다는 점을 보여준다. 40대의 경우 본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2019년 동월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이후에도 30대나 50대와 같은 가파른 고용률 회복을 그

리지는 못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2020년 1~2월 수준의 고용률 증가세를 회복하는 시점은 2022년 1월이었다.

[그림 2-4] 코로나19 전후 15세 이상 남녀 고용률

(단위: %, %포인트)



자료: 통계청. (2023b).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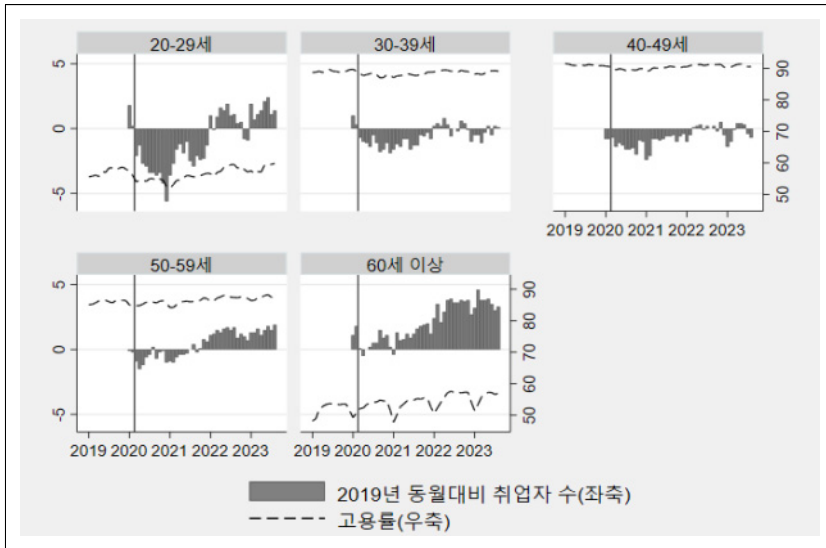
[그림 2-4]에서 성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고용률 감소와 회복 역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여성과 남성 모두 코로나 19 초기인 2020년 4월, 2020년 12월, 2021년 1월 고용률의 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난다. 2020년 4월 남성은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이 1.3%포인트, 여성은 1.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남성은 2021년 1월, 여성은 2020년 12월에 고용률이 1.9%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큰 고용률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상황에서 남성과 여

성 모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의 영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1~2월경 추세를 볼 때 고용률이 성장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면 여성의 고용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용률 하락 국면과 달리 회복 국면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여성의 2021년 고용률은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으나, 남성은 2021년 내내 2019년 동월 대비 고용률을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고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1~2월까지 이어진 여성의 고용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2-5]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고용률,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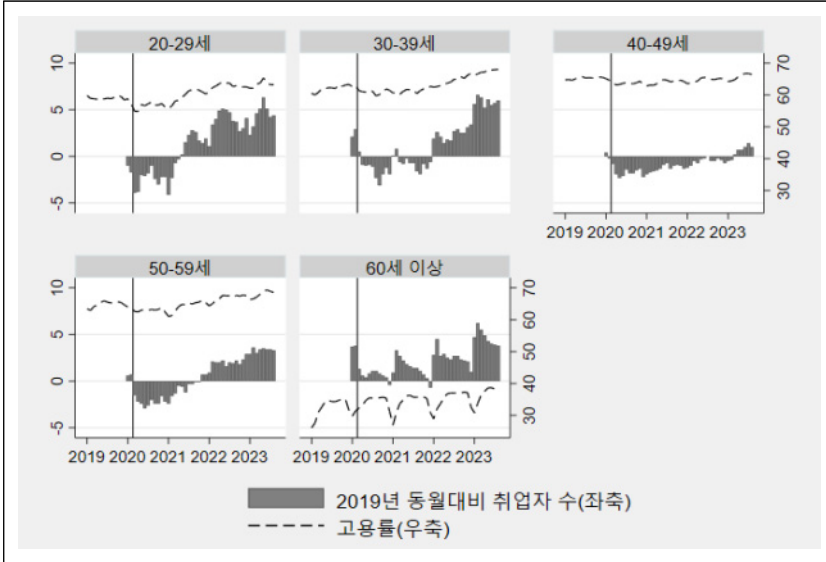
(단위: %, %포인트)



자료: 통계청. (2023d).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0. 인출.

[그림 2-6]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고용률, 여성

(단위: %, %포인트)



자료: 통계청. (2023d).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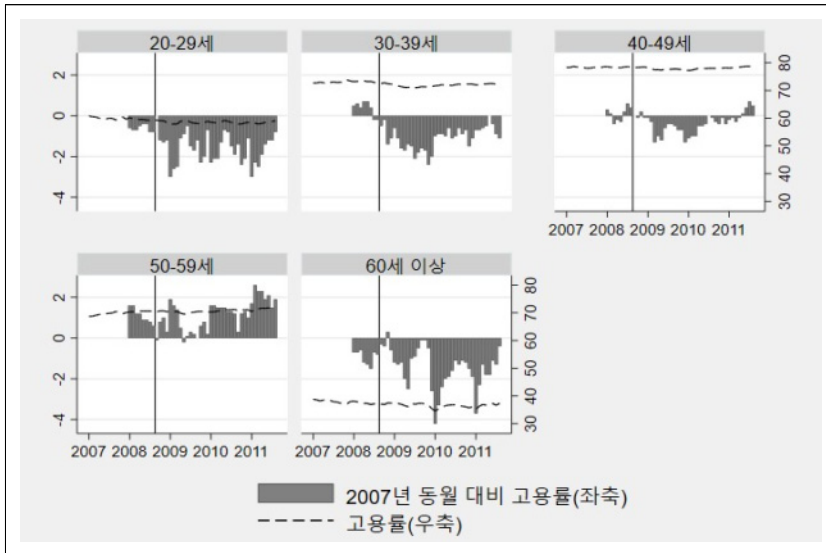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으로 성·연령별 고용률 변화를 [그림 2-5]와 [그림 2-6]에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이질성이 두드러진다.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코로나19 초기 고용률 감소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만, 20대 남성의 경우 고용률 하락이 2020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5.6%포인트가 줄어들어 20대 여성의 2021년 1월 4.1%포인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또한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21년 5월에 이미 2019년 동월 수준만큼 고용률이 회복되었으나, 20대 남성의 경우 2022년 1월에 이르러서야 2019년 동월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과 달리 20대 남성의 고용률 개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다.

30대 역시 남녀의 회복기 차이가 두드러진다. 30대 여성의 2022년과

2023년 고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30대 남성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한 이후 유지되는 추세를 그린다. 이는 남성의 고용률은 이미 90%에 가까운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용률 상승의 여지가 낮은 결과일 수 있다. 이는 50대 남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반면, 40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2023년 까지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40대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큰 집단은 아니지만, 회복은 가장 더딘 집단임을 시사한다.

[그림 2-7] 금융위기 전후 연령별 고용률

(단위: %, %포인트)



자료: 통계청. (2023c). 연령별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 전후 연령별 고용률 변화와 대조된다. 금융위기 당시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30대, 60대의 고용률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고용률 감소가 관측되지 않는다. 당시 위기 이후 회복에 있어서도 20대와 60대는 고용률의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반면,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차츰 회복되는 추세를 그렸다. 이는 금융위기가 노동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있는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상대적으로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 코로나19의 위기는 모든 연령층에 보편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회복 국면에서는 40대의 회복이 더디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세부집단별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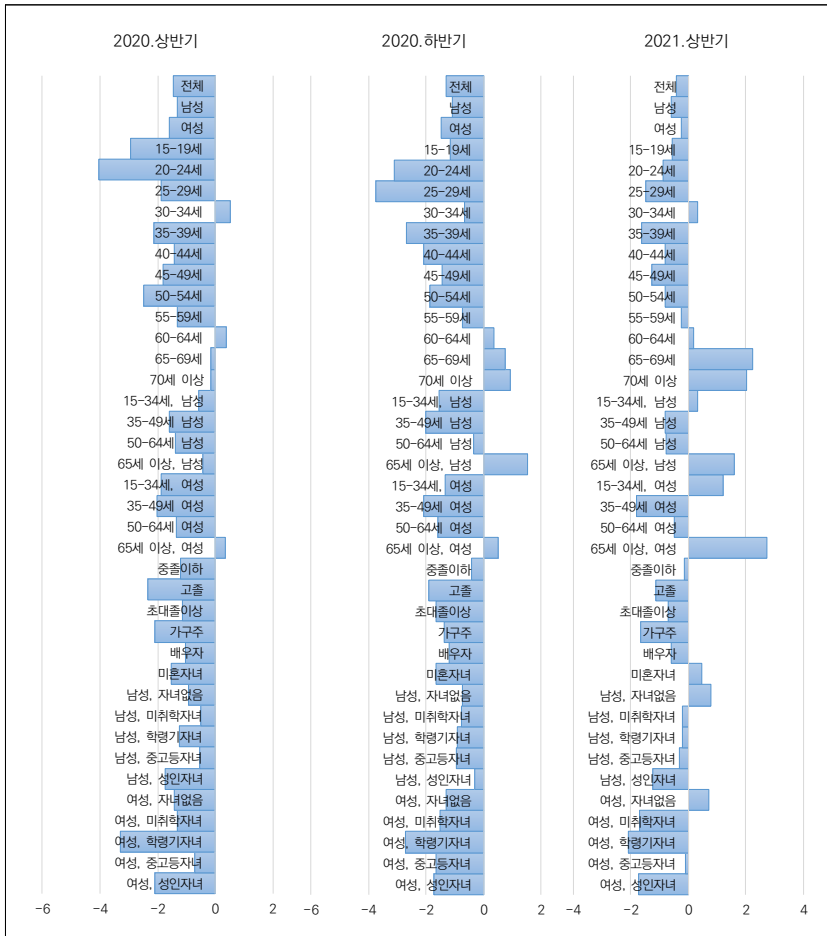
[그림 2-8]에서 코로나19의 고용 영향이 집중되었던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의 동향을 살펴보면, 20~24세 청년,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진다.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 감소폭이 컸으나, 2021년 상반기 회복은 여성이 더 빨라 앞선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여성의 고용률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에 비하여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더 컸다. 이는 긴급보육이 실시되었던 보육 기관과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 휴교 및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더 큰 돌봄 공백을 겪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의 등교 일수는 92.3일에 불과하였고, 서울은 42.4일, 경기도는 50일로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돌봄 공백이 상당하였다(김수현, 2021).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동일하게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2019년 동기 대비 고용률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30대의 경우 30~34세와 35~39세가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30~34세의 경우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상반기에 고용률

3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감소가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나 35~39세의 경우 40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큰 고용률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35~40세의 경우 미취학 자녀와 학령기 자녀를 양육 중인 이들이 포함됨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그림 2-8] 2019년 동기 대비 집단별 고용률 변화, 코로나19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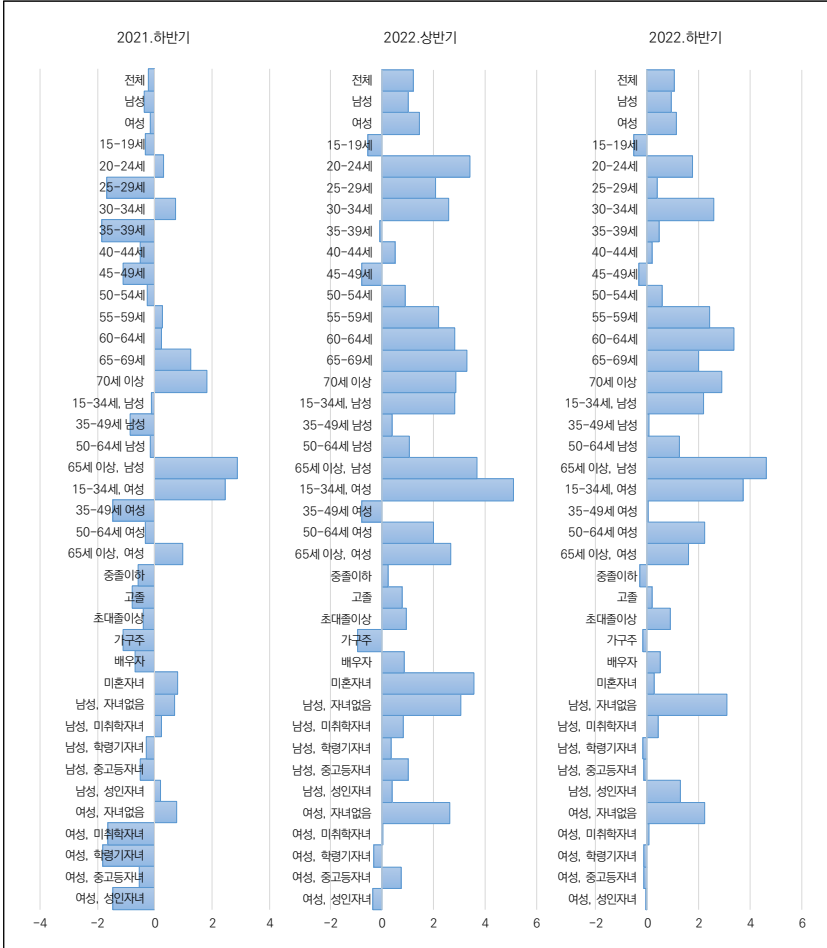
(단위: %포인트)



자료: 통계청. (각 연도c). 지역별고용조사(C형) 원자료.

[그림 2-9] 2019년 대비 집단별 고용률 변화, 코로나19 후기

(단위: %포인트)



자료: 통계청. (각 연도c). 지역별고용조사(C형) 원자료.

[그림 2-9]에서 보듯이, 2021년 하반기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인구집단이 2019년 동기 대비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2019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남아있다. 연령집단별로는 25~29세 청년, 35~39세 장년, 35~49세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이어졌

다. 2022년의 경우 고용률이 대부분 2019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대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성·연령 집단별로는 65세 이상 남성 고령자와 15~34세 여성 청년의 고용률 증가가 컸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없는 이들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청년층의 고용률 회복과 관련 있어 보인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 이르러서 2019년 동기 수준으로 고용률이 회복되었다.

4. 입직 및 실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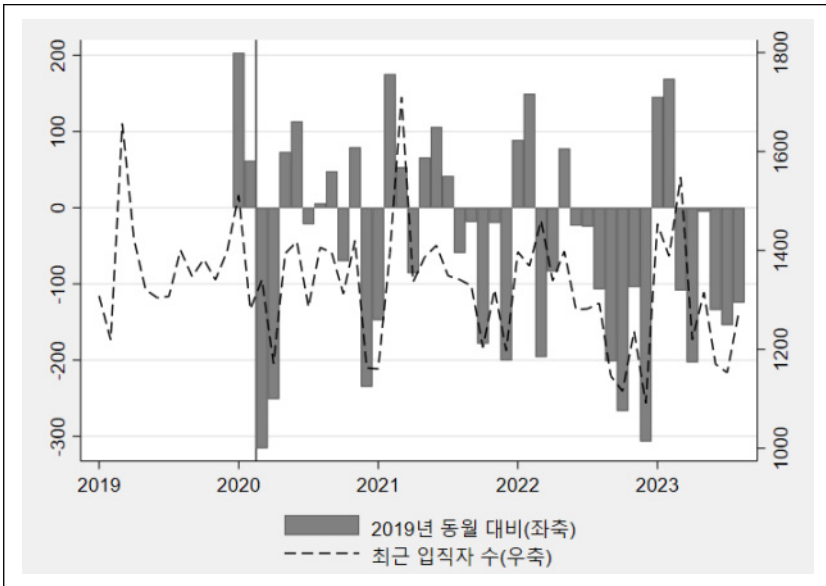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고용률의 변동이 입직의 제한에 따른 것인지 퇴직의 급증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최근 입직자 수와 최근 퇴직자 수를 검토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개인을 추적하는 패널자료가 아닌 횡단면 자료로 입직과 퇴직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취업자의 경우 현 직장의 시작년월을, 미취업자 중 취업경험이 있는 이들의 경우 이전 직장의 퇴직년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사년월과 동일한 달에 입직한 이들과 퇴직한 이들의 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동일한 달에 퇴직을 하더라도 바로 입직한 경우 입직자로만 산출된다는 점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입직과 퇴직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최근 입직자 수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 직후 최근 입직자 수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유행기로 고용률이 급감하였던 2020년 3월과 4월, 그리고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각각 입직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입직자 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퇴직자의 수

역시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초기에 해당하는 2020년 3월, 2020년 11월과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퇴직자 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퇴직자의 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초기 고용률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최근 입직자의 수는 줄어들고 최근 퇴직자의 수는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2021년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고용률의 변동은 퇴직자 수의 증가보다는 입직자 수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0] 코로나19 전후 최근 입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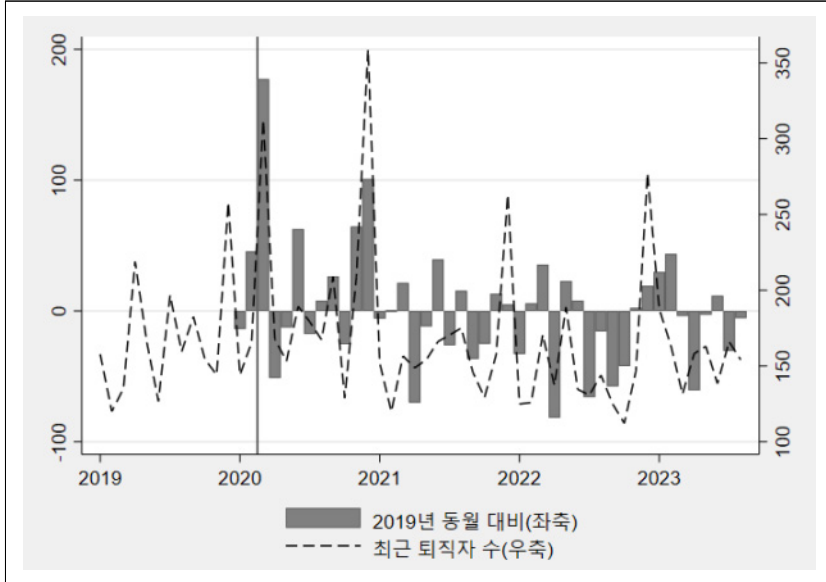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현직장 시작연도가 조사 당월인 취업자를 최근 입직자로 정의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11] 코로나19 전후 최근 퇴직자 수

(단위: 천 명)



주: 현재 미취업자 중에서 이전 직장을 그만둔 시기가 조사 당월인 자를 최근 퇴직자로 정의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제3절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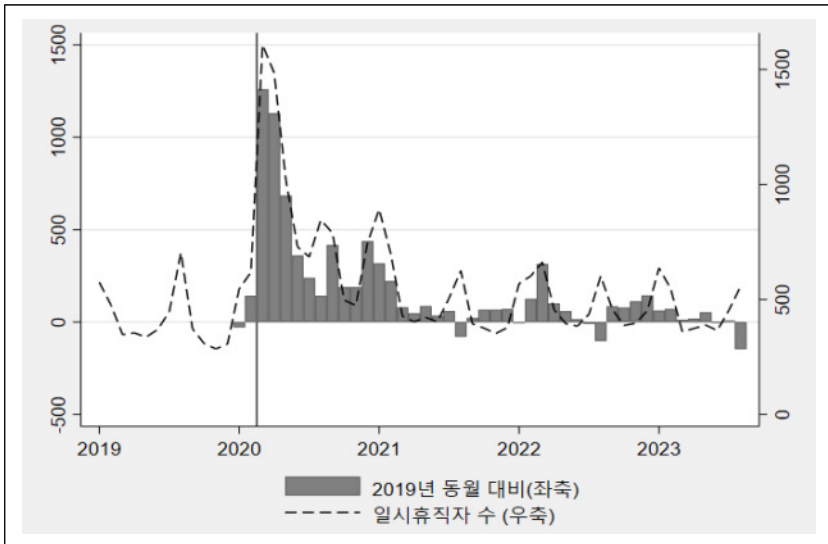
1. 일시휴직자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감염병에 따른 위기로 거리두기 정책에 의하여 영업시설이나 기관의 일시적 폐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자리로부터 완전히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휴직자가 급증하게 된다. 2020년 3월 일시휴직자의 수는 2019년 동월 대비 126만 명이 증가한 160.7만 명이었으며,

4월에도 113만 명이 증가한 148.5만 명이였다. 이러한 일시휴직자의 규모는 2007년 이래로 가장 큰 규모다. 이 시기 고용률 감소 이외에도 일시적인 휴직으로 사실상 일을 쉬 인구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시휴직자의 수는 2021년 8월까지 2019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2-12] 코로나19 전후 일시휴직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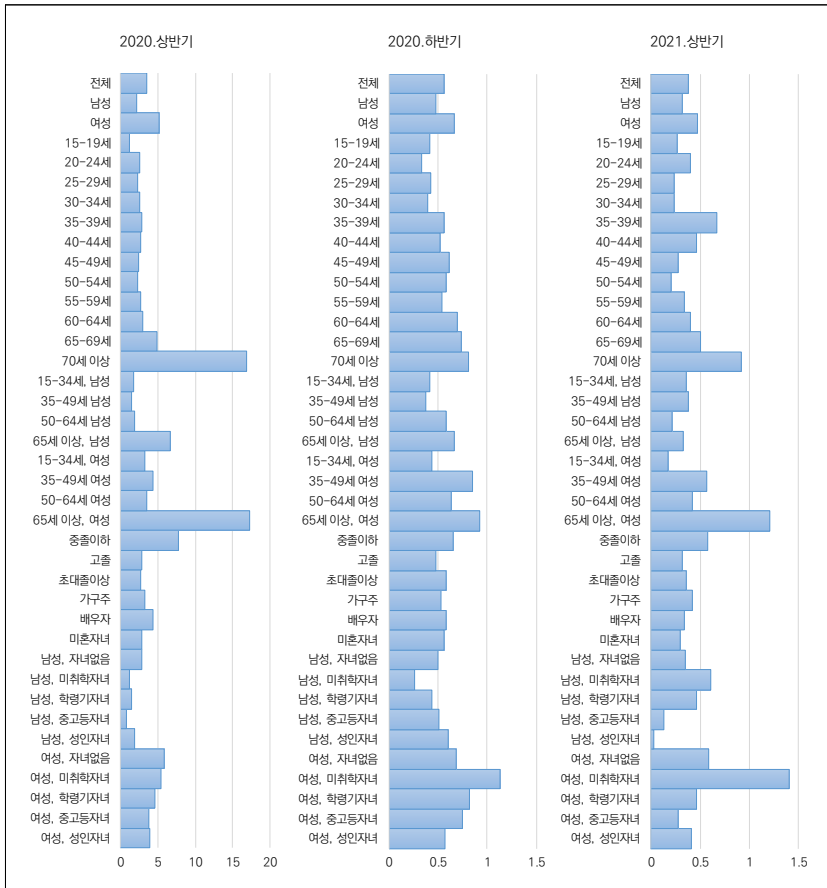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e). 취업시간별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0. 인출.

[그림 2-13]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의 일시휴직자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 취업 중이지만 일시휴직 중인 이들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집단은 여성과 고령자였다.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하반기로 갈수록 일시휴직자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였는데, 자녀가 있는 여성,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일시휴직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률 감소폭은 작게 나타났으나, 대신 일시휴직을

선택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있다는 점에서 휴직을 선택한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3] 2019년 대비 집단별 일시휴직자 변화, 코로나19 초기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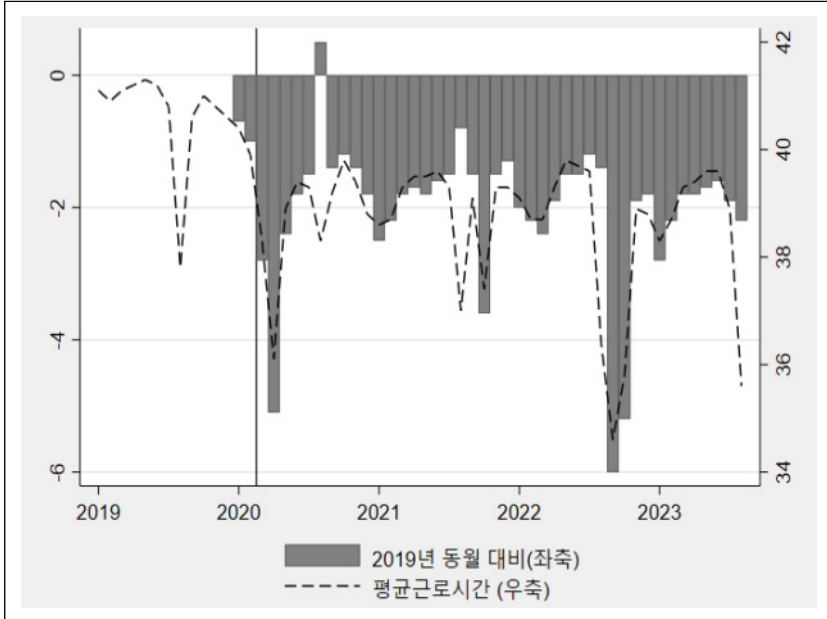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c). 지역별고용조사(C형) 원자료.

2. 근로시간

[그림 2-14] 코로나19 전후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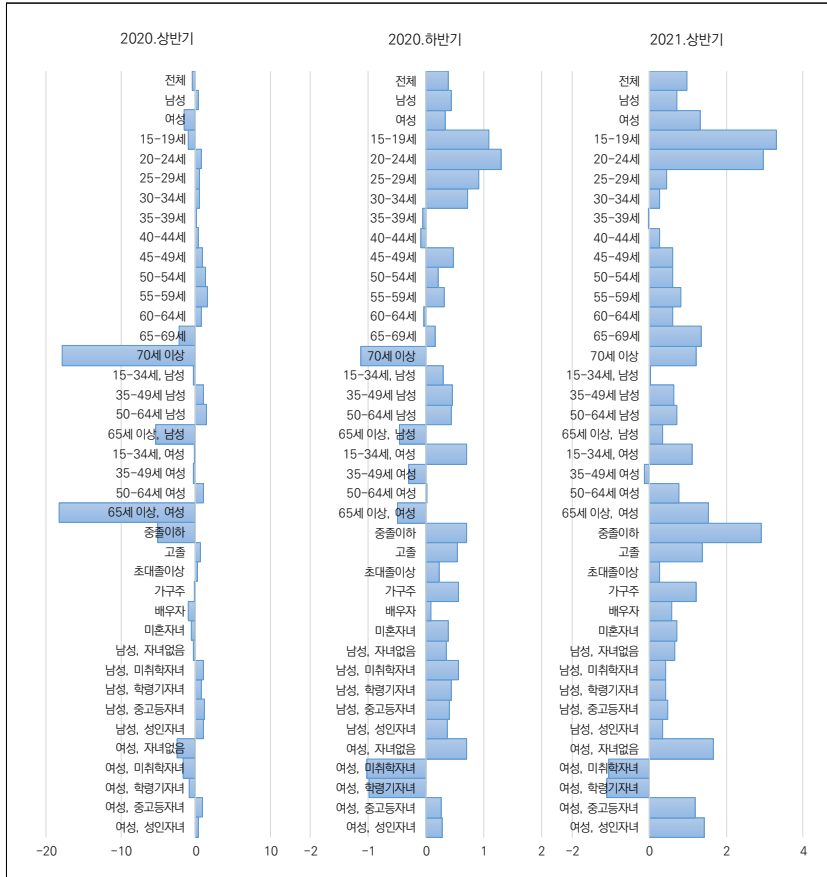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e). 취업시간별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0. 인출.

[그림 2-14]에서 확인하듯이, 코로나19 이후 취업자의 근로시간 역시 가파르게 감소하였다.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주당 근로시간이 무려 5.1시간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유행기 당시 고용상태를 유지 하더라도 일시휴직과 더불어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적으로 일의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근로시간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52시간 상한제와 같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40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그림 2-15] 2019년 대비 집단별 단시간 근로자 변화, 코로나19 초기

(단위: %포인트)



주: 주당 20시간 미만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여 산출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c), 지역별고용조사(C형) 원자료.

[그림 2-15]에서는 주당 2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상반기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본래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

시기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 하반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다소 높아지는데, 주로 34세 이하인 청년 계층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15~24세 청년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미취학 자녀나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2019년 당시에 7~8% 가량의 취업자가 2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비율이 줄어든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을 취업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휴직이나 퇴직 등으로 대응하였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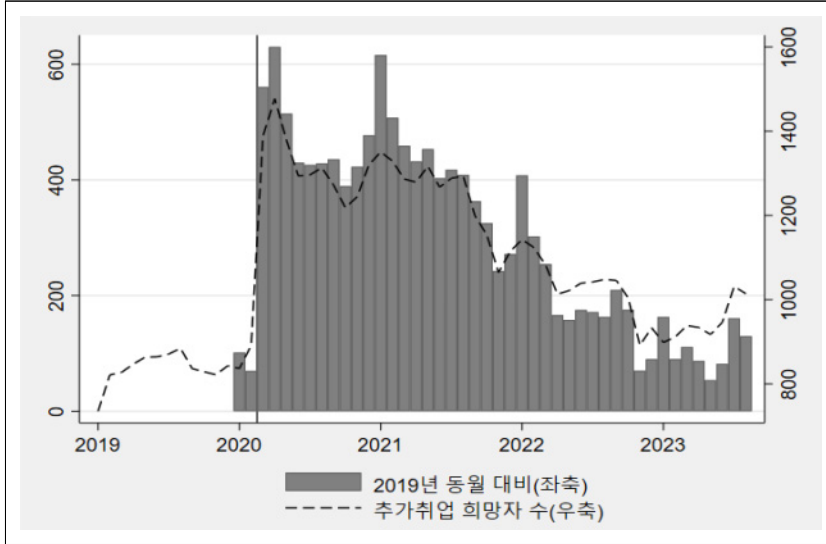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증가는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 이외에도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 즉 불완전 취업의 형태를 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 현재 근로 시간에 대하여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으로 응답한 이들의 수는 코로나19 직후 급증한다([그림 2-16] 참조). 6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희망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고용률이 2022년에 이르러 대부분 회복되었던 양상과 달리 2023년 8월 현재까지도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취업 희망자 중에서 일을 찾아보았으며,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의 경우 현재 미취업자 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의 규모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그림 2-17] 참조). 실업자의 경우 계절적 양상을 나타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비하여 증가폭이 크지 않고, 2021년 상반기에 이미 2019년 동월 대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의 경우 2023년 7월 현재까지도 2019년 동월 수준의 비율로 줄어들지 못하였다.

4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그림 2-16] 코로나19 전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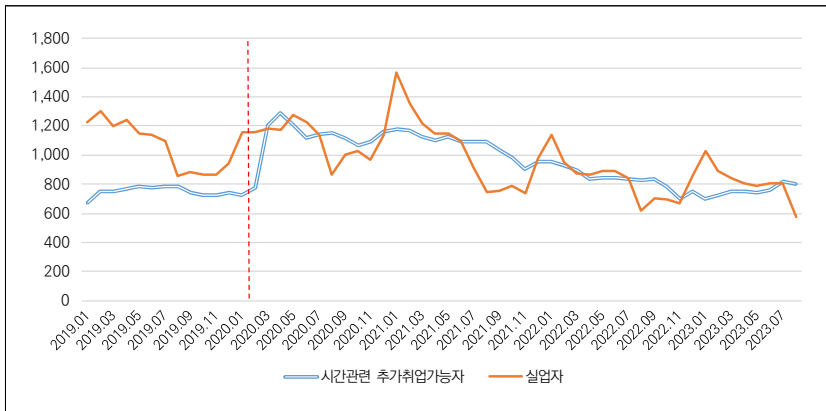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에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수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17] 코로나19 전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및 실업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2023f). 고용보조지표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표 2-1〉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특성

(단위: 시간, 만 원)

구분		2019.08.	2020.08.	2021.08.	2022.08.
평균 취업시간	임금근로자	35.9	37.1	35.4	34.7
	정규직	38.8	40.7	38.7	37.8
	비정규직	30.8	30.7	30.2	29.6
월평균 임금	임금근로자	264.3	268.1	273.4	288.0
	정규직	316.5	323.4	333.6	348.0
	비정규직	172.9	171.1	176.9	188.1

자료: 통계청. (2023g).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특성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7.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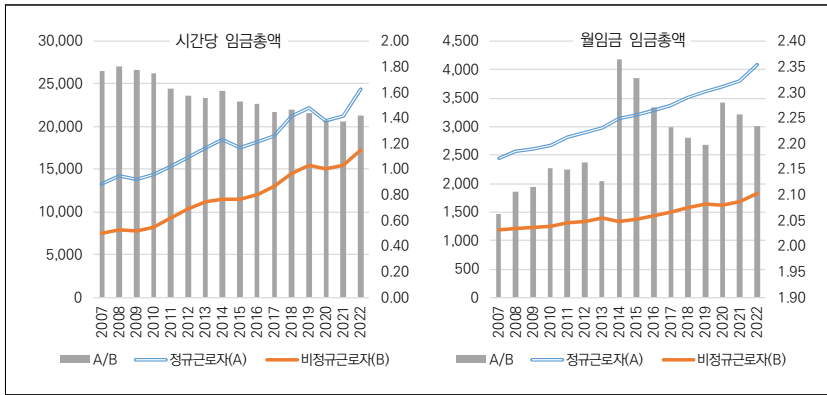
이와 같은 근로시간 감소는 임금 감소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코로나 19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취업시간 및 임금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당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시간 차이는 10시간으로 2019년의 8시간에 비하여 그 차이가 늘어났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2019년에 비하여 큰 시간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월평균 임금 역시 2019년 당시 정규직의 임금은 비정규직의 임금에 비하여 143.6만 원(1.83배) 높았으나, 2020년 그 차이가 152.3만 원(1.89배)으로 벌어졌으며, 2021년 156.7만 원(1.89배), 2022년 159.9만 원(1.85배)으로 격차가 커지거나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유지되는 반면, 월임금의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그림 2-18〕 참조). 이는 시간당 임금이 아닌 노동시간의 격차로 인하여 임금 총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장의 위험을 해고가 아닌 시간 유연성으로 대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위기 시에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이탈하게 되는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통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로 인한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안전망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림 2-1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및 월 임금 총액

(단위: 천 원, 배)



자료: 고용노동부. (202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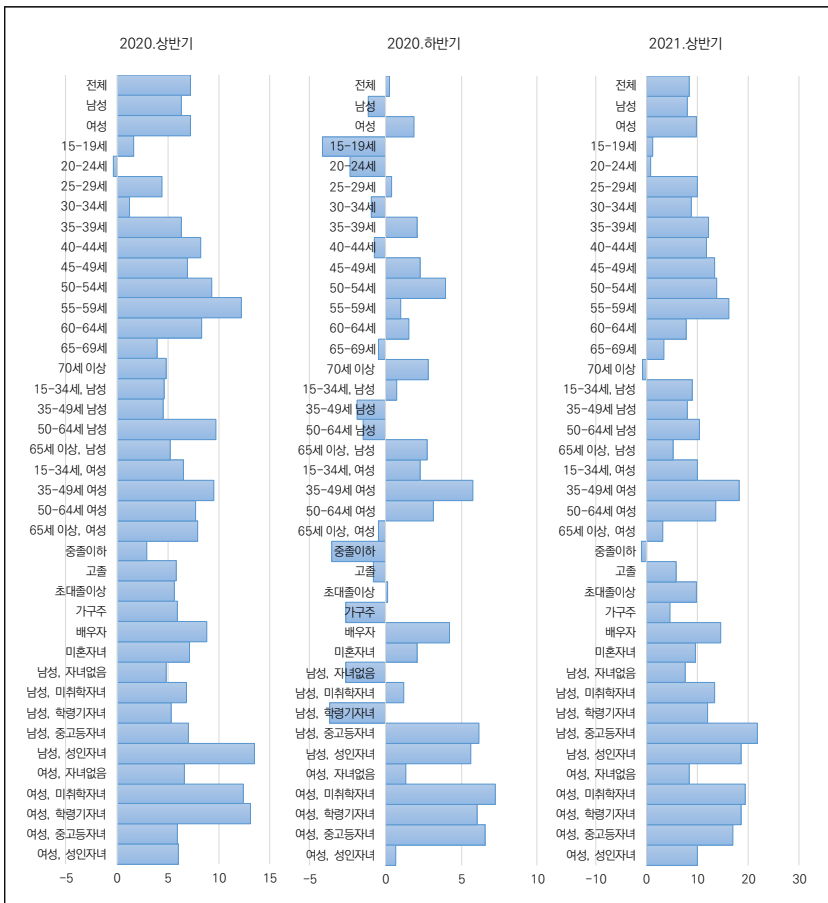
3. 임금

다음으로 [그림 2-19]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변화를 살펴 보았다.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상반기에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5~10만 원까지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고용률이 1차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시기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적인 고용상태를 가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남아 있는 취업자의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하반기의 경우 대부분 2019년 동기와 유사한 임금 수준을 나타내나, 이 시기 고용률이 떨어졌던 집단의 경우 평균 임금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평균 임금이 2019년에 비하여

5만 원 이상 상승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이 시기 20시간 미만 단 시간 근로자가 줄어드는 등 불안정 고용인 경우 노동시장을 이탈함에 따라 남아있는 취업자의 평균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9] 2019년 대비 집단별 평균 임금 변화, 코로나19 초기

(단위: 만 원/월)



자료: 통계청. (각 연도c). 지역별고용조사(C형) 원자료.

2021년 상반기는 고용률이 거의 회복세에 이르렀던 시기로 대부분의 집단에서 평균 임금 수준이 높아지나, 15~24세 청년과 70세 이상, 중졸 이하 집단의 임금 수준은 2019년 수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관측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초기 청년과 노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회복세에서 여타 집단과의 격차가 커지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제4절 코로나19 전후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변화

1. 산업 및 직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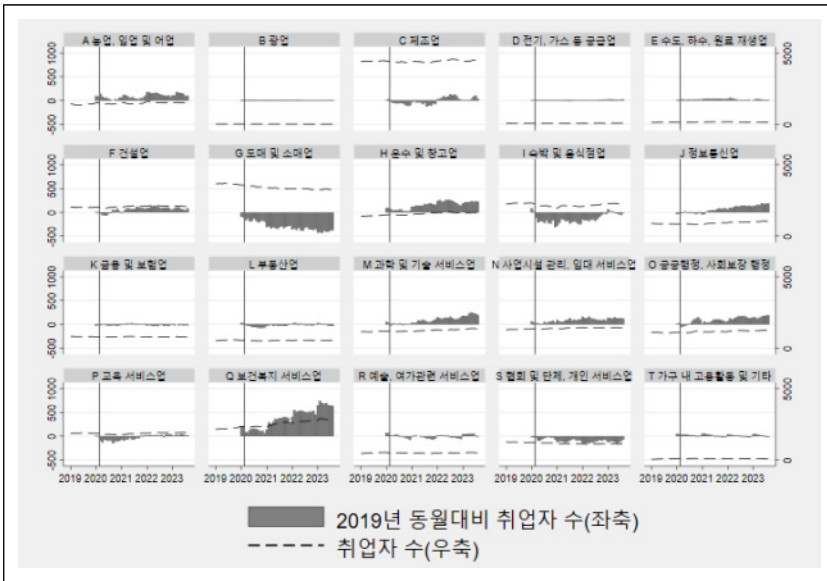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2-20]에서 보듯이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23년에 이르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회복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감소는 지속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운수 및 창고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 행정 부문의 경우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전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된 택배업과 배달업 등의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 2-2>와 <표 2-3>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세분류 업종별로 2019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과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을 살펴보았다. 2019년 대비 2020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던 세세업종은 음식점업이었다. 음식점업은 코

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내내 취업자의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의 경우 음식점업에서만 17만 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식의 감소 등으로 음식점업의 사업 축소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그림 2-20] 코로나19 전후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2023h). 산업별 계절조정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2020년의 경우 기타 교육기관과 일반교습학원의 취업자가 줄어들었던 점이 특징적이다.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학원 관련한 업종의 사업 축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는 도소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맥락에서 도소매업 전반이 온라인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들 산업의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48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2-2〉 2019년 대비 취업자 감소 업종(상위 10개 세분류 업종)

(단위: 천 명)

2020년			2021년			2022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음식점업	1551	-172	음식점업	1580	-143	음식점업	1657	-66
기타 교육기관	337	-5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43	-59	육상 여객 운송업	440	-53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360	-49	생활용품 도매업	229	-48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180	-51
육상 여객 운송업	445	-48	기타 교육기관	345	-44	생활용품 도매업	232	-45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63	-39	자동차 부품 제조업	336	-41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60	-42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33	-3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58	-41	기타 전문 도매업	154	-39
자동차 부품 제조업	346	-31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307	-39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309	-37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398	-27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30	-38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9	-37
종합 소매업	588	-26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9	-37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372	-37
일반 교습 학원	327	-25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07	-3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63	-36

주: 2019년과 성, 연령, 교육수준 분포가 동일하도록 재가중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지역별고용조사(B형) 원자료.

〈표 2-3〉에서 2019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10개 업종을 살펴보면, 앞서 [그림 2-20]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취업자 수가 11만 9천 명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결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2021년 사이 각각 66.8조 원, 51.8조 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투입하였다(장기영 외, 2022, p.81). 이때 직접 일자리 사업 역시 증가하였는데, 추경을 통한 신규 일자리 사업은 2020년 3.02조 원, 2021년 2.04조 원이었다(장기영 외, 2022, p.83). 본예산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20년 일자리 예산(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20.1%가 확대되었으며, 2020년 25.5조 원, 2021년 30.1조 원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되었다(고용노동부, 2021). 이러한 정책 집행의 결과로 2020년과 2021년에 관련 산업의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복지시설 일자리는 2020~2022년 내내 취업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이다. 이들 비거주 복지시설에는 보육시설 운영업, 직업재활원 운영업, 종합복지관 운영업, 방문복지서비스제공업, 사회복지상담 서비스제공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업종 역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며, 정부 정책에 의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이다. 즉,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통하여 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화물 전문 운송업과 보관 및 창고업과 같은 물류 관련 업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2022년 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14만 6천 명이 늘어났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의 상당 부분이 물류 관련 업종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개발 관련 업종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50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2-3〉 2019년 대비 취업자 증가 업종(상위 10개 세분류 업종)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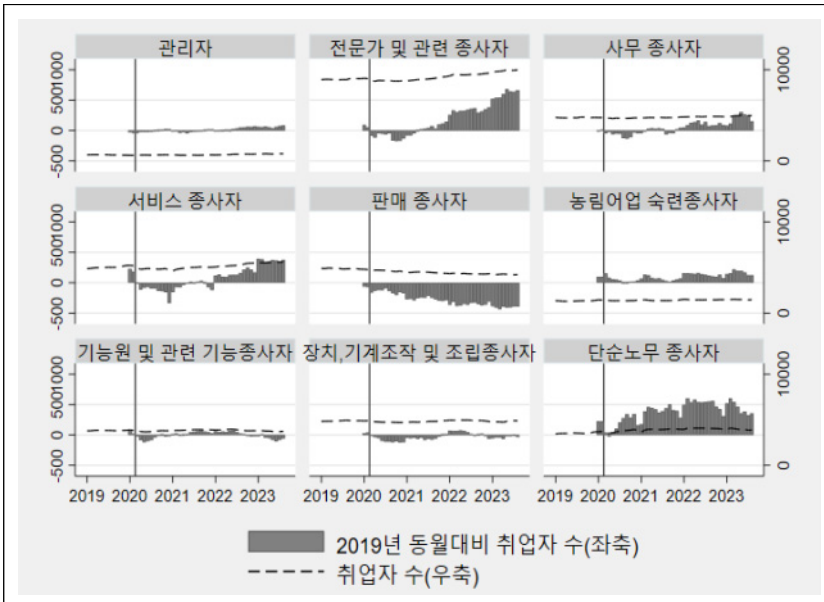
2020년			2021년			2022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12	119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335	247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318	230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177	89	소화물 전문 운송업	295	119	소화물 전문 운송업	322	146
소화물 전문 운송업	228	52	보관 및 창고업	186	5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2	85
보관 및 창고업	157	30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57	54	의원	439	65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30	2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59	5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488	63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677	23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743	50	보관 및 창고업	188	6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195	23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18	46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289	61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85	19	병원	653	46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62	59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258	18	도로 화물 운송업	410	33	병원	660	5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5	18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270	30	작물 재배업	1408	53

주: 2019년과 성, 연령, 교육수준 분포가 동일하도록 재가중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지역별고용조사(B형) 원자료.

다음으로 직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의 취업률 감소가 두드러진다([그림 2-21] 참고). 특히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2021년 초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다만, 2022년 이후 취업자 수는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며, 그 후 취업자 수는 증가 양상을 나타낸다. 반면, 판매 종사자의 경우 앞서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줄곧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도소매업과 판매 종사자 전반이 배달과 물류업 등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양상이 가속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1] 코로나19 전후 직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2023i). 직업별 계절조정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5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2-4〉 2019년 대비 취업자 감소 직종(상위 10개 세분류 직종)

(단위: 천 명)

2020년			2021년			2022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매장 판매 종사자	1752	-195	매장 판매 종사자	1669	-278	매장 판매 종사자	1626	-321
경영 관련 사무원	2252	-103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22	-136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566	-90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56	-102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570	-86	영업 종사자	590	-78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555	-101	경영 관련 사무원	2286	-69	경영 관련 사무원	2281	-74
자동차 운전원	956	-56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338	-58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97	-61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346	-50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107	-48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98	-57
여가 서비스 종사자	205	-41	여가 서비스 종사자	204	-42	자동차 운전원	963	-49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380	-39	가사 및 육아 도우미	116	-40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348	-48
조리사	963	-33	영업 종사자	631	-37	가사 및 육아 도우미	110	-46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126	-29	종교 관련 종사자	105	-35	종교 관련 종사자	106	-34

주: 2019년과 성, 연령, 교육수준 분포가 동일하도록 재가중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지역별고용조사(B형) 원자료.

한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초기에 일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나, 그 후 가장 큰 폭으로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감염병 우려로 인하여 교육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반영하는 양상으로 보인다. 회복기의 경우 보건복지서비스업의 확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수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 단순노무자 역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일자리의 구성에 있어서 판매·서비스직이 감소하는 반면, 단순노무직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보인다.

〈표 2-4〉를 살펴보면, 매장 판매 종사자와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매장 판매 종사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19만 5천 명, 2021년 27만 8천 명, 2022년 32만 1천 명이 감소하여 매해 감소폭이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역시 2019년 대비 2020년 10만 2천 명, 2021년 13만 6천 명, 2022년 6만 1천 명이 감소하여 2021년까지 감소폭이 커지다가 2022년 다소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이는 앞서 산업 변동에서 음식점업과 도소매 업종의 취업자 감소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2020년 문리·기능 및 예능 강사의 수가 전년 대비 10만 명 줄어든 것도 기타 교육기관과 일반 교습 학원과 같은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와 연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표 2-5〉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직종을 살펴보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2020년에 2019년 대비 14만 3천 명이 늘어났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2022년 현재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65.6세이고, 65세 이상 노인 종사자의 비율이 56.6%를 차지하며, 18.2%가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22.6%가 비거주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b, 지역별고용조사(B형) 원자료).

54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2-5〉 2019년 대비 취업자 증가 직종(상위 10개 세분류 직종)

(단위: 천 명)

2020년			2021년			2022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세세직업	취업자	'19 대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096	143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121	16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155	20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263	52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609	100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643	134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553	44	배달원	430	81	조리사	1129	133
배달원	390	41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279	68	배달원	464	115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149	34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442	52	행정 사무원	601	92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421	3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165	50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415	85
통신 관련 판매직	245	29	조리사	1043	47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474	84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62	26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375	45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177	62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443	24	통신 관련 판매직	258	42	작물 재배 종사자	1330	60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23	2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35	35	통신 관련 판매직	275	59

주: 2019년과 성, 연령, 교육수준 분포가 동일하도록 재가중한 결과이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b). 지역별고용조사(B형) 원자료.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 역시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57.1세이고, 50~64세 장년 비율이 59.8%에 이르며, 62.6%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서 일하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b, 지역별고용조사(B형) 원자료). 즉, 코로나19 이후 입법 및 일반정부 행정과 비거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가 주로 청소 및 환경미화원과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들 연령이 대부분 고령자라는 점에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들 고령자의 고용률이 줄어들기보다 늘어나는 맥락을 설명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주로 일자리를 상실한 청년층과 이후에도 고용률이 회복되지 못하는 40대 등은 이 같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혜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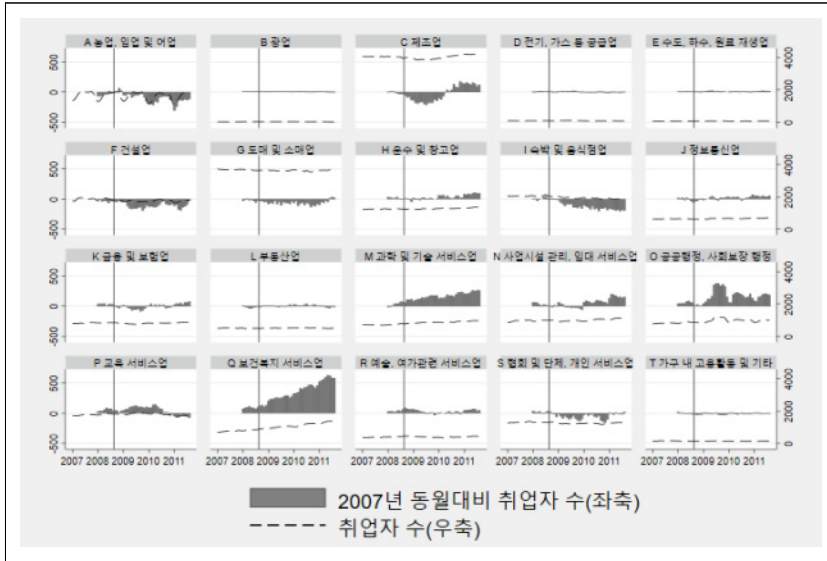
그 외에도 배달원의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 4만 1천 명, 2021년 8만 1천 명, 2022년 11만 5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 또한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의 증가 역시 물류 관련 업종의 팽창과 연결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자가 늘어난 업종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유일한 전문직 직군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였다. 이는 앞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확대와 연결되는 결과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림 2-22]에서 보듯, 금융위기 시 가장 우선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던 부문은 제조업 부문이었으며,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 등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적 차이는 직업별 차이와도 연결되는데, 코로나19 이후 위기와 달리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진다([그림 2-23] 참조). 이는 금

용위기 시 남성 청년 중심으로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양상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림 2-22] 금융위기 전후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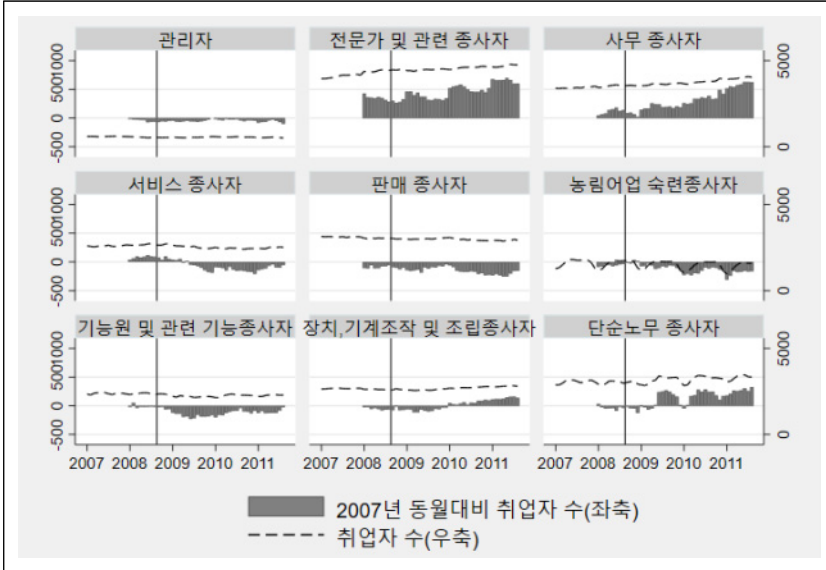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h). 산업별 계절조정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코로나19 전후와 금융위기 전후 취업자 수 양상이 유사하였던 점은 보건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 행정,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의 증가다. 이는 위기의 회복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하는 준전문가의 증가와 관련 있음을 보여 준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하는 준전문가의 증가는 표면적으로는 전문직의 증가이나, 이들 보건복지 직업군의 임금 수준이 통상적으로 낮은 점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증가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성재민, 2015).

[그림 2-23] 금융위기 전후 직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2023i). 직업별 계절조정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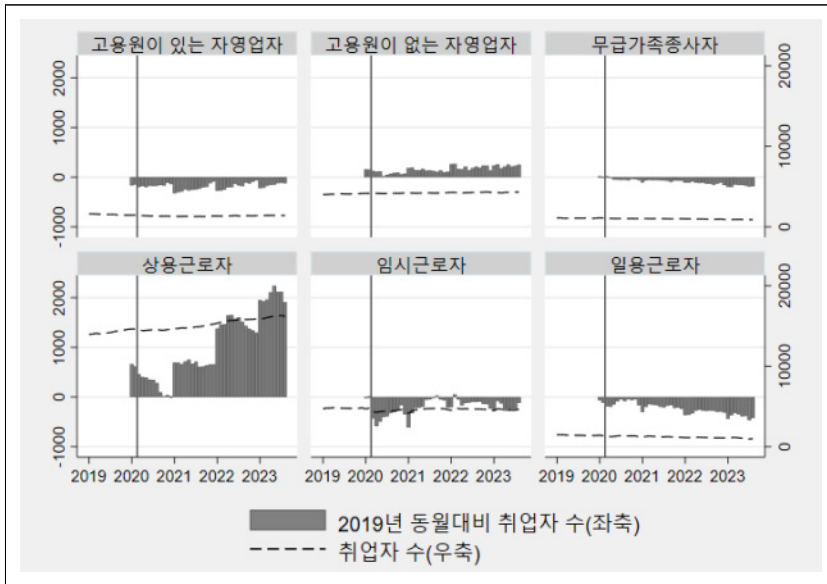
2. 종사상지위 변화

[그림 2-24]의 종사상지위별 변동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임시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직후에 취업자 수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2021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취업자 수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가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일용근로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 감소 양상을 나타낸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2023년 현재까지도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의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도 눈에 띈다. 이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영세 자영업 또는 특수형태고용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용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그 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회복기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그린다.

[그림 2-24] 코로나19 전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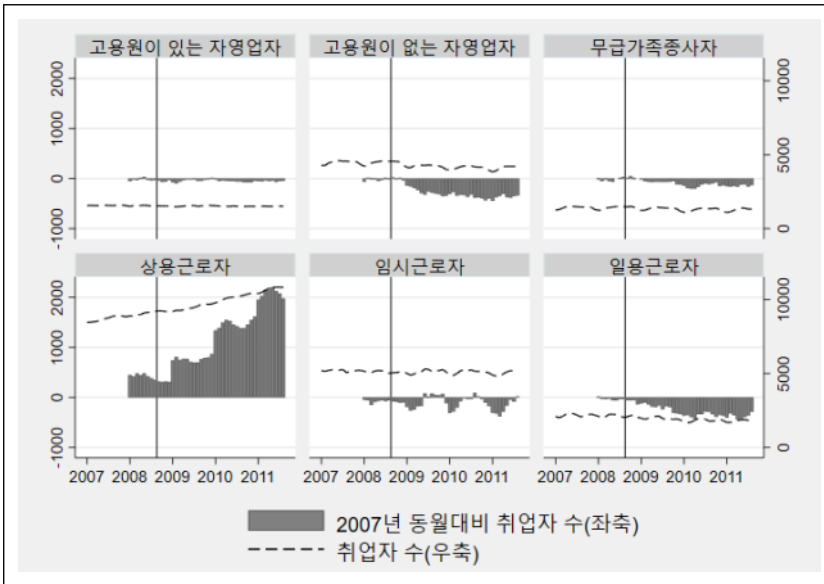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i). 종사상지위별 계절조정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금융위기 시기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와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시기와 동일하게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경제위기 시에 가장 먼저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위기 시와 코로나19 시기의 주요한 차이는 자영업자의 변동이다. 금융위기 시 고

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의 변동폭은 크게 관측되지 않았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주로 규모가 있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는 하나, 코로나19 시기 배달업 등 특수고용관계에 있어 임금 근로자로 파악되기 어려운 이들이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이들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5] 금융위기 전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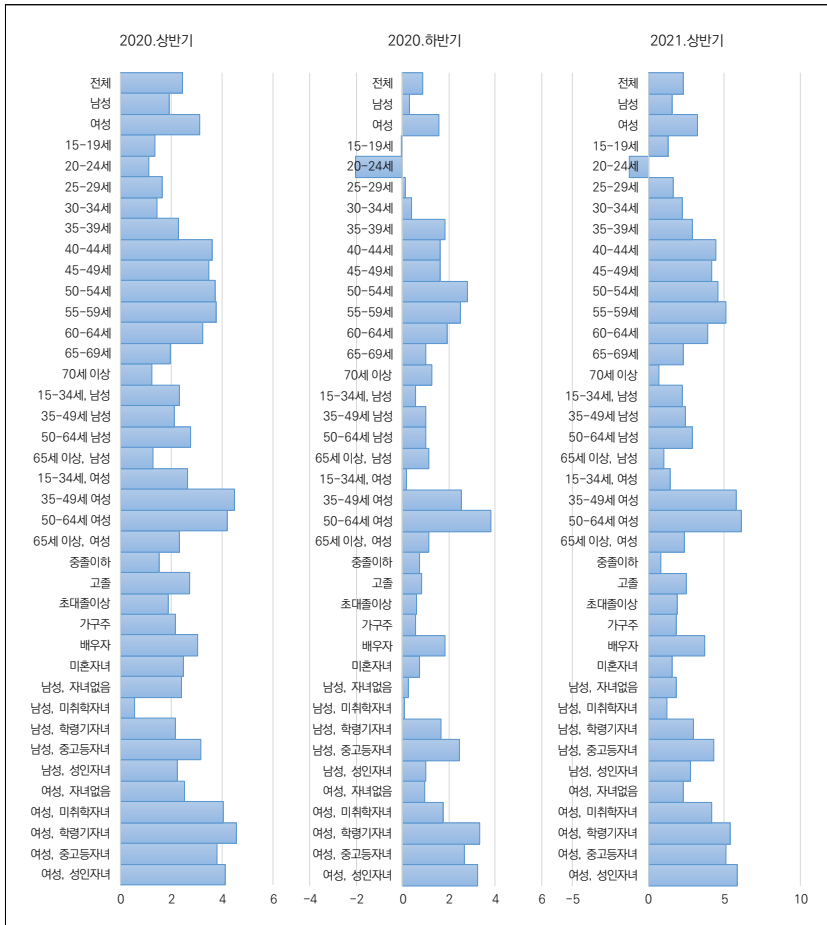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3)). 종사상지위별 계절조정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지역별고용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상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2-2

60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6)을 보면,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상반기에 2019년 상반기 대비 상용직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상용직 비율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의 상황에서 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이들이 임시·일용직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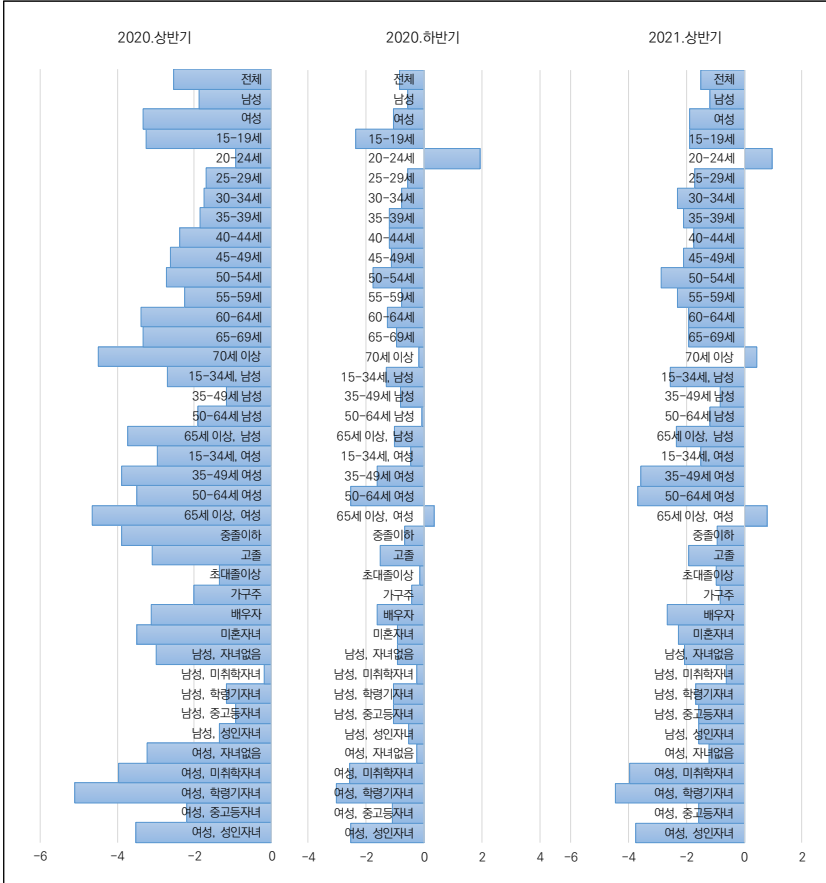
[그림 2-26] 2019년 대비 집단별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 변화, 코로나19 초기 (단위: %포인트)



자료: 통계청. (각 연도c). 지역별고용조사(C형) 원자료.

[그림 2-27] 2019년 대비 집단별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율 변화, 코로나19 초기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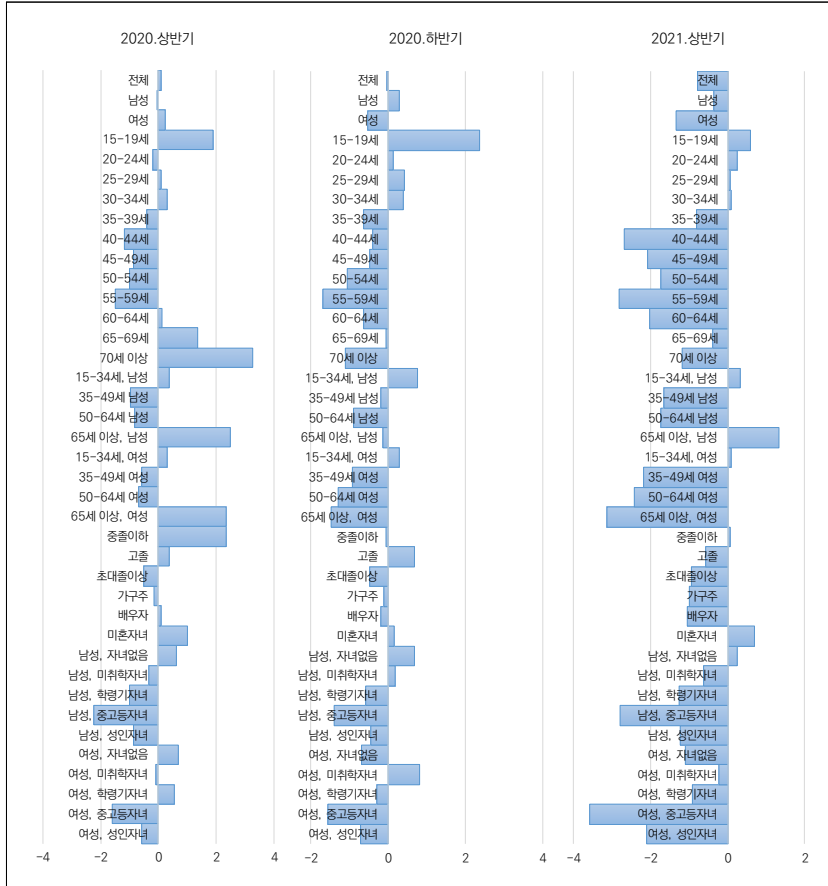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c). 지역별고용조사(C형) 원자료.

[그림 2-27]을 보면, 임시·일용직 비율 감소 역시 자녀가 있는 여성,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큰 폭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시간을 줄이거나 일시휴직 등을 선택하기보다 노동 시장을 이탈하면서 비취업자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미취업 증가가 주로 임시·일용직 감소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6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그림 2-28] 2019년 대비 집단별 취업자의 비임금근로 비율 변화, 코로나19 초기

(단위: %포인트)



자료: 통계청. (각 연도c). 지역별고용조사(C형) 원자료.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상황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의 상황을 다루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22년까지로 관측시점을 확대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 또는 회복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고용 이외에도 일시휴직이나 노동시간 변화, 임금, 산업과 직업, 종사상지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시장 변화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변화는 주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직후 대부분의 성·연령별 하위집단에서 고용률이 급감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여성과 청년층에서 고용률 감소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의 집중도가 높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컸으며(함선유 외, 2021), 특히 여성의 경우 자녀 돌봄의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지연, 2021).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회복되는 상황에서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은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우 청년 남성에 비하여 더 빠르게 고용률을 회복하여, 위기에 더 탄력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물론 모든 여성의 회복이 빨랐던 것은 아닌데, 여성 중에서도 미취학 자녀나 학령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회복은 더뎠다. 특히 긴급보육 등이 가능했던 미취학 아동에 비하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2022년에 이르러서도 2019년 수준으로 고용률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돌봄 공백과 이에 따른 경력 단절이 여성의 고용에 상당히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고용률 양상에서 두드러졌던 점은 40대의 회복 부진이었다. 40대는 통상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코로나19 이후 고용률 감소는 큰 편이 아니었으나, 2023년 초반까지도 2019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물론 40대 고용률의 부진은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관측되는 경향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민수(2021, p.2)는 201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40대 취업자가 50대 취업자 수를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40대의 경우 임시·일용근로자는 약간 감소하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두드러졌고(조민수, 2021, p.15), 취업자 감소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조민수, 2021, p.11).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40대 고용의 감소가 컸다는 점과 일치한다. 또한 코로나19 회복기에 중고령 여성은 돌봄과 청소 등 공공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나, 40대 여성의 경우 노령 일자리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회복이 더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에서도 소득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40대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서, 가장 최근의 경제위기였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함께 확인하였다. 코로나19는 금융위기에 비하여 상당히 급격하게 고용 충격을 주었던 반면, 회복 역시 빨랐다. 이는 금융위기의 경우 본격적인 충격 이전부터 고용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점진적 성격을 띠는 반면에,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에 기인하는 위기는 예측이 어려운 성

격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는 이전에 겪어 본 적 없는 성격의 위기로 위기 상황이 얼마나 크고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 큰 폭의 고용 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복이 빠르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구조조정보다 단기적이거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이 위기의 분산과 대응에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일시휴직자의 수는 유례없이 늘어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일부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 변동 이외에도 시장의 위기를 근로시간 감축이나 일시휴직으로 대응하는 양상 역시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이후 불완전 취업자의 수는 실업자의 수보다 작지 않았으며, 불완전 취업자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실업의 경우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장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불완전 취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추후 사회적 안전망 설계에 있어 원치 않는 노동시간 감소에 대한 대응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부분 실업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는 피고용인의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주당 35시간) 이하로 단축되거나, 기존 계약상 명시된 노동시간보다 적을 때 총 임금의 60~70% 가량을 보장해주는 제도다(김진리, 2022). 이처럼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은 해고나 사업장 폐쇄가 아닌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의한 노동자의 소득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산업과 직업별 취업자 수 변동을 살펴보면, 입법 및 일반 정부행정과 비거주 복지시설 업종의 청소 및 환경미화원,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여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가 유지 또는 확

대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20년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총 인원은 124만 명으로 본예산 97만 명에 추경예산 26만 명이 더해진 수치다(장기영 외, 2022). 이와 같은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통계를 살펴 보면, 2020년 본예산의 경우 79.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55~64세의 중년층 역시 10.4%를 기록하여 중고령자의 비율이 압도적이었다(장기영 외, 2022, p.124). 다만, 코로나19 이후 추경으로 편성된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비율은 19.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55~64세 25.6%, 35~54세 26.4%, 15~34세는 2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장기영 외, 2022, p.124). 이는 본예산과 달리 추경예산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청년 집단에 직접일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비율이 전체 정부 일자리에서 매우 미미하였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정부 일자리의 대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와 직접적 관련이 낮은 고령층이었다.

정부 일자리의 이와 같은 양상은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와도 상당히 닮아있다. 금융위기 전후 보건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 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표면적으로는 전문직의 증가이다. 그러나 이들 보건복지 산업 내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통상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증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성재민, 2015). 즉, 고용률과 같은 지표에 있어서 이들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이 나 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도(함선유, 김현경, 이정희, 한겨레, 2022)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코로나19 이후 주요한 산업적 변동으로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 관련 서비스업이 감소하고 물류 및 배달 관련 업종과 직종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과 직업의 취업자 수 확대도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생활상 및 산업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음식서비스업과 소매업과 같은 자영업의 감소와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2016~2021년 연간 소득분배 변화

제4절 2019~2023년 분기 소득분배 변화

제5절 소결

제 3 장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장에서 확인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은 개인의 취업소득을 감소시켰고 가구소득분배를 악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혹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이후에 가구소득이 감소하였고, 빈곤 및 불평등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유자녀 여성 등에 대한 소득·빈곤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남재현, 이래혁, 2020; 송상윤, 2021; 여유진 외,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백명호, 2022). 이와 같은 소득 감소 및 소득분배 악화는 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집중되었고 대체로 시간에 따라 회복되었다(여유진 외, 2021, p.254; 백명호, 2022, p.20). 또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상당히 완화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켜 소득분배를 개선하였다(여유진 외, 2021, p.269; 이승호, 홍민기, 2021, p.33).

이와 같이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주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월간/분기 소득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소득 충격을 빠르게 진단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코로나19 전후 중장기 소득분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수집한 연간 소득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 수

급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의 대응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t 년 소득을 $t+1$ 년에 조사하여 $t+2$ 년 초에 제공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백명호(2022)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2016~2020년 소득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가처분소득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뚜렷하게 관찰하지 못하였다. 최진희(2023)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2019~2020년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및 임시·일용근로자의 시장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의 소득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재난지원금의 역할이 컸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장에서는 첫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수집한 2016~2021년 연간 소득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2019~2023년 가계동향조사 분기 소득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까지의 소득분배 변화를 보완하여 기술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2016~2021년(소득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t+1$ 년에 t 년 연간 소득과 $t+1$ 년 3월 말 기준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조사하므로,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가구 구성 등의 개인 특성과 소득의 측정 기준 시점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모든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고, 가구 내에서 합산한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여 개인단위로 분석한다. <표 3-1>에는 표본 사례 수를 보고하였다.

<표 3-1> 표본 비율 및 사례 수

(단위: %, 명)

구분	표본 비율						표본 사례 수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전체 인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9,518	48,590	46,847	45,095	44,034	42,464
18~64세	66.4	65.6	65.5	64.5	64.9	65.6	32,209	31,157	29,990	28,417	27,324	26,108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016~2021년 전체 인구 및 18~64세의 소득 분배 추이를 기술하여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전반적인 소득분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인구를 분석하되,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집중된 18~64세 근로연령인구에 대한 분석을 병행한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추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빈곤율이 1%포인트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6~2019년에도 빈곤율이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하였다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에 빈곤율이 증가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시점별 데이터를 결합하여 식(1)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한다. 식에서 $D_{T=p}$ 는 p 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를, TRD 는 선형 추이를,¹⁾ X 는 개인 특성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β 와 γ 는 각각 코로나19 이전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

1) 선형 추이는 연도에서 2016을 차감한 연속변수이다.

을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한 코로나19 이후 2020년과 2021년의 결과변수 변화를 의미한다.

$$Y = \alpha + \beta \times D_{T=20} + \gamma \times D_{T=21} + \delta \times TRD + \zeta \times X + \epsilon \quad (1)$$

〈표 3-2〉 결과변수 정의

구분		정의	비고
개인취업소득		· 개인취업소득(절대값/로그값)	· 연간 소득(만 원) ·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2021년 기준 실질화
가구시장소득		· 가구 내에서 합산하고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시장소득(절대값/로그값)	
가구가처분소득		· 가구 내에서 합산하고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가처분소득(절대값/로그값)	
시장소득 빈곤		·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선 미만=1 / 빈곤선 이상=0	· 빈곤선: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 ²⁾
시장소득 빈곤갭		· 빈곤층: (빈곤선-균등화 가구시장소득)÷빈곤선 · 비빈곤층: 0	
가처분소득 빈곤		·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선 미만=1 / 빈곤선 이상=0	
가처분소득 빈곤갭		· 빈곤층: (빈곤선-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빈곤선 · 비빈곤층: 0	
공적이전 소득 항목별 효과	소득 효과	· 〈균등화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로그값 - 〈균등화 시장소득〉 로그값	· 공적이전소득 항목: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재난지원금, 순공적이전
	빈곤 효과	· 〈균등화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빈곤 - 〈균등화 시장소득〉 빈곤	
	빈곤갭 효과	· 〈균등화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빈곤갭 - 〈균등화 시장소득〉 빈곤갭	

주: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효과는 가구 내에서 합산한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순공적이전은 총 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값이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2) 빈곤선은 2016년 1,364만 원/년, 2017년 1,390만 원/년, 2018년 1,425만 원/년, 2019년 1,481만 원/년, 2020년 1,537만 원/년, 2021년 1,586만 원/년이었다(2021년 실질,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20년 이후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중위소득과 빈곤선을 일정하게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빈곤선 추이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결과변수는 <표 3-2>와 같이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가구가처분 소득, 시장소득 및 가치분소득 빈곤·빈곤갭,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소득·빈곤·빈곤갭 효과로 구성한다.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효과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합산함에 따른 로그 소득, 빈곤, 빈곤갭 변화로 정의한다. <표 3-3>에는 소득 정의를 제시하였다.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한 소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가구 내에서 합산하지 않은 개인취업소득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개인취업소득을 가구 내에서 합산한 후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시장소득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가치분소득을 분석한다.

<표 3-3> 소득 정의

구분	내용	
취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 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이전소득	
공적이전 소득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아동 관련 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장애 관련 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기초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고용·산재보험급여	고용보험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기타 공적이전소득	농어업 정부보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관련 지원, 보훈급여, 긴급복지지원, 체육연금, 장수수당 등	
사적이전지출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특수직역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시장소득	취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가치분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표 3-4〉 하위집단 정의

구분	정의	비고
성	남성/여성	
연령	18~34세/35~49세/50~64세/65세 이상	t+1년 3월말 만 연령
교육수준	중졸 이하/고졸/전문대졸/4년제 대졸 이상	t+1년 3월말
가구원 지위	가구주/배우자/기타 가구원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 이상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미취학 가구원과 동거하는 여성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미취학 가구원과 동거하는 남성	
초등학교 동거 여성	초등학교 재학 가구원과 동거하는 여성	
초등학교 동거 남성	초등학교 재학 가구원과 동거하는 남성	
한부모가구	부모가 1명이고 18세 미만 미혼 자녀가 존재하는 가구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비취업자	
가구주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비취업자	
개인취업소득계층	개인취업소득 0원 초과 집단의 개인취업소득 기준 5분위 구분	연간 소득
가구시장소득계층	전체 인구의 제곱근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기준 5분위 구분	

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위집단을 설정하였다. 하위집단 표본 비율 및 사례 수는 〈부표 3-1〉에 보고하였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 3-4〉와 같이 정의한 하위집단별 분석을 실시한다. 우선 개별 하위집단 표본으로 식(1)을 추정하여 하위집단별 소득 충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18세 이상 표본으로 식(2)를 추정하여 개별 하위집단에 대한 소득 충격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았는지를 분석한다. 식에서 G 는 개별 하위집단 더미변수를, $D_{T=p}$ 는 p 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를, TRD 는 선형 추이를, X 는 개인 특성 통제변수를 의미한다. δ 와 ζ 는 각각 코로나19 이후 2020년과 2021년 결과변수 변화의 개별 하위집단과 나머지 집단의 차이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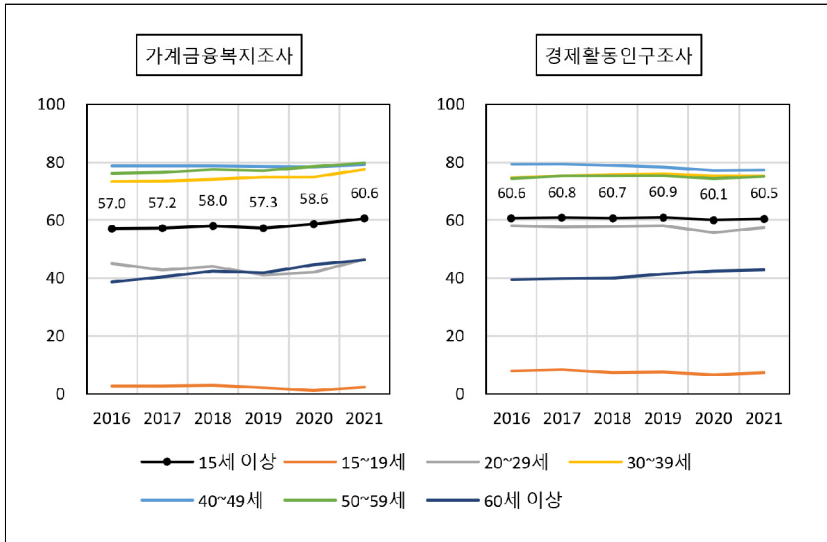
$$Y = a + \sum_p (\beta_p \times D_{T=p}) + \gamma \times G + \delta \times D_{T=20} \times G + \zeta \times D_{T=21} \times G + \eta \times TRD \times G + \theta \times X + \epsilon \quad (2)$$

제3절 2016~2021년 연간 소득분배 변화

1. 경제활동 추이

[그림 3-1] 2016~2021년 15세 이상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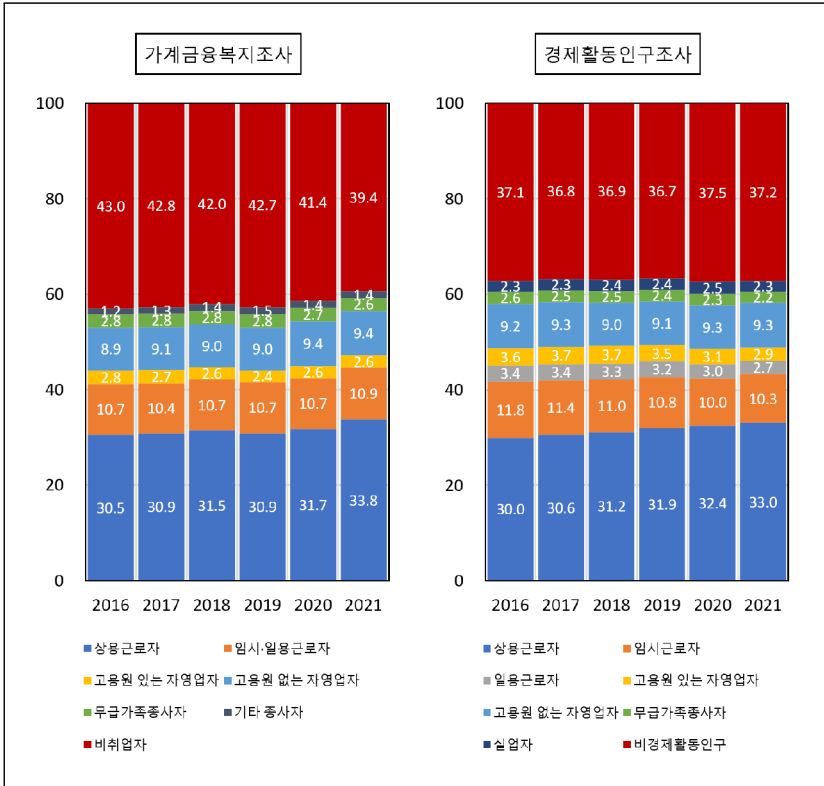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그림 3-2] 2016~2021년 15세 이상 종사상지위 비율

(단위: %)



자료: 1)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 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본격적으로 소득분배를 분석하기에 앞서, [그림 3-1]과 [그림 3-2]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관찰한 경제활동 추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이 2019년 60.9%에서 2020년 60.1%로 감소한 후 2021년 6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확산 직후 2020년의 고용 악화와 2021년의 완만한 고용 회복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5

세 이상 고용률이 2018년 58.0%에서 2019년 57.3%로 감소하였고, 2020년 이후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는 t+1년에 t년 연간 소득과 t+1년 3월 말 기준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므로, 코로나19 확산 직후 2020년 3월 말까지의 고용 충격이 2019년 데이터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³⁾ 또한 [그림 3-2]를 살펴보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지위 분포가 횡단적으로 유사하였지만, 코로나19 전후 종사상지위의 세부적인 변화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관찰한 연간 소득 변화와 경제활동 변화를 연결하여 해석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하에서 종사상지위, 가구주 직업 등과 같은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소득 분배 변화를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은 한계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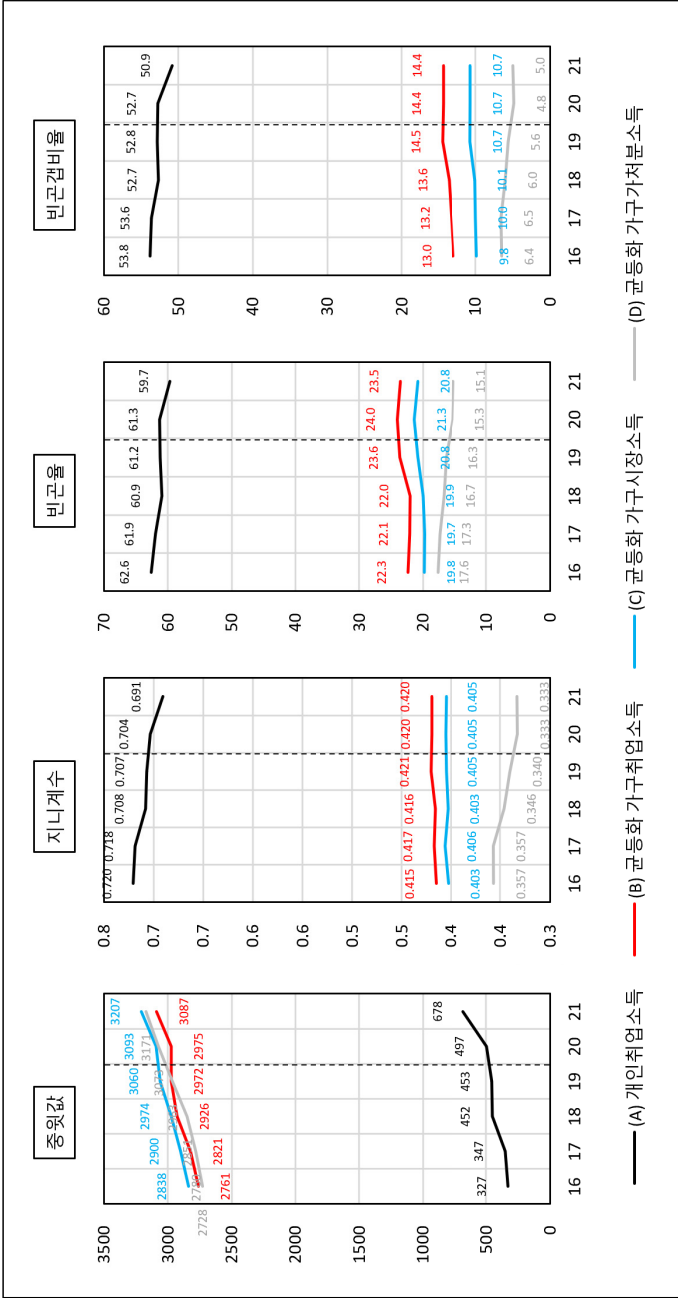
2. 소득분배 추이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3-3]에서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지 않은 개인취업소득,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취업소득/가구시장소득/가구가처분소득 분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전후 노동시장 변화가 일차적으로 개인취업소득 분포에 반영되고, 가구 구성 변화를 경유하여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분포로,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지출 변화를 경유하여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분포로, 공적이전소득·지출 변화를 경유하여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분포로 나타난다.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9년 3월에 비해 0.9% 포인트 감소하였다(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그림 3-3] 전체 인구 소득분배 추이, 실제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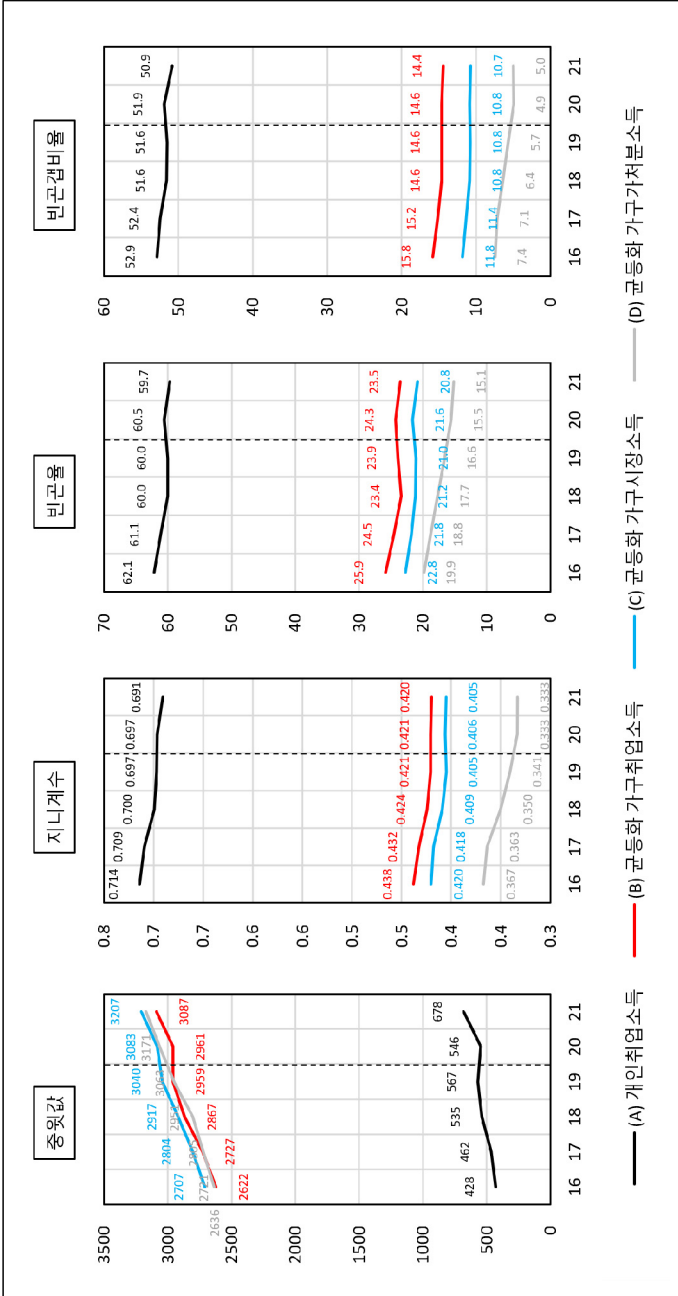
(단위: 증잇값-만 원/년, 2021년 실질, 지니계수-포인트, 지니계수-포인트, 빈곤율/빈곤갭비율-%)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3-4] 전체 인구 소득분배 추이, 재가중 표본

(단위: 증잇값-만 원/년, 2021년 실질, 지니계수-포인트, 지니계수-포인트, 빈곤율/빈곤값비율-%)



주: 연도별 전체 인구의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가 2021년과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한 재가중 표본을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예를 들어 증윗값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취업소득이 대체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직후 뚜렷한 단절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균등화 가구취업소득은 2016년 2,761만 원/년에서 2019년 2,972만 원/년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 2,975만 원/년으로 정체하였고, 2021년 3,087만 원/년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2016~2019년의 증가 추이가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균등화 가구취업소득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균등화 가구취업소득 증가세가 회복되었으므로,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역시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었다. 단, 공적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추이에서는 2020년의 단절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이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크게 완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직후 뚜렷한 단절이 관찰되지 않았다. 대체로 코로나19 확산 직전 2019년에 균등화 가구취업소득/가구시장소득 분배가 소폭 악화하였지만, 2019년과 2020년의 균등화 가구취업소득/가구시장소득 분배 지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공적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분배는 2020년까지 꾸준히 개선되었고, 2021년에 대체로 정체하였다. 요컨대,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가구취업소득/가구시장소득 증윗값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코로나19가 불평등 및 빈곤을 악화하였다는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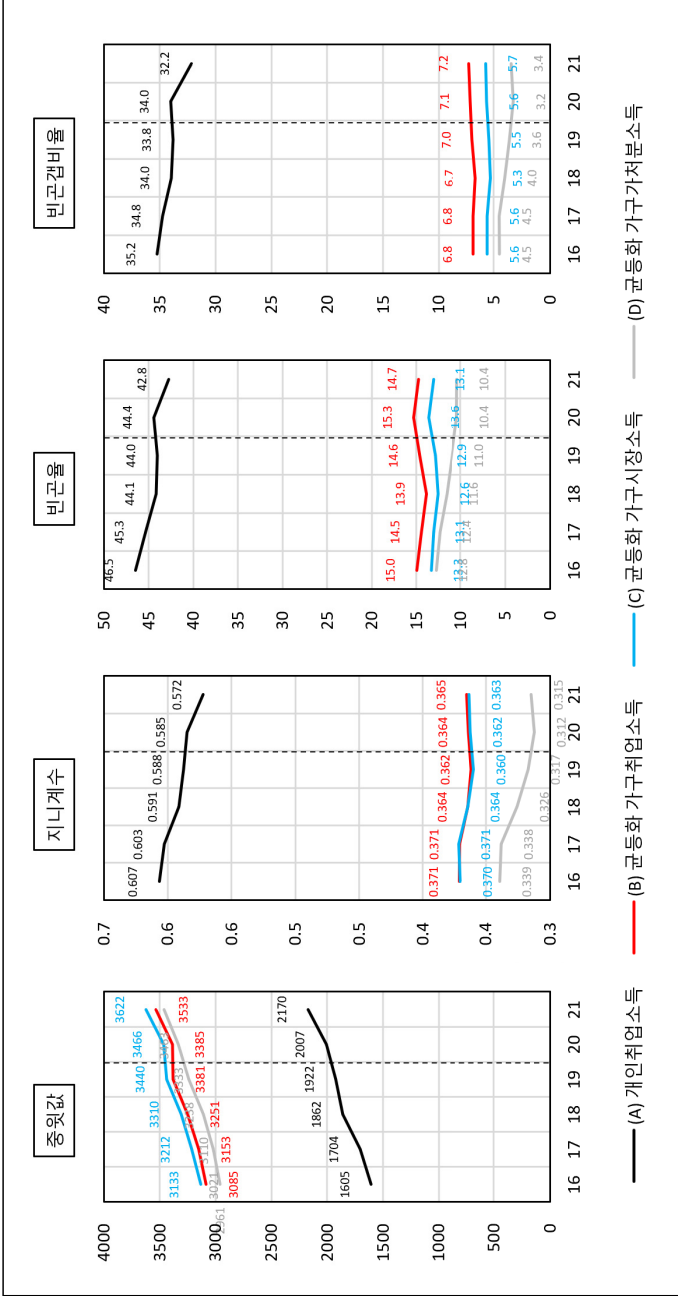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대체로 코로나19와 무관한 인구·가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그림 3-4]에서는 시간에 따른 고령화, 가구 소규모화 등과 같은 인구·가

구 구조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별 전체 인구의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가 2021년과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한 재가중 표본을 분석하였다.⁴⁾ [그림 3-3]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를 통제한 [그림 3-4]에서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이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그림 3-3]에서는 개인취업소득 증윗값 추이의 2020년 단절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림 3-4]에서는 개인취업소득 증윗값 추이의 2020년 단절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2016~2019년 개인취업소득 증윗값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 546만 원/년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 678만 원/년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해 2020년 개인취업소득 증윗값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균등화 가구취업소득/가구시장소득 증윗값 증가 추이의 2020년 단절이 관찰되었으나,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증가 추이의 2020년 단절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소득분배지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개인취업소득 및 균등화 가구취업소득/가구시장소득 지니계수 감소 추이가 2020년에 중단되었고,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 감소 추이가 2020년에 중단되었다.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추이가 완전히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코로나19가 취업소득/시장소득 분배를 일정하게 악화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은 2021년에 완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처분소득 분배를 악화하였다는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4) 전체 인구를 성, 연령, 가구원 수를 조합한 하위집단($G=g$)으로 구분할 때, t 년 표본의 g 번째 범주에 속한 사례에 대해 g 번째 범주의 비율을 2021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재가중치를 $(2021년\ 표본의\ g\ 번째\ 범주\ 비율 \div t년\ 표본의\ g\ 번째\ 범주\ 비율)$ 로 부여하였다(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p.181). 이때 연령은 0~4세/5~9세/10~17세/18~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49세/50~54세/55~59세/60~64세/65~69세/70~74세/75~79세/8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가구원 수는 1인/2인/3인/4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3-5] 18~64세 소득분배 추이, 실제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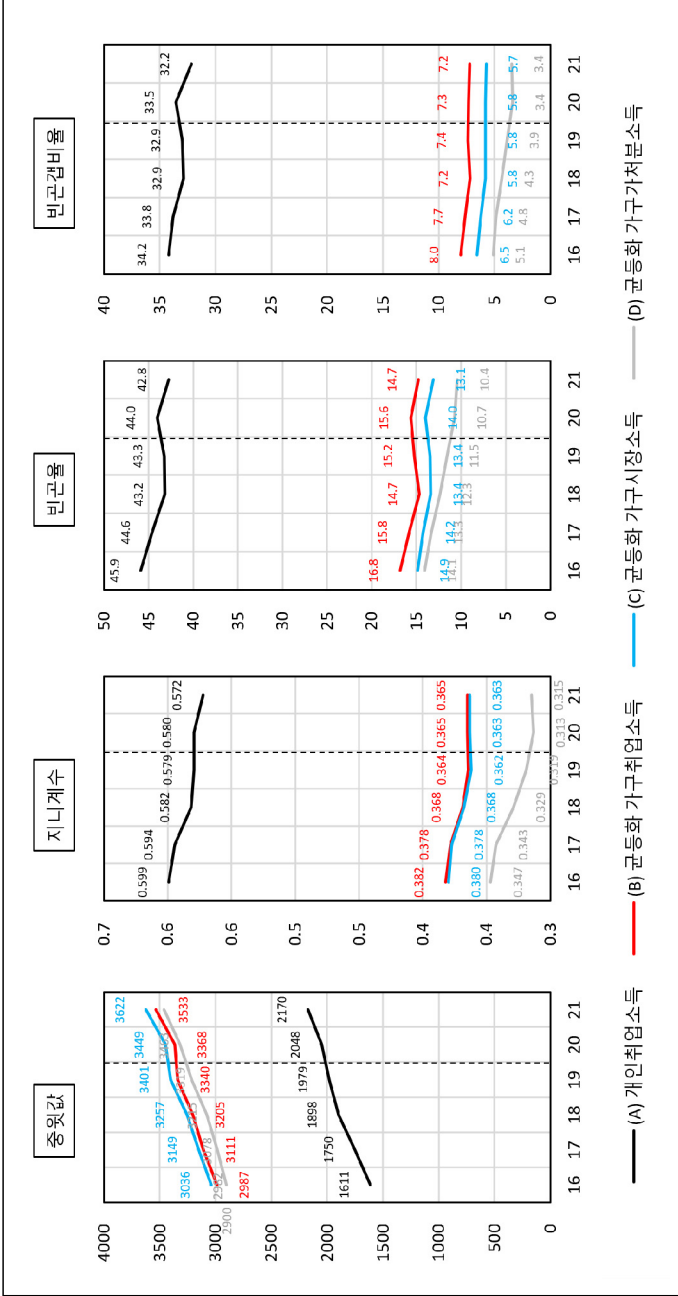
(단위: 증감액-만 원/년, 2021년 실질, 지니계수-포인트, 지니계수-포인트, 빈곤율/빈곤감비율-%)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3-6] 18~64세 소득분배 추이, 재가중 표본

(단위: 증잇값-만 원/년, 2021년 실질, 지니계수-포인트, 지니계수-포인트, 빈곤율/빈곤갭비율-%)



주: 연도별 전체 인구의 성·연령·가구원 수 분포가 2021년과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한 재가중 표본을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가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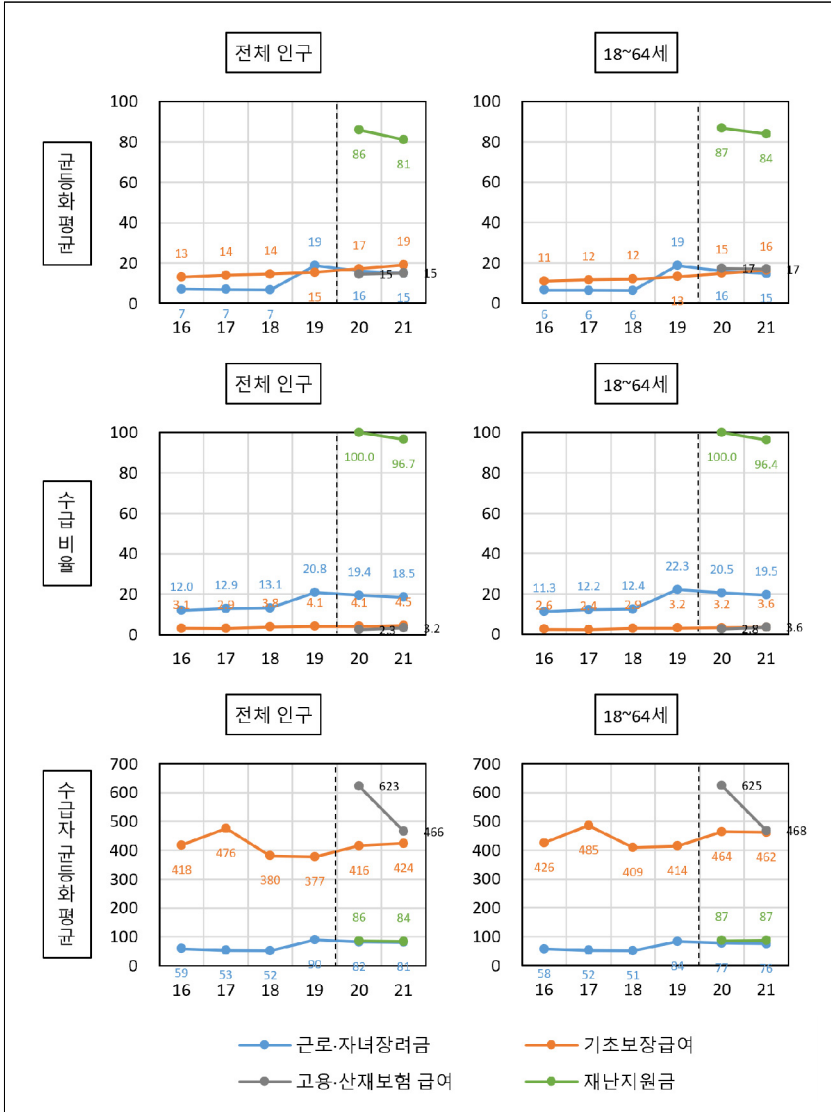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그림 3-5]와 [그림 3-6]에는 18~64세 근로연령인구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성·연령·가구원 수 변화를 통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균등화 가구취업소득/가구시장소득 증위값 증가세가 2020년에 중단되었고 2021년에 회복되었으며, 균등화 가구취업소득/가구시장소득 지니계수 감소세가 2020년에 중단되었고, 개인취업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과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율이 2020년에 증가하였고 2021년에 감소하였다. 요컨대, 코로나19가 근로연령인구의 취업소득/시장소득 증위값을 뚜렷하게 감소시켰고, 근로연령인구의 취업소득/시장소득 분배를 일정하게 악화하였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은 대체로 2021년에 완화하였다.

3. 공적이전 수급 실태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수급 실태를 살펴본다.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파악 가능한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나 근로빈곤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고용·산재보험 급여, 재난지원금을 분석한다. 우선 [그림 3-7]에는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하여 수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균등화 평균은 비수급자와 수급자를 포함하여 분석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평균을, 수급 비율은 가구 내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이 0원 초과 존재하는 비율을, 수급자 균등화 평균은 비수급자를 제외하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평균을 의미한다. 대체로 수급 비율을 대상포괄성으로, 수급자 균등화 평균을 급여적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7]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수급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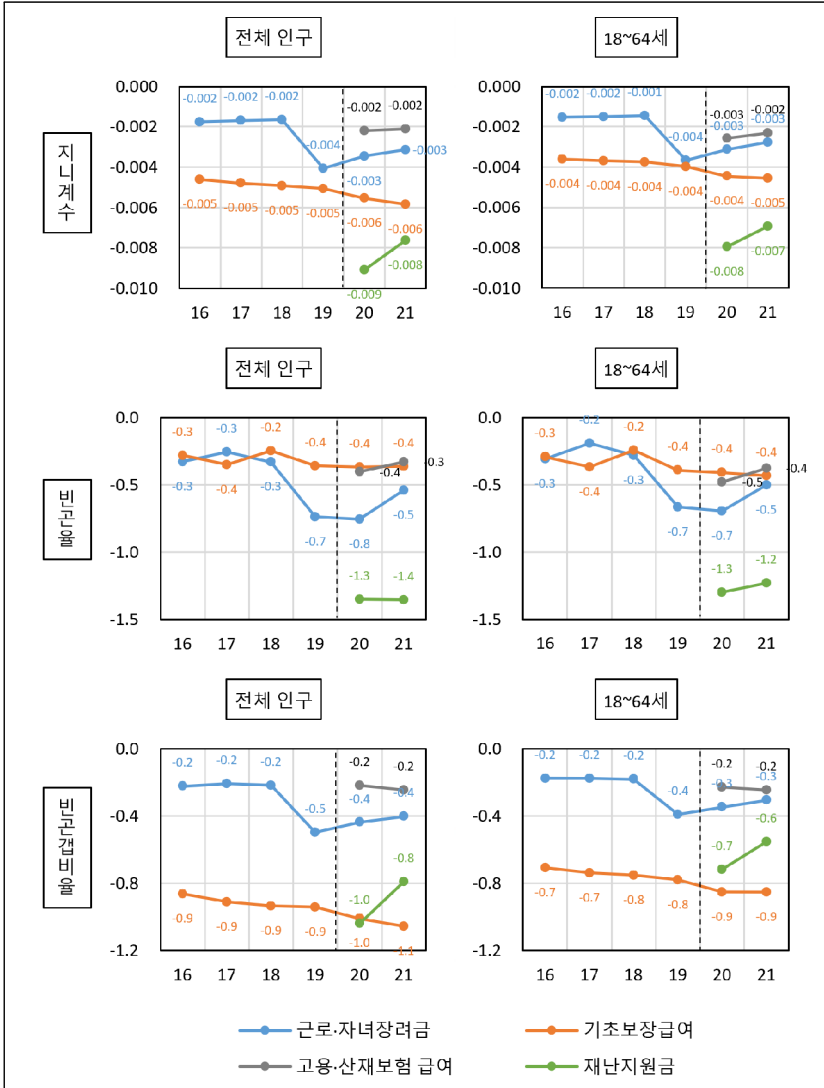
(단위: 평균-만 원/년, 2021년 실질, 수급 비율-%)



주: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공적이전소득을 분석하였다. 수급자 균등화 평균은 0원 초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평균을 의미한다. 고용·산재보험 급여는 2020년부터 조사되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3-8]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분배 효과

(단위: 지니계수-포인트, 빈곤율/빈곤갭비율-%포인트)



주: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공적이전소득을 분석하였다.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분배 지표에서 <시장소득>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고용·산재보험 급여는 2020년부터 조사되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을 살펴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2019년 연령·소득·재산 조건 완화 및 급여 인상으로 수급률과 급여 수준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 이후 2020~2021년에 수급률과 급여 수준이 소폭 감소하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량이 감소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체로 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에 진입하면 급여가 지원되고 소득이 증가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면 급여가 중지되므로, 원칙적으로 경기 변동으로 인한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림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2017년부터 기초보장급여 균등화 평균 및 수급 비율이 완만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는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정책적 변화가 기초보장급여를 확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인 공적이 전소득 항목은 고용·산재보험 급여와 재난지원금이었다. 고용·산재보험 급여의 18~64세 수급 비율은 2020년 2.8%에서 2021년 3.6%로 증가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2019년 이전 고용·산재보험 급여를 기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에 실업급여 수급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⁵⁾ 한편, 주로 2020년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9월 전국민의 88%에게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해, 재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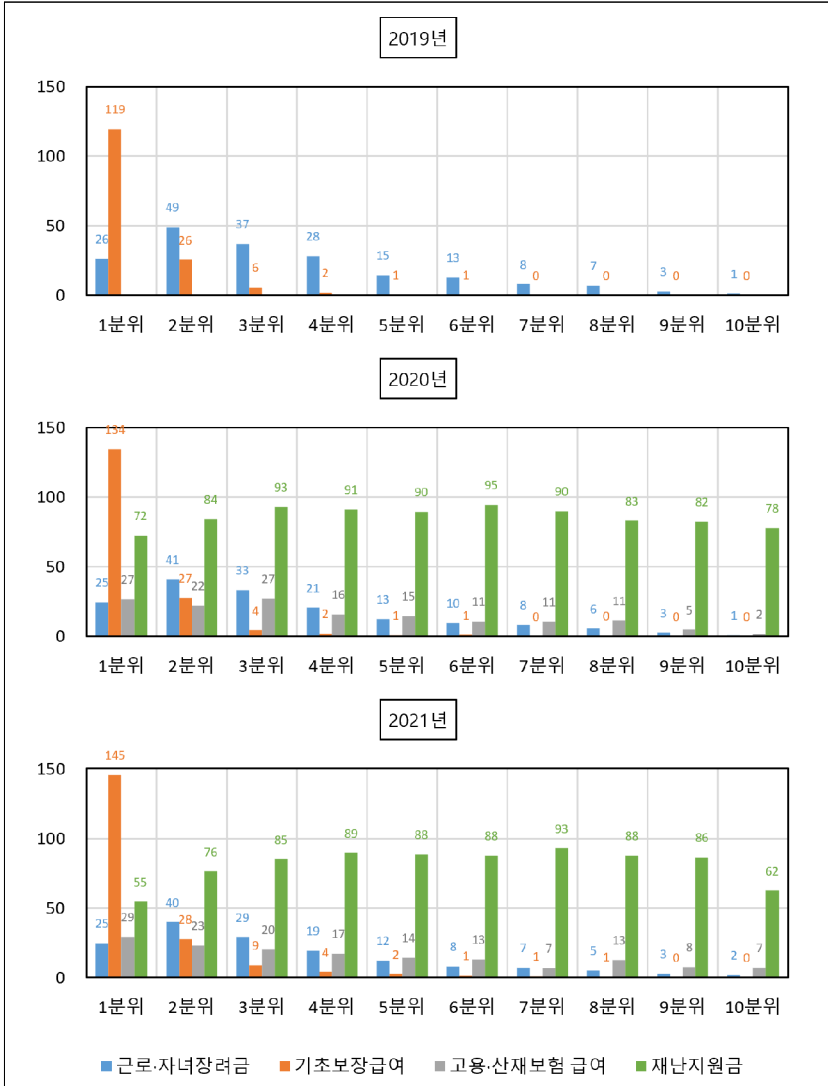
5)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2019년 153만 명에서 2020년 178만 명, 2021년 187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17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김현경, 2023, p.11).

원금 수급 비율은 2020년 100.0%, 2021년 96.7%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의 수급자 균등화 평균은 약 80만 원대로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8]에는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이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 비율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림의 수치는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계산한 분배지표에서 시장소득으로 계산한 분배지표를 차감한 값이다. 대체로 근로·자녀장려금의 분배 효과는 2019년에 급증한 후 2021년까지 감소하였고, 기초보장급여의 분배 효과는 시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급여는 2020~2021년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를 0.002포인트, 빈곤율을 0.3~0.4%포인트, 빈곤갭비율을 0.2%포인트 감소시켰다. 이는 대체로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근로빈곤층과 극빈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기초보장급여와 비교하면, 고용·산재보험 급여는 코로나19의 빈곤 및 불평등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보다 평균적인 소득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지원금은 2020~2021년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를 0.008~0.009포인트, 빈곤율을 1.3~1.4%포인트, 빈곤갭비율을 0.8~1.0%포인트 감소시켰다. 즉,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빈곤 및 불평등 충격을 완화하는 데 상당히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선별성이 가장 약한 재난지원금은 선별성이 가장 강한 기초보장급여에 비해 지니계수 및 빈곤율 감소 효과가 컸지만, 대체로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가 조금 작았다.

[그림 3-9] 2019~2021년 전체 인구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2021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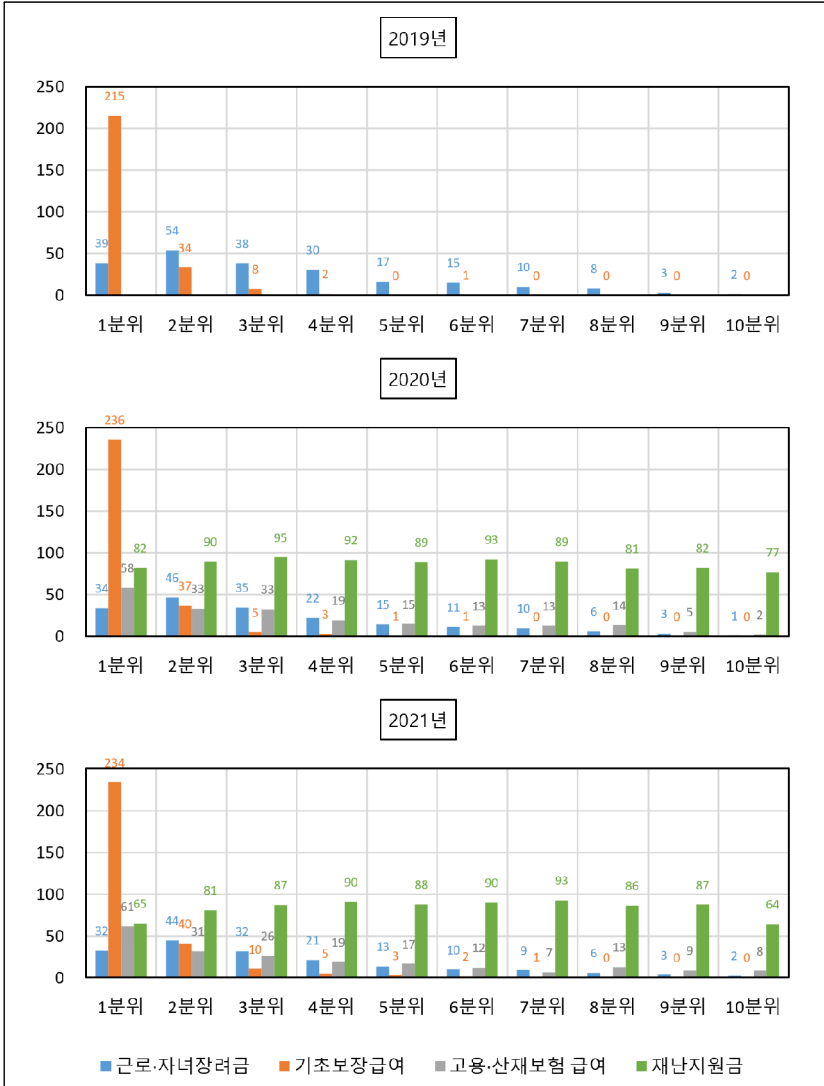
주: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공적이전소득을 분석하였다. 균등화 가구시장소득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시장소득분위를 구분하였다. 고용·산재보험 급여는 2020년부터 조사되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9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그림 3-10] 2019~2021년 18~64세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

(단위: 만 원/년, 2021년 실질)



주: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공적이전소득을 분석하였다. 균등화 가구시장소득으로 전체 인구를 10등분하여 시장소득분위를 구분하였다. 고용·산재보험 급여는 2020년부터 조사되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3-9]와 [그림 3-10]에서는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선별성 및 분배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체 인구 및 18~64세의 시장소득분위별 공적이전소득 평균을 분석하였다.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비취업자가 많이 분포한 1분위보다 2분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었고, 대체로 2019년 이후 시간에 따라 시장소득분위별 급여 수준이 소폭 감소하였다. 극빈층을 지원하는 기초보장급여는 주로 1분위에게, 부분적으로 2~3분위에게 지원되었고, 시간에 따라 1분위의 급여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산재보험 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실업, 육아 등의 사유에 따라 지원하지만, 소득계층별 실업 위험이 차등적이기 때문에 시장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 수준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노인을 제외하고 18~64세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분위의 고용·산재보험 급여 균등화 평균이 58~61만 원/년으로 가장 컸고, 2분위 이상 구간에서 점감하였다.

재난지원금은 대체로 소득 수준별로 고르게 지원되었으나, 특히 중간소득계층의 균등화 평균이 상대적으로 컸다.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에 각각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를 제공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개인 급여로 환산하면 각각 40만 원, 42만 원, 46만 원, 50만 원이었다.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었는데, 이를 제공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개인 급여로 환산하면 각각 25만 원, 35만 원, 43만 원, 50만 원이었다. 즉, 대규모 재난지원금의 설계에 엄격한 균등화지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규모가 클수록 실질적인 급여 수준이 높았고, 결과적으로 가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간소득계층의 재난지원금 균등화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에 극빈층이 집중된 시장소득 1분위 집단은 기초보장급여를 가장 많이 받았고, 재난지원금, 고용·산재보험 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순의 공적이전을 받았다. 시장소득 2분위 집단은 재난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고용·산재보험 급여 순의 공적이전을 받았다. 3~5분위의 중저소득계층은 부분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과 고용·산재보험 급여를 받았지만, 대체로 중간소득계층 및 고소득계층은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다. 요컨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이 컸던 2020~2021년에 기초보장급여가 극빈층을, 근로·자녀장려금 및 고용·산재보험 급여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재난지원금이 전체 소득계층, 특히 중간소득계층을 강하게 지원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변화를 살펴보면, 기초보장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은 대체로 코로나19와 무관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였고,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새롭게 지원되었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급여가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4.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 및 공적이전 효과

〈표 3-5〉에는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선형 추이 및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한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3-2〉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선 개인취업소득/가구시장소득/가구가처분소득의 절대값 및 로그값을 추정하였고, 다음으로 시장소득/가처분소득 빈곤 및 빈곤갭을 추정하였다.

〈표 3-5〉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 변화 및 공적이전 효과 변화

(단위: 빈곤·빈곤갭·포인트, 소득·만 원/년, 2021년 실질, 소득 효과·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2020년		2021년	
		식(1) β		식(1) γ	
전체	개인취업소득	-21.992	(14.633)	37.380	(28.099)
	로그 개인취업소득	-0.019	(0.017)	0.024	(0.024)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56.693	(28.868) *	10.691	(58.142)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0.024	(0.010) *	-0.012	(0.014)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8.070	(23.040) +	83.430	(46.904) +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0.017	(0.008) *	0.010	(0.011)
	시장소득 빈곤	0.010	(0.004) **	0.005	(0.005)
	시장소득 빈곤갭	0.002	(0.002)	0.002	(0.003)
	가처분소득 빈곤	-0.002	(0.004)	0.002	(0.005)
	가처분소득 빈곤갭	-0.004	(0.002) *	0.001	(0.003)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효과	-0.001	(0.001)	-0.003	(0.002) +
	근로·자녀장려금 빈곤 효과	0.000	(0.001)	0.003	(0.001) *
	근로·자녀장려금 빈곤갭 효과	0.001	(0.000) *	0.002	(0.000) ***
	기초보장급여 소득 효과	0.006	(0.004)	0.010	(0.006)
	기초보장급여 빈곤 효과	0.000	(0.001)	0.000	(0.001)
	기초보장급여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1	(0.001)
	재난지원금 소득 효과	0.102	(0.003) ***	0.090	(0.003) ***
	재난지원금 빈곤 효과	-0.014	(0.001) ***	-0.014	(0.001) ***
	재난지원금 빈곤갭 효과	-0.010	(0.000) ***	-0.008	(0.000) ***
	순공적이전 소득 효과	0.041	(0.007) ***	0.022	(0.010) *
순공적이전 빈곤 효과	-0.012	(0.003) ***	-0.003	(0.004)	
순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0.006	(0.001) ***	0.000	(0.003)	

〈표 3-5〉 계속

구분		2020년		2021년	
		식(1) β		식(1) τ	
18~ 64세	개인취업소득	-34.771	(21.993)	50.910	(42.290)
	로그 개인취업소득	-0.028	(0.023)	0.039	(0.034)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59.837	(34.618) +	36.464	(57.877)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0.025	(0.010) **	-0.019	(0.014)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6.949	(27.476)	109.053	(46.767) *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0.014	(0.008)	0.012	(0.012)
	시장소득 빈곤	0.011	(0.004) **	0.005	(0.005)
	시장소득 빈곤갭	0.003	(0.002)	0.003	(0.003)
	가처분소득 빈곤	-0.001	(0.004)	0.003	(0.005)
	가처분소득 빈곤갭	-0.002	(0.002)	0.002	(0.003)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효과	-0.001	(0.001)	-0.003	(0.002) *
	근로·자녀장려금 빈곤 효과	0.000	(0.001)	0.003	(0.001) *
	근로·자녀장려금 빈곤갭 효과	0.000	(0.000) *	0.001	(0.000) ***
	기초보장급여 소득 효과	0.005	(0.004)	0.007	(0.006)
	기초보장급여 빈곤 효과	0.000	(0.001)	0.000	(0.001)
	기초보장급여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1)
	재난지원금 소득 효과	0.066	(0.003) ***	0.063	(0.003) ***
	재난지원금 빈곤 효과	-0.013	(0.001) ***	-0.012	(0.001) ***
	재난지원금 빈곤갭 효과	-0.007	(0.000) ***	-0.005	(0.000) ***
	순공적이전 소득 효과	0.039	(0.006) ***	0.032	(0.009) ***
	순공적이전 빈곤 효과	-0.012	(0.003) ***	-0.002	(0.004)
순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0.005	(0.002) **	-0.001	(0.003)	

주: 제2절의 식(1)을 추정한 결과이다. 괄호 안의 수치는 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 오차이다. 선형 추이 및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였다.

+ p<.10, * p<.05, ** p<.01, *** p<.001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또한, <표 3-5>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기초보장급여/재난지원금/순공적이전의 소득·빈곤·빈곤갭 효과를 추정하였다.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소득 효과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합산함에 따른 소득 로그값의 변화를,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빈곤·빈곤갭 효과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합산함에 따른 빈곤·빈곤갭의 변화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이전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고용·산재보험 급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2020년에 개인취업소득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2021년에 개인취업소득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균등화 가구시장소득을 살펴보면, 2020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체 인구 57만 원/년, 0.024 로그포인트, 18~64세 60만 원/년, 0.025 로그포인트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202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가 2020년에 평균적인 가구시장소득을 감소시켰으나, 이와 같은 시장소득 충격이 대체로 시간에 따라 2021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시장소득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은 대체로 2020년과 2021년에 증가하였다. 한편, 2020년에 시장소득 빈곤은 전체 인구 1.0%포인트, 18~64세 1.1%포인트 증가하였고, 2020년에 가처분소득 빈곤 및 빈곤갭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2021년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빈곤갭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2020년 시장소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장소득 빈곤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이를 대체로 상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소득·빈곤·빈곤갭 효과를 살펴보면, 총공적이전소득에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순공적이전이 2020년 및 2021년의 소득을 증가시켰고, 2020년의 빈곤 및 빈곤갭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이 순공적이전이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한 것은 주로 재난지원금 때문이었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 및 2021년 전체 인구 소득을 각각 0.102 로그포인트, 0.090 로그포인트 증가시켰고, 2020년 및 2021년 전체 인구 빈곤을 각각 1.4%포인트 감소시켰으며, 2020년 및 2021년 전체 인구 빈곤갭을 각각 1.0%포인트, 0.8%포인트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순공적이전의 효과보다 컸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이전소득이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그다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고려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의 분배 효과는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에 소폭 감소하였다.

5. 하위집단 분석

다음으로는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하위집단별로 살펴본다. 우선 <표 3-6>에서는 하위집단별 소득·빈곤 변화를 식(1)의 β 및 γ 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 표본을 활용하여 선형 추이 및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2020년 개인취업소득이 0.055 로그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여성의 개인취업소득이 일정하게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성과 달리 남성은 2020년 개인취업소득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소득을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시장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2020년 가구시장소득이 각각 0.023 로그포인트, 0.021 로그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가구시장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표 3-6〉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 변화

(단위: 빈곤갭-포인트, 소득-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2020년					2021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남성	0.016	-0.023	0.019	0.002	-0.003	0.083	-0.004	0.015	0.000	0.002
여성	-0.055	-0.021	0.022	0.002	-0.006	-0.016	-0.003	0.012	-0.001	0.000
18~34세	-0.061	-0.020	0.007	0.001	-0.003	0.132	-0.012	-0.001	0.001	0.002
35~49세	-0.048	-0.016	0.013	0.001	-0.002	-0.046	-0.009	0.017	0.002	-0.001
50~64세	-0.042	-0.041	0.020	0.007	-0.001	-0.069	-0.048	0.015	0.009	0.006
65세 이상	-0.029	-0.047	0.033	0.009	-0.008	-0.089	-0.018	-0.005	0.005	0.008
중졸 이하	-0.032	-0.060	0.050	0.010	-0.012	-0.097	-0.064	0.027	0.011	0.000
고졸	-0.005	-0.026	0.014	0.003	-0.003	0.092	-0.023	0.004	0.002	0.002
전문대졸	-0.153	-0.042	-0.020	0.003	-0.001	-0.146	-0.022	-0.016	0.002	0.005
4년제 대졸 이상	-0.017	0.004	0.019	-0.001	0.000	0.010	0.034	0.018	-0.002	0.003
가구주	-0.016	-0.028	0.029	0.004	-0.006	-0.030	-0.015	0.021	0.002	0.001
배우자	-0.045	-0.017	0.018	0.002	-0.003	-0.047	0.011	0.016	0.000	0.002
기타 가구원	-0.088	-0.033	0.013	0.004	-0.002	0.061	-0.029	0.009	0.004	0.003
1인 가구	-0.101	-0.078	0.058	0.008	-0.015	-0.188	-0.112	0.023	0.010	0.001
2인 가구	0.016	-0.017	0.027	0.008	0.000	-0.004	0.003	-0.003	0.005	0.013
3인 가구	-0.004	-0.052	0.008	0.006	-0.003	0.023	-0.044	-0.005	0.006	0.004
4인 이상 가구	-0.075	-0.020	0.003	0.000	-0.002	0.020	-0.013	0.012	0.002	-0.001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0.021	-0.002	0.029	-0.005	-0.014	0.022	0.005	0.028	-0.003	-0.009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0.014	0.026	0.044	-0.009	-0.015	0.062	0.043	0.044	-0.008	-0.011
초등학교 동거 여성	-0.146	-0.045	0.001	0.008	0.001	-0.177	-0.072	0.000	0.020	0.000
초등학교 동거 남성	0.005	-0.040	-0.003	0.003	0.000	-0.005	-0.049	-0.009	0.009	-0.002
한부모 가구	-0.140	0.065	0.109	0.000	-0.011	0.038	-0.004	0.062	0.016	0.012
상용근로자	-0.023	-0.018	0.008	0.001	-0.001	-0.019	-0.018	0.000	0.003	0.004
임시·일용근로자	-0.050	-0.007	0.039	0.008	-0.008	0.022	0.002	0.025	0.003	-0.00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113	-0.041	-0.021	0.001	0.005	-0.080	-0.054	-0.043	0.002	0.00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70	-0.050	-0.003	0.012	0.000	-0.042	-0.003	0.035	0.004	-0.001
무급가족종사자	-0.079	-0.041	0.005	0.012	0.003	-0.018	0.011	0.060	0.003	0.005
기타 종사자	-0.024	-0.049	-0.004	0.000	-0.006	0.009	-0.028	0.003	-0.003	-0.004
비취업자	-0.088	-0.054	0.025	0.005	-0.006	-0.240	-0.069	-0.010	0.010	0.007
가구주 관리자	-0.028	0.033	0.058	0.002	-0.005	-0.006	0.050	0.029	0.011	0.024
가구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5	-0.035	0.006	0.003	0.000	0.067	-0.046	-0.009	0.006	0.002
가구주 사무 종사자	-0.007	0.009	0.026	-0.004	-0.008	0.035	0.010	0.025	-0.004	-0.005
가구주 서비스 종사자	-0.055	-0.031	0.013	0.007	0.003	-0.075	-0.022	0.028	0.005	0.000
가구주 판매 종사자	-0.079	-0.011	0.010	-0.003	-0.004	0.167	0.063	0.066	-0.012	-0.009

〈표 3-6〉 계속

구분	2020년					2021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가구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20	0.009	0.039	0.013	-0.003	0.001	0.039	0.049	0.011	0.008
가구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31	-0.014	0.013	0.000	-0.003	0.027	-0.004	-0.001	-0.006	-0.001
가구주 장차기제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16	-0.050	-0.012	0.006	-0.002	-0.033	-0.048	-0.019	0.007	0.002
가구주 단순노무 종사자	-0.085	-0.007	0.025	0.004	-0.010	0.008	0.018	0.025	-0.004	-0.010
가구주 비취업자	-0.105	-0.117	0.025	0.016	-0.001	-0.327	-0.176	-0.049	0.032	0.028
개인취업소득 0원	0.000	-0.073	0.022	0.008	-0.005	0.000	-0.068	-0.016	0.008	0.009
개인취업소득 1분위	0.000	0.026	0.066	-0.006	-0.019	0.107	0.023	0.027	-0.008	-0.010
개인취업소득 2분위	-0.066	-0.034	0.013	0.013	-0.002	0.032	0.006	0.030	-0.001	-0.003
개인취업소득 3분위	-0.010	-0.021	0.002	0.005	0.004	-0.008	-0.007	0.000	0.004	0.006
개인취업소득 4분위	0.013	-0.011	0.013	-0.001	-0.001	0.001	-0.018	0.000	-0.001	0.000
개인취업소득 5분위	0.005	0.002	0.020	-0.001	0.000	0.021	0.033	0.048	-0.001	0.001
가구시장소득 1분위	0.040	-0.034	0.072	0.007	-0.022	0.012	-0.028	-0.008	-0.004	0.004
가구시장소득 2분위	-0.060	-0.013	0.033	0.001	-0.003	0.000	0.013	0.038	0.000	-0.004
가구시장소득 3분위	-0.028	-0.012	0.009	0.000	0.001	0.026	0.004	0.018	0.000	0.001
가구시장소득 4분위	0.053	-0.017	0.011	0.000	-0.001	0.164	0.008	0.033	0.000	0.000
가구시장소득 5분위	-0.085	-0.021	-0.005	0.000	0.001	-0.058	0.014	0.033	0.000	0.000

주: 제2절의 식(1) β 및 γ 를 추정한 결과이다. 가구ID 내 상관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선형 추이 및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였다. $p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18세 이상을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4세 중년의 시장소득 감소 및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고,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역시 2020년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2021년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교육수준 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의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시장소득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고, 대체로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가구원 지위별로 살펴보면, 가구주보다 배우자의, 배우자보다 기타 가구원의 2020년 개인취업소득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가구 내 이차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이차소득자의 소득 감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20년과 2021년에 초등학생과 동거하는 여성의 가구시장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빈곤갭이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생과 동거하는 여성의 시장소득·빈곤 충격은 2020년보다 2021년에 오히려 강해졌다. 이는 아동 양육 여성에 대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이 2021년까지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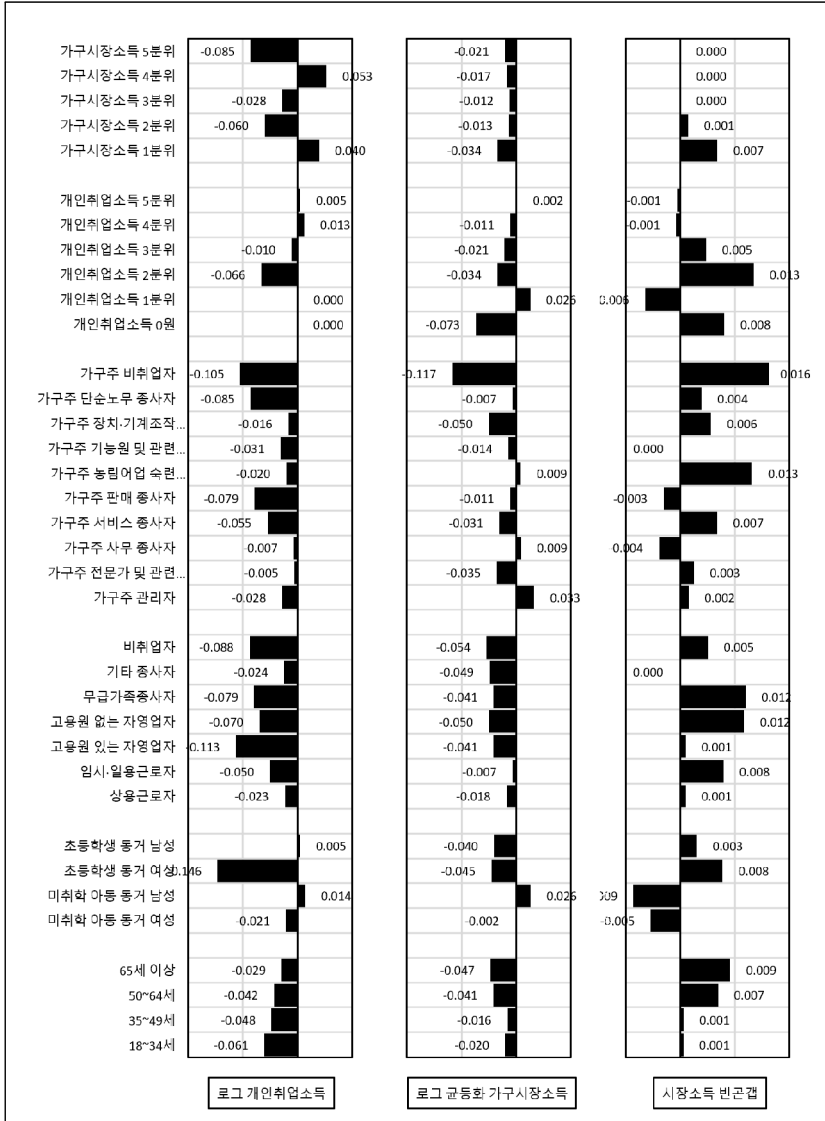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2020년 개인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감소,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충격이 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개인취업소득 역시 2020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비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시장소득 감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⁶⁾ 가구주가 비취업자인 집단의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시장소득 감소,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 역시 2021년까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개인취업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개인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가구시장소득이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감소하였고, 개인취업소득 2~3분위의 2020년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시장소득 감소와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개인취업소득 3분위의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는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가구시장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5분위의 2020년 개인취업소득 감소가 가장 컸고, 2~5분위의 2020년 가구시장소득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시장소득 5분위의 2020년 개인취업소득 감소에는 아동 양육 여성에 대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6)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은 t 년, 경제활동상태는 $t+1$ 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비취업자에게 소득의 개인취업소득이 관찰되었다.

[그림 3-11]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전후 2020년 소득·빈곤 변화

(단위: 빈곤갭-포인트, 소득-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주: 제2절의 식(1) β 를 추정한 결과이다. 선행 추이 및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였다. 18세 이상을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3-7〉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 변화의 집단 간 차이

(단위: 빈곤갭-포인트, 소득-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2020년					2021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남성	0.041	0.001	-0.001	0.000	0.002	0.014	0.004	0.008	0.001	0.002
여성	-0.041	-0.001	0.001	0.000	-0.002	-0.014	-0.004	-0.008	-0.001	-0.002
18~34세	0.024	0.021	-0.015	-0.006	0.000	0.332	0.033	-0.012	-0.010	-0.003
35~49세	-0.027	0.014	-0.008	-0.003	0.003	-0.087	0.019	0.016	-0.001	-0.005
50~64세	-0.003	-0.030	-0.003	0.008	0.005	-0.091	-0.068	-0.003	0.014	0.007
65세 이상	-0.006	0.002	0.029	0.000	-0.009	-0.150	0.032	-0.002	-0.007	0.002
중졸 이하	-0.038	-0.035	0.045	0.006	-0.012	-0.193	-0.059	0.029	0.008	-0.004
고졸	0.036	-0.007	-0.013	0.002	0.003	0.111	-0.033	-0.019	0.005	0.003
전문대졸	-0.107	-0.015	-0.045	-0.001	0.004	-0.093	0.006	-0.029	-0.003	0.002
4년제 대졸 이상	0.048	0.045	0.000	-0.007	0.005	0.083	0.080	0.012	-0.010	-0.001
가구주	0.062	0.002	0.016	-0.001	-0.004	-0.003	0.011	0.016	-0.004	-0.004
배우자	0.002	0.003	-0.012	0.000	0.003	-0.048	0.013	-0.011	0.001	0.002
기타 가구원	-0.085	-0.008	-0.010	0.001	0.003	0.059	-0.034	-0.012	0.006	0.003
1인 가구	0.003	0.022	0.066	-0.013	-0.023	-0.050	0.056	0.062	-0.029	-0.021
2인 가구	0.084	0.015	0.015	0.007	0.005	0.027	0.024	-0.011	0.004	0.016
3인 가구	0.025	-0.040	-0.018	0.005	0.002	0.006	-0.056	-0.028	0.008	0.004
4인 이상 가구	-0.092	0.009	-0.026	-0.004	0.004	-0.011	-0.005	0.001	0.003	-0.004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0.035	0.021	0.007	-0.008	-0.010	0.084	0.004	0.009	-0.003	-0.011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0.075	0.046	0.020	-0.010	-0.011	0.145	0.039	0.021	-0.007	-0.011
초등학교 동거 여성	-0.121	-0.035	-0.026	0.008	0.006	-0.176	-0.094	-0.025	0.026	0.001
초등학교 동거 남성	0.040	-0.019	-0.024	0.001	0.005	-0.037	-0.045	-0.022	0.010	-0.003
한부모 가구	-0.115	0.140	0.110	-0.014	-0.011	-0.011	0.040	0.065	0.008	0.007
상용근로자	-0.006	0.020	-0.016	-0.004	0.004	0.023	0.027	-0.004	-0.005	0.000
임시·일용근로자	-0.013	0.003	0.021	0.009	-0.003	0.022	-0.015	0.011	0.008	-0.00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56	-0.002	-0.033	-0.005	0.007	-0.017	-0.012	-0.036	-0.006	-0.00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62	-0.041	-0.029	0.013	0.006	-0.114	-0.021	0.019	0.009	-0.001
무급가족종사자	-0.002	-0.015	-0.015	0.010	0.008	0.031	0.016	0.045	0.003	0.004
기타 종사자	-0.014	0.014	-0.004	-0.011	-0.007	-0.040	0.021	0.011	-0.012	-0.010
비취업자	-0.041	-0.017	0.017	-0.002	-0.005	-0.227	-0.049	-0.024	0.005	0.005
가구주 관리자	0.035	0.055	0.034	-0.001	0.000	0.012	0.051	0.012	0.011	0.021
가구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22	0.000	-0.010	-0.003	0.003	0.106	-0.010	-0.009	-0.002	-0.004
가구주 사무 종사자	0.035	0.048	0.009	-0.010	-0.005	0.069	0.045	0.018	-0.012	-0.011
가구주 서비스 종사자	-0.045	-0.007	-0.008	0.005	0.007	-0.133	-0.024	0.013	0.007	0.000
가구주 판매 종사자	-0.051	0.016	-0.012	-0.006	0.001	0.171	0.074	0.056	-0.013	-0.011

〈표 3-7〉 계속

구분	2020년					2021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가구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21	0.015	0.014	0.014	0.003	-0.090	0.003	0.026	0.016	0.011
가구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42	-0.016	-0.018	0.003	0.004	-0.024	-0.015	-0.023	-0.002	0.000
가구주 장차기제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20	-0.050	-0.045	0.008	0.004	-0.105	-0.081	-0.050	0.015	0.004
가구주 단순노무 종사자	-0.060	0.018	0.005	0.002	-0.006	-0.018	0.017	0.006	-0.002	-0.011
가구주 비취업자	-0.062	-0.100	0.009	0.013	0.003	-0.355	-0.177	-0.065	0.031	0.029
개인취업소득 0원	0.015	-0.030	0.010	0.000	-0.003	-0.052	-0.060	-0.038	0.006	0.009
개인취업소득 1분위	-0.070	0.035	0.041	-0.007	-0.014	-0.098	-0.010	-0.006	-0.004	-0.007
개인취업소득 2분위	-0.089	-0.025	-0.012	0.016	0.004	-0.083	-0.028	0.004	0.009	0.001
개인취업소득 3분위	-0.008	-0.001	-0.030	0.001	0.008	-0.066	-0.014	-0.025	0.007	0.006
개인취업소득 4분위	-0.012	-0.006	-0.019	0.001	0.006	-0.019	0.008	-0.001	-0.003	-0.004
개인취업소득 5분위	0.009	0.034	0.001	-0.005	0.004	-0.016	0.084	0.063	-0.009	-0.006
가구시장소득 1분위	0.071	-0.006	0.053	0.001	-0.021	-0.037	-0.024	-0.054	-0.012	0.008
가구시장소득 2분위	-0.075	-0.029	-0.007	0.008	0.006	-0.074	-0.047	-0.007	0.015	-0.001
가구시장소득 3분위	-0.011	0.010	-0.018	-0.002	0.006	0.002	0.006	0.000	0.000	-0.001
가구시장소득 4분위	0.092	0.001	-0.013	-0.001	0.005	0.190	0.016	0.025	0.001	-0.002
가구시장소득 5분위	-0.075	0.027	-0.021	-0.008	0.005	-0.069	0.055	0.037	-0.007	-0.006

주: 제2절의 식(2) δ 및 ζ 를 추정한 결과이다. 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선형 추이 및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였다. $p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18세 이상을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3-11]에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컸던 2020년의 소득·빈곤 변화를 중심으로 〈표 3-6〉의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정리하였다.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시장소득 변화, 시장소득 빈곤갭 변화를 종합할 때, 대체로 초등학생 동거 여성, 자영업자, 비취업자, 개인취업소득 2분위에 대한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에서는 개별 하위집단에 대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을 통제할 때, 대체로 50~64세 중년, 초등학생 동거 여성,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비취업자, 개인취업소득 2분위, 가구시장

소득 2분위에 대한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50~64세 중년, 초등학생 동거 여성, 가구주 비취업자, 가구시장소득 2분위의 시장소득 빈곤갭 감소는 2021년에도 나머지 집단보다 컸다.

다음으로는 하위집단별로 코로나19 전후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재난지원금, 순공적이전의 빈곤갭 효과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분량의 제약으로 공적이전의 소득·빈곤 효과를 생략하였고, 서술의 편의를 위해 공적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를 ‘공적이전 효과’로 부른다. 우선 <표 3-8>에서는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여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변화를 추정하였고, [그림 3-12]에는 2020년의 주요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정리하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19년에 확대하였고 코로나19 이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위집단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효과가 2020~2021년에 감소하였다.

기초보장급여는 2020년 여성, 중졸 이하, 3인 가구, 비취업자, 가구주 서비스 종사자, 개인취업소득 0원 집단에 대한 효과가 증가하였고, 2021년 65세 이상, 중졸 이하, 초등학생 동거 여성,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취업자, 가구주 비취업자, 개인취업소득 0원 집단에 대한 효과가 증가하였다. 즉, <표 3-5>의 전체 인구 분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기초보장급여 효과의 확대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표 3-8>의 하위집단 분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장소득 빈곤갭이 감소한 집단에 대한 기초보장급여 효과의 확대가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 완화에 일정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거의 대부분의 하위집단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65세 이상,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취업자, 개인취업소득 0원 및 1~2분위, 가구시장소득 1분위 등과 같이 시장소득 빈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에 대한 효과가 컸다.

106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3-8〉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

(단위: 포인트)

구분	2020년				2021년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남성	0.000	0.000	-0.010	-0.005	0.002	0.000	-0.008	0.002
여성	0.001	-0.001	-0.012	-0.008	0.002	-0.001	-0.009	0.001
18~34세	0.000	0.001	-0.006	-0.004	0.001	0.002	-0.004	0.001
35~49세	0.001	0.000	-0.007	-0.003	0.002	0.000	-0.005	-0.003
50~64세	0.000	-0.001	-0.009	-0.008	0.001	-0.001	-0.007	-0.003
65세 이상	0.001	-0.001	-0.025	-0.017	0.004	-0.003	-0.018	0.003
중졸 이하	0.001	-0.003	-0.023	-0.022	0.004	-0.005	-0.017	-0.010
고졸	0.001	0.000	-0.010	-0.006	0.002	0.001	-0.008	0.001
전문대졸	0.001	0.000	-0.006	-0.003	0.002	0.000	-0.005	0.002
4년제 대졸 이상	0.000	0.000	-0.005	0.001	0.001	0.000	-0.004	0.005
가구주	0.001	-0.001	-0.014	-0.010	0.002	-0.001	-0.010	-0.001
배우자	0.000	0.000	-0.010	-0.005	0.001	0.000	-0.008	0.001
기타 가구원	0.001	-0.001	-0.007	-0.006	0.002	0.000	-0.006	-0.001
1인 가구	0.001	0.000	-0.025	-0.024	0.003	-0.002	-0.015	-0.009
2인 가구	0.001	-0.001	-0.018	-0.009	0.004	-0.001	-0.014	0.008
3인 가구	0.000	-0.002	-0.007	-0.008	0.002	-0.001	-0.006	-0.002
4인 이상 가구	0.000	0.000	-0.005	-0.002	0.001	0.000	-0.004	-0.004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0.001	0.001	-0.008	-0.009	0.002	0.002	-0.005	-0.006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0.001	0.003	-0.007	-0.007	0.002	0.004	-0.005	-0.003
초등학생 동거 여성	0.000	-0.001	-0.007	-0.007	0.000	-0.003	-0.006	-0.019
초등학생 동거 남성	0.000	0.002	-0.006	-0.003	0.000	0.003	-0.005	-0.011
한부모 가구	0.002	0.007	-0.024	-0.011	0.005	0.005	-0.020	-0.005
상용근로자	0.000	0.000	-0.003	-0.002	0.000	0.000	-0.002	0.001
임시·일용근로자	0.001	-0.001	-0.014	-0.016	0.004	0.000	-0.010	-0.00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00	0.000	-0.004	0.004	0.000	-0.001	-0.006	0.0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00	0.000	-0.015	-0.012	0.002	0.000	-0.014	-0.005
무급가족종사자	-0.001	0.000	-0.016	-0.009	0.001	0.000	-0.014	0.002
기타 종사자	0.001	0.000	-0.007	-0.006	0.002	0.000	-0.004	-0.001
비취업자	0.001	-0.002	-0.016	-0.011	0.002	-0.003	-0.012	-0.003
가구주 관리자	0.000	0.001	-0.001	-0.006	0.000	0.001	-0.002	0.013
가구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0	0.000	-0.004	-0.003	0.000	0.001	-0.003	-0.003
가구주 사무 종사자	0.000	0.000	-0.002	-0.004	0.000	0.000	-0.002	-0.001
가구주 서비스 종사자	0.000	-0.004	-0.014	-0.004	0.003	-0.003	-0.015	-0.004
가구주 판매 종사자	0.001	0.000	-0.008	-0.001	0.003	-0.001	-0.007	0.003

〈표 3-8〉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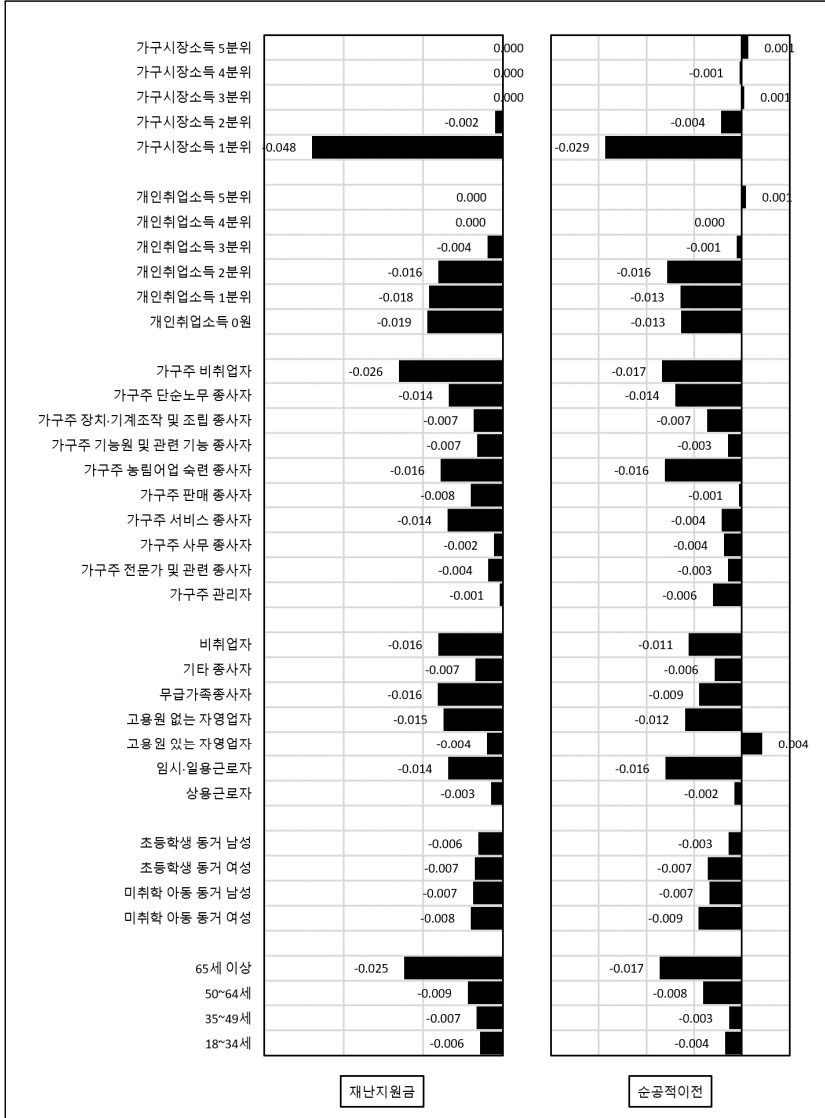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가구주 농업어업 숙련 종사자	0.000	0.001	-0.016	-0.016	0.001	0.000	-0.012	-0.003
가구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1	0.000	-0.007	-0.003	0.001	0.000	-0.004	0.005
가구주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00	0.000	-0.007	-0.007	0.001	0.000	-0.006	-0.004
가구주 단순노무 종사자	0.001	0.000	-0.014	-0.014	0.004	0.000	-0.010	-0.007
가구주 비취업자	0.001	-0.003	-0.026	-0.017	0.004	-0.007	-0.018	-0.005
개인취업소득 0원	0.001	-0.003	-0.019	-0.013	0.002	-0.004	-0.015	0.000
개인취업소득 1분위	0.001	0.002	-0.018	-0.013	0.004	0.002	-0.015	-0.001
개인취업소득 2분위	0.001	-0.001	-0.016	-0.016	0.004	0.000	-0.012	-0.002
개인취업소득 3분위	0.000	0.000	-0.004	-0.001	0.001	0.000	-0.003	0.003
개인취업소득 4분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개인취업소득 5분위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가구시장소득 1분위	0.004	-0.001	-0.048	-0.029	0.010	-0.001	-0.037	0.008
가구시장소득 2분위	-0.001	0.000	-0.002	-0.004	0.000	0.000	-0.001	-0.004
가구시장소득 3분위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가구시장소득 4분위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가구시장소득 5분위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주: 제2절의 식(1) β 및 γ 를 추정한 결과이다. 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선형 추이 및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였다. $p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18세 이상을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3-9〉에서는 개별 하위집단에 대한 공적이전 효과 변화가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을 통제할 때, 대체로 2020년 및 2021년 중졸 이하, 2021년 초·중·고등학교 동거 여성, 2021년 비취업자, 2020년 및 2021년 개인취업소득 0원 집단에 대한 기초보장급여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재난지원금 효과의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65세 이상, 중졸 이하, 1~2인 가구, 한부모 가구,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취업자, 가구주 서비스 종사자, 가구주 비취업자, 개인취업소득 0원 및 1~2분위, 가구시장소득 1분위 등의 집단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3-12]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전후 2020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

(단위: 포인트)



주: 제2절의 식(1) β 를 추정한 결과이다. 선형 추이 및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였다. 18세 이상을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3-9〉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의 집단 간 차이

(단위: 포인트)

구분	2020년				2021년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남성	0.000	0.001	0.002	0.002	0.000	0.001	0.001	0.001
여성	0.000	-0.001	-0.002	-0.002	0.000	-0.001	-0.001	-0.001
18~34세	0.000	0.002	0.007	0.006	0.000	0.004	0.005	0.006
35~49세	0.001	0.000	0.006	0.006	0.000	0.000	0.005	-0.003
50~64세	-0.001	-0.001	0.003	-0.003	-0.001	-0.001	0.002	-0.007
65세 이상	0.001	-0.001	-0.017	-0.009	0.002	-0.003	-0.013	0.008
중졸 이하	0.001	-0.003	-0.016	-0.018	0.002	-0.006	-0.011	-0.012
고졸	0.000	0.001	0.002	0.001	0.000	0.002	0.000	-0.002
전문대졸	0.000	0.000	0.005	0.005	0.000	0.002	0.004	0.004
4년제 대졸 이상	-0.001	0.001	0.009	0.012	-0.002	0.002	0.006	0.009
가구주	0.000	0.000	-0.005	-0.004	0.001	0.000	-0.003	0.000
배우자	0.000	0.000	0.002	0.003	-0.001	0.000	0.001	0.002
기타 가구원	0.000	0.000	0.005	0.002	0.000	0.000	0.003	-0.002
1인 가구	0.001	0.003	-0.015	-0.010	0.002	0.003	-0.007	0.008
2인 가구	0.001	-0.002	-0.010	-0.002	0.002	-0.002	-0.007	0.012
3인 가구	0.000	-0.002	0.005	-0.002	0.000	-0.001	0.003	-0.004
4인 이상 가구	0.000	0.002	0.010	0.008	-0.002	0.001	0.007	-0.008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0.001	0.002	0.003	-0.002	0.000	0.002	0.003	-0.008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0.001	0.004	0.004	0.000	0.000	0.005	0.003	-0.004
초등학교 동거 여성	-0.001	-0.001	0.004	-0.002	-0.002	-0.004	0.002	-0.025
초등학교 동거 남성	-0.001	0.003	0.005	0.004	-0.001	0.004	0.003	-0.013
한부모 가구	0.002	0.011	-0.013	0.002	0.004	0.008	-0.011	-0.001
상용근로자	0.000	0.001	0.012	0.009	-0.002	0.002	0.009	0.005
임시·일용근로자	0.001	-0.001	-0.003	-0.012	0.003	-0.001	-0.002	-0.01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00	0.001	0.007	0.012	-0.002	0.000	0.002	0.0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01	0.001	-0.004	-0.007	0.000	0.000	-0.006	-0.010
무급가족종사자	-0.001	0.000	-0.005	-0.002	-0.001	0.001	-0.006	0.001
기타 종사자	0.000	0.001	0.004	0.004	0.000	0.001	0.005	0.001
비취업자	0.001	-0.001	-0.009	-0.003	0.001	-0.003	-0.006	0.000
가구주 관리자	-0.001	0.001	0.010	0.001	-0.002	0.001	0.007	0.011
가구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1	0.001	0.009	0.006	-0.002	0.002	0.007	-0.002
가구주 사무 종사자	0.000	0.000	0.010	0.005	-0.002	0.002	0.007	0.000
가구주 서비스 종사자	0.000	-0.003	-0.003	0.002	0.001	-0.002	-0.007	-0.007
가구주 판매 종사자	0.001	0.001	0.003	0.007	0.001	0.000	0.002	0.002

〈표 3-9〉 계속

구분	2020년				2021년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가구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01	0.000	-0.005	-0.011	-0.001	-0.001	-0.004	-0.005
가구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0	0.000	0.005	0.001	0.000	0.001	0.004	0.002
가구주 장차기제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00	0.000	0.004	-0.004	-0.001	0.000	0.003	-0.011
가구주 단순노무 종사자	0.000	0.000	-0.003	-0.008	0.002	0.001	-0.002	-0.010
가구주 비취업자	0.001	-0.003	-0.019	-0.010	0.002	-0.008	-0.012	-0.003
개인취업소득 0원	0.000	-0.002	-0.011	-0.003	0.000	-0.004	-0.009	0.003
개인취업소득 1분위	0.001	0.001	-0.009	-0.007	0.002	0.002	-0.008	-0.003
개인취업소득 2분위	0.001	0.000	-0.006	-0.012	0.003	0.000	-0.004	-0.008
개인취업소득 3분위	-0.001	0.001	0.008	0.007	-0.001	0.001	0.007	-0.001
개인취업소득 4분위	-0.001	0.000	0.012	0.005	-0.002	0.001	0.009	-0.001
개인취업소득 5분위	-0.001	0.001	0.013	0.009	-0.002	0.002	0.010	0.003
가구시장소득 1분위	0.004	-0.002	-0.048	-0.022	0.009	-0.003	-0.037	0.020
가구시장소득 2분위	-0.002	0.000	0.011	-0.003	-0.002	0.000	0.009	-0.016
가구시장소득 3분위	-0.001	0.000	0.013	0.009	-0.002	0.001	0.010	-0.001
가구시장소득 4분위	-0.001	0.001	0.014	0.006	-0.002	0.001	0.010	-0.003
가구시장소득 5분위	-0.001	0.001	0.014	0.013	-0.002	0.001	0.010	0.001

주: 제2절의 식(2) δ 및 ζ 를 추정한 결과이다. 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선형 추이 및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였다. $p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18세 이상을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절 2019~2023년 분기 소득분배 변화

제4절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9~2023년 분기 소득분배 변화를 살펴본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가구 내에서 합산·균등화한 가구소득을 개인단위로 분석한다. 모든 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실질화하였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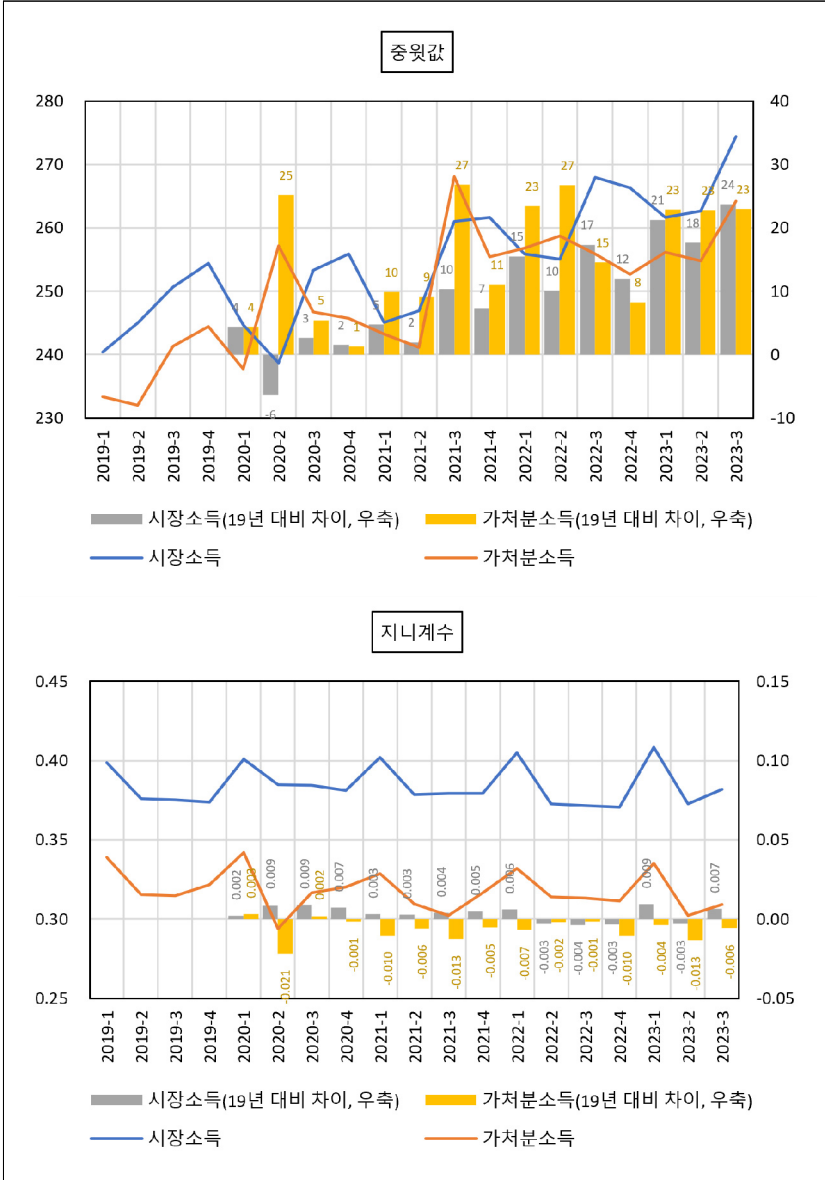
환급금을 합산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하여 정의한다. 2020년 2분기, 2021년 3분기 등과 같이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시점의 중위 소득이 급증하므로, 분기별 데이터가 아니라 연도별 4개 분기 결합 데이터로 산출한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로 빈곤선을 설정하였다. 2023년은 4분기 자료가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1~3분기 결합 데이터로 빈곤선을 산출하였다.⁷⁾ 분기별 표본 사례 수는 9,774~14,968명이었다(통계청, 각 연도e, 2019년 이후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3]에서는 2019~2023년 분기별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위값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직후 2020년 2분기에 시장소득이 급감하였으나 2020년 3분기부터 2019년 동기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평균적인 시장소득 충격이 2020년 2분기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2020년 이후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은 2019년 동기 수준을 하회한 적이 없었다. 다음으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20년 2~3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2019년 동기 대비 0.009포인트 증가하였고, 2022년 2분기에 이르러서야 2019년 동기 수준을 회복하였다. 시장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역시 2020년 2분기에 급증한 후 2022년 3분기에 2019년 동기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소득 분배 악화가 대체로 2021년 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은 대체로 2019년 동기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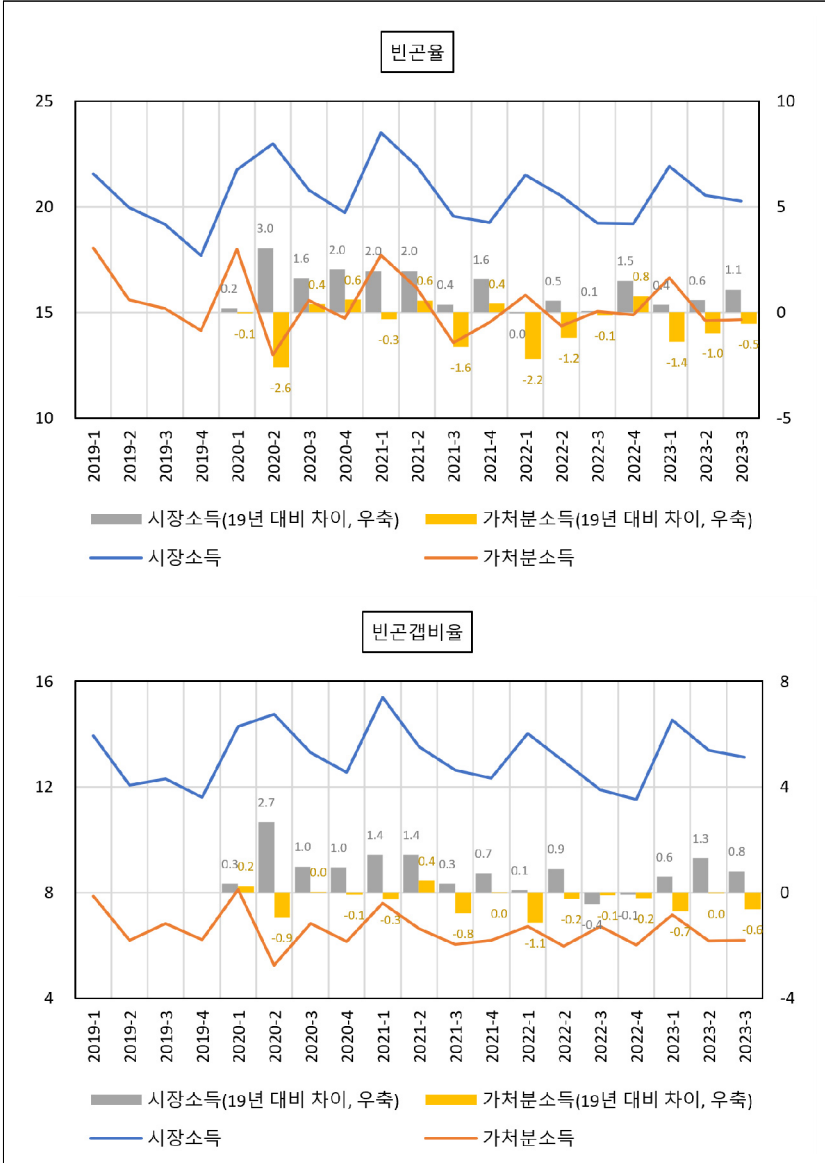
7) 분기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시간에 따른 증가율에 뚜렷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통계청, 각 연도e, 2019년 이후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23년 빈곤선을 1~3분기 데이터로부터 산출한 선택이 분석 결과를 크게 왜곡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선은 2019년 119만 원/월, 2020년 123만 원/월, 2021년 126만 원/월, 2022년 128만 원/월, 2023년 129만 원/월로 산출되었다(2023년 3분기 실질, 통계청, 각 연도e, 2019년 이후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3] 전체 인구 분기 소득분배 추이

(단위: 증윗값-만 원/월, 2023년 3분기 실질, 지니계수-포인트, 빈곤율/빈곤갭비율-%,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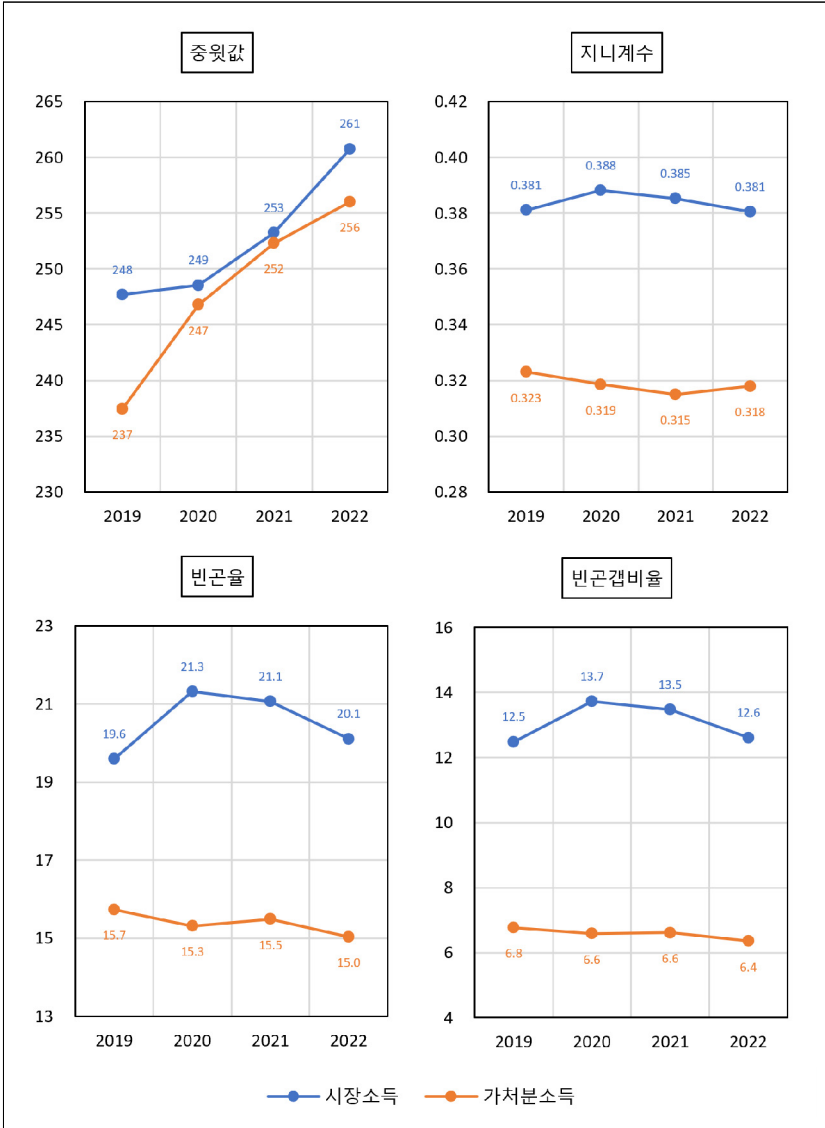
[그림 3-13] 계속



주: 균등화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이다. 막대는 2019년 동기 대비 차이를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e). 2019년 이후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4] 전체 인구 연도별 4개 분기 결합 소득분배 추이

(단위: 중위값-만 원/월, 2023년 3분기 실질, 지니계수-포인트, 빈곤율/빈곤갭비율-%)



주: 균등화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이다. 연도별 4개 분기 결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19년 이후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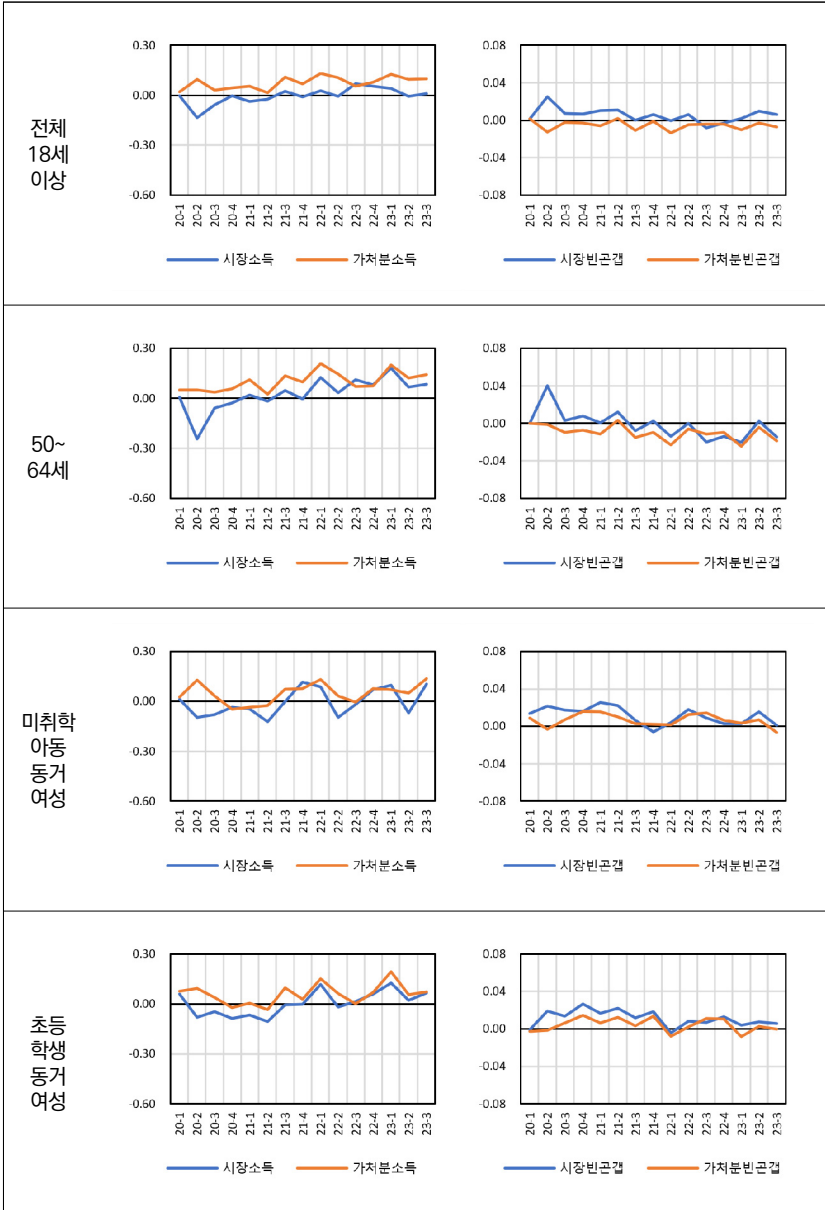
[그림 3-3]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분석한 연간 소득분배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그림 3-14]에는 연도별 4개 분기 결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계동향조사로 연간 소득분배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증릿값을 살펴보면, 시장소득의 2019~2020년 정체와 2020~2021년 증가세 회복 패턴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서 2020년의 시장소득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2020년에 시장소득 빈곤율이 소폭 증가하였을 뿐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빈곤갭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가계동향조사의 연도별 4개 분기 결합 소득 데이터는 가구 내 연간 소득 변동을 평탄화하지 않았으므로, 코로나19 이후 연간 소득 변동이 심했던 2020년의 불평등 및 빈곤 수준을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높게 포착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대체로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분석한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3-14]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시장소득 분배가 2022년에 2019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3-15]에는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된 주요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로그값과 빈곤갭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⁸⁾ 우선 전체 18세 이상 집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2019년에 비해 2020~2021년 시장소득 로그값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빈곤갭이 증가하였으나,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에 대한 충격은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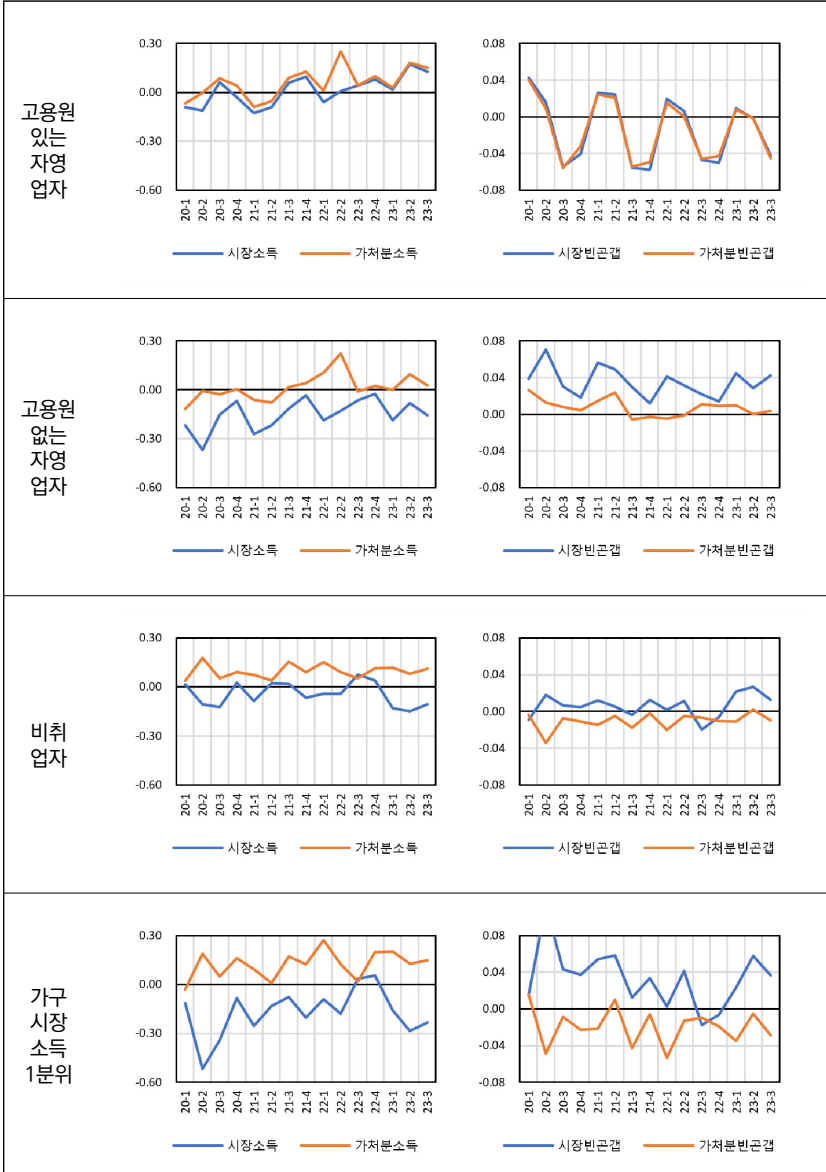
8) 전체 18세 이상, 50~64세,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초등학교 동거 여성,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취업자, 가구시장소득 1분위의 분기별 표본 사례 수는 각각 8,213~12,669명, 2,528~3,841명, 441~652명, 455~793명, 126~308명, 1,090~1,588명, 2,936~4,719명, 2,433~3,673명이었다(통계청, 각 연도e, 2019년 이후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5] 하위집단별 로그 소득 및 빈곤갭의 2019년 동기 대비 차이

(단위: 소득-로그 만 원/월, 2023년 3분기 실질, 빈곤갭-포인트)



[그림 3-15] 계속



주: 균등화 가구소득의 개인단위 분포이다. 18세 이상을 분석하였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e). 2019년 이후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하위집단별로 살펴보면, 50~64세 중년의 2020년 2분기 시장소득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되었다.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과 동거하는 여성은 코로나19 이후 2021년 중후반까지 시장소득 감소 및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관찰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시장소득 감소는 대체로 2021년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23년 3분기까지 2019년 수준의 시장소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비취업자의 시장소득 충격 역시 대체로 2022년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시장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분위의 시장소득 감소 및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매우 컸고, 2022년 중반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제5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로 코로나19 이전 2016~2019년 소득분배 추이를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로 2019~2023년 분기 소득분배 추이를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단순하게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 시장소득 증릿값 증가세가 둔화하였지만, 코로나19가 시장소득 분배를 악화하였다는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3] 참조).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통제하고 분석하면, 2016~2019년에 관찰된 시장소득 불평등 및 빈곤 감소 추이가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참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

라면 2016~2019년 시장소득 증가 추이 및 시장소득 분배 개선 추이가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분배가 악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5>에서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여 추정된 결과,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 시장소득이 57만 원/년, 0.024 로그포인트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빈곤이 1.0%포인트 증가하였다. 단,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평균적인 시장소득 충격은 시간에 따라 202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표 3-5> 참조).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2020년에 시장소득 수준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분배가 악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수준 및 분배는 거의 악화하지 않았다. 2016~2019년에 관찰된 가처분소득 증가 추이 및 가처분소득 분배 개선 추이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까지 지속되었다([그림 3-3], [그림 3-4] 참조).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여 추정하면, 코로나19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가처분소득이 각각 38만 원/년, 83만 원/년 증가하였고, 2020년에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0.4%포인트 감소하였다(<표 3-5> 참조).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이 가처분소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과 2021년의 소득을 0.090~0.102 로그포인트 증가시켰고, 빈곤과 빈곤율을 각각 1.4%포인트, 0.8~1.0%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3-5> 참조). 재난지원금은 대체로 소득 수준별로 고르게 지원되었으나, 균등화지수를 엄격하게 반영하지 않은 설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가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간소득계층의 균등화 소득 절대값을 더 크게 증가시켰다([그림 3-9] 참조).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이후 2020~2021년에 기초보장급여가 극빈층을, 근로·자녀장려금 및 고용·산재보험 급여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그림 3-9) 참조). 단, 근로·자녀장려금은 2019년의 확대를 고려하면 2020~2021년에 소폭 축소하였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코로나19의 빈곤 충격 완화에 일정하게 기여하였지만, 대체로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계 금융복지조사로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급여가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 급여의 분배 효과는 대체로 근로·자녀장려금과 기초보장 급여보다 훨씬 작았고,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준이었다(그림 3-8) 참조).

다음으로, 하위집단별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이 개인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여 추정하면, 대체로 50~64세 중년, 초등학교 동거 여성,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주 비취업자, 개인취업소득 2분위, 가구시장소득 2분위에 대한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고(표 3-7) 참조), 특히 50~64세 중년, 초등학교 동거 여성, 비취업자의 시장소득 빈곤갭 감소가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표 3-6) 참조). 초등학교 동거 여성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가구 내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하락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취업소득 2분위, 비취업자, 가구시장소득 2분위 등과

같이 소득 수준이나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하위집단별로 재난지원금의 빈곤갭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취업자, 개인취업소득 2분위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집단에게 재난지원금의 빈곤갭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중졸 이하, 1~2인 가구, 한부모 가구, 임시·일용근로자, 가구시장소득 1분위 집단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하게 빈곤위험 수준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의 빈곤갭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표 3-8〉, 〈표 3-9〉 참조). 즉, 대체로 보편적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는 역할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하게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2019~2023년 분기 소득분배를 분석한 결과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소득 감소 및 시장소득 분배 악화는 주로 2020년에 집중되었고, 대체로 2022년까지 사라졌다(〈그림 3-14〉 참조). 소득 준거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평균적인 소득 충격이 2020년에 가장 컸고 시간이 지나 2021~2022년에 사라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의 하위집단 분석 결과에서 50~64세 중년,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동거 여성, 자영업자, 비취업자, 가구시장소득 1분위 등의 집단에 대한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그림 3-15〉 참조).



제4장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의 종단적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분배 추이

제4절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 변화

제5절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소득·빈곤 효과 변화

제6절 소결

제 4 장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의 종단적 변화

제1절 분석 개요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기본적으로 시계열 추이(trend)를 파악하기 위한 반복횡단 데이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집단 수준이 아닌 개인 수준의 시간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앞선 분석으로 코로나19 전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던 집단의 종사상지위가 2020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 자영업자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휴·폐업 및 이직 등으로 종사상지위 변화를 경험한 사례까지 포함하여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자영업자였던 집단의 소득이 코로나19 이후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데이터 축적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의 시간에

다른 변화를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소수의 사례로, 김수현, 2022; 김이레 외, 2023; 양은모, 배호중, 2023; 이태, 안준홍, 2023; 황선웅, 2022b; Clark, D'Ambrosio, & Lepinteur, 2021; Kim, Koh, & Zhang, 2020). 특히, 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개인 수준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예외적인 사례로, 황선웅(2022b)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16~2020년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정규직이었던 집단보다 비정규직이었던 집단의 2020년 비자발적 실직이 크게 증가하였고, 비자발적 실직 이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호 수준이 낮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양은모, 배호중(2023)은 7~8차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이전에 임금근로가구였던 집단에 비해 자영업가구였던 집단의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하였고 부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코로나19 이전 2019년의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제도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얼마나 완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11~17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7차와 17차에 표본을 추가하였는데, 이 장의 분석에서는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17차 추가표본을 제외하고 원표본과 7차 추가표본

으로 구성된 통합표본을 활용한다. 17차 조사는 2022년에 실시되었고, 2021년의 연간 소득과 2021년 말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사 연도가 아닌 소득 및 경제활동상태 기준 연도로 시점을 표기한다. 16차와 17차 조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측정된 개인 특성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성하고, 하위집단별 2019~2020년 및 2019~2021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 실태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2019~2020년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충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2019~2021년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의 충격이 2021년까지 지속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19년에 18세 이상이고 2019년과 2020년에 모두 관찰된 개인(19→20 표본)과 2019년에 18세 이상이고 2019년과 2021년에 모두 관찰된 개인(19→21 표본)을 표본으로 설정한다.

이 장의 분석에서는 2019년 이후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드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자영업자의 일부가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 비취업자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이 관찰되더라도, 코로나19와 무관하게 2018년 이전에도 t 시점 자영업자의 일부가 $t+1$ 시점에 비취업자로 전환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t \rightarrow t+1$ 변화와 코로나19 전후 $t \rightarrow t+1$ 변화를 비교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황선웅, 2022b, p.15).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에는 t 시점 자영업자의 $a\%$ 가 $t+1$ 시점에 비취업자로 전환하였고 코로나19 전후에는 2019년 자영업자의 $b\%$ 가 2020년에 비취업자로 전환하였다면, 코로나19에 따라 자영업자의 $t \rightarrow t+1$ 비취업 전환율이 $(b-a)\%$ 포인트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2019년 소득계층별 19→20 소득 변화를 분석할 때도 코로나19 이전 t 시점 소

소득계층별 $t \rightarrow t+1$ 소득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소득의 확률적 변동 때문에 코로나19의 충격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시간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코로나19 전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 19→20 변화를 분석할 때는 15→16, 16→17, 17→18, 18→19 변화와 비교하고, 19→21 변화를 분석할 때는 15→17, 16→18, 17→19 변화와 비교한다. 따라서 이 장의 분석단위는 t 와 $t+1$ 또는 t 와 $t+2$ 의 2개 시점을 조합하여 1개의 인년(person-year)으로 정의한다. 표본 사례 수는 <표 4-1>에 보고하였다. 모집단의 변화를 적절하게 추정하기 위해, 2개 시점을 연결한 균형패널 표본에 대해 후 시점의 횡단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표 4-1> 표본 사례 수

(단위: 명)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전후
	15→16	16→17	17→18	18→19	19→20
$t \rightarrow t+1$ 변화 분석	12,526	12,253	11,902	11,292	10,947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전후	
	15→17	16→18	17→19	19→21	
$t \rightarrow t+2$ 변화 분석	11,878	11,574	10,952	10,361	

주: t 시점에 18세 이상이고 전 시점과 후 시점에 모두 관찰된 개인을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이하에서는 $t \rightarrow t+1$ 변화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¹⁰⁾ 서술의 편의를 위해 전 시점을 T1, 후 시점을 T2로 표기한다. 개별 인년마다 T1과 T2의 정보가 존재하는데, 개인 특성 설명변수는 T1 값을 활용하고, 경

9) 2개 시점을 연결한 균형패널 표본 중에서 후 시점의 종단개인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아 종단개인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이태진 외, 2020, p.215).

10) $t \rightarrow t+2$ 변화 분석 방법은 전후 시점의 차이가 2년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제활동 및 소득 결과변수는 T2 값에서 T1 값을 차감한 전후 차이를 활용한다. 전체 집단 또는 T1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하위집단별로 19→20 결과변수 변화와 15→16, 16→17, 17→18, 18→19 결과변수 변화를 분석하고,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영향으로 해석한다. 결과변수를 Y , T1이 2019년이면 1이고 2018년 이전이면 0인 더미변수를 $D_{T1=19}$ 라 할 때, 결과변수의 전후 변화를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T1이 2018년 이전인 코로나19 이전 T1→T2 결과변수 변화는 α 이고, 19→20 결과변수 변화는 $\alpha + \beta$ 이며,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영향은 β 이다. 이때 코로나19 이전 T1→T2 결과변수 변화는 15→16, 16→17, 17→18, 18→19 표본을 결합(pooling)한 값에 해당한다.

$$\Delta Y_{T1 \rightarrow T2} = \alpha + \beta \times D_{T1=19} + \epsilon \quad (1)$$

β 를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영향¹¹⁾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T1이 2018년 이전인 인년의 T1→T2 결과변수 변화와 19→20 결과변수 변화가 동일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엄격하게 검증하지는 않지만, 15→16, 16→17, 17→18, 18→19 결과변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형 추이를 통제한 분석을 추가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시간에 따른 표본의 개인 특성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투입한다. 이와 같이 선형 추이 TRD ¹²⁾와 T1에 측정된 통제변수 X_{T1} 을 추가한 식 (2)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분석은 코

11) 이때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영향은 감염병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금지 및 제한, 각종 재난지원 등과 같이 코로나19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 선형 추이는 T1=15인 인년에 0을 부여하고 1년마다 1을 더한 연속변수이다.

로나19의 인과적 효과를 엄격하게 검증한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기술한 것으로 유보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Delta Y_{T1 \rightarrow T2} = \alpha + \beta \times D_{T1=19} + \gamma \times TRD + \delta \times X_{T1} + \epsilon \quad (2)$$

식(2)의 β 는 분석 대상에 따라 전체 집단 또는 개별 하위집단에 대한 코로나19의 충격을 보여준다. 하지만 개별 하위집단에 대한 코로나19의 충격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T1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하위집단 더미변수를 G_{T1} , T1이 p 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를 $D_{T1=p}$, 선형 추이를 TRD , T1에 측정된 통제변수를 X_{T1} 이라 할 때, 식(3)을 추정하여 $G_{T1} = 1$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게 받았는지를 δ 로 판단할 수 있다.¹³⁾

$$\Delta Y_{T1 \rightarrow T2} = \alpha + \sum_p (\beta_p \times D_{T1=p}) + \gamma \times G_{T1} + \delta \times D_{T1=19} \times G_{T1} \quad (3) \\ + \zeta \times TRD \times G_{T1} + \eta \times X_{T1} + \epsilon$$

〈표 4-2〉에는 T1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하위집단 정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지위, 가구규모에 따라 집단을 설정하였고, 코로나19가 아동 가구의 이차소득자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가구원 존재와 성을 조합하여 집단을 설정하였다. 경제활동 특성으로 종사상지위를 살펴보고, 취업자에 대해 사업장 규모와 직종을, 임금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와 근로시간 형태를 살펴본

13) 식(1), 식(2), 식(3)에 대해 개인 고정효과를 통제한 분석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개인 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다. 마지막으로 취업자를 개인취업소득으로 구분한 5분위 개인취업소득 계층과 전체 인구를 균등화 가구시장소득으로 구분한 5분위 가구시장소득 계층을 살펴본다.¹⁴⁾

〈표 4-2〉 하위집단 정의

구분	정의	비고
성	남성/여성	
연령	18~34세/35~49세/50~64세/65세 이상	연말 만 연령
교육수준	중졸 이하/고졸/전문대졸/4년제 대졸 이상	연말
가구원 지위	가구주/배우자/기타 가구원	연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기준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 이상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미취학 가구원과 동거하는 여성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미취학 가구원과 동거하는 남성	
초등학생 동거 여성	초등학교 재학 가구원과 동거하는 여성	
초등학생 동거 남성	초등학교 재학 가구원과 동거하는 남성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연말 주된 경제활동상태
(임금근로자) 고용관계	직접고용/간접고용/특수고용	
(임금근로자) 근로시간형태	시간제/전일제	
(취업자) 사업장 규모	1~4인/5~29인/30~299인/300인 이상	
(취업자) 직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사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 개인취업소득계층	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 기준 5분위 구분	
가구시장소득계층	전체 인구의 제곱근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기준 5분위 구분	연간 소득

주: $t \rightarrow t+1$ 또는 $t \rightarrow t+2$ 표본에 대해 t 시점 특성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정의하였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14) 연말 기준으로 취업 상태를 정의하였기 때문에, 비취업자에게도 평균적으로 연간 약 200만 원의 개인취업소득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해둔다.

〈표 4-3〉에는 결과변수 정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활동 특성으로 취업, 종사상지위,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연간 근로시간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인취업소득과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및 가구가처분소득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및 가구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정의한 빈곤과 빈곤갭을 살펴본다.

〈표 4-3〉 결과변수 정의

구분	정의	비고
취업	· 취업=1 / 비취업=0	
종사상지위	· 〈표 4-2〉의 범주별로, 해당 범주=1 / 나머지=0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연간 근로시간	·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연간 일한 개월 수×주당 평균 근로시간×4.345 ·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연간 일한 개월 수×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 비취업자: 0	· 연도별 11~17명 결측
개인취업소득	· 개인취업소득(절대값/로그값)	· 연간 소득(만 원) ·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2021년 기준 실질화
가구시장소득	· 가구 내에서 합산하고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시장소득(절대값/로그값)	
가구가처분소득	· 가구 내에서 합산하고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눈 가구가처분소득(절대값/로그값)	
시장소득 빈곤	·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빈곤선 미만=1 / 빈곤선 이상=0	· 빈곤선: 연도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중위값의 50%
시장소득 빈곤갭	· 빈곤층: (빈곤선-균등화 가구시장소득)÷빈곤선 · 비빈곤층: 0	
가처분소득 빈곤	·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빈곤선 미만=1 / 빈곤선 이상=0	
가처분소득 빈곤갭	· 빈곤층: (빈곤선-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빈곤선 · 비빈곤층: 0	

주: $t \rightarrow t+1$ 또는 $t \rightarrow t+2$ 표본에 대해 후시점 값에서 전시점 값을 차감하여 결과변수로 정의하였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표 4-4〉에는 소득 정의를 제시하였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취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가구 내에서 합산하지 않은 개인취업소득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개인취업소득을 가구 내에서 합산하고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을 추가하여 시장소득으로 정의하고,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한다. 또한 공적이전소득 중에서 고용보험급여,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재난지원금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표 4-4〉 소득 정의

구분	내용	
취업소득	상용·임시·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고용주·자영자 사업소득, 농림축산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가구 간 이전소득,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공적이전소득	고용보험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금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기타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 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학비 지원,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 보조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기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국민연금 보험료, 특수직역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시장소득	취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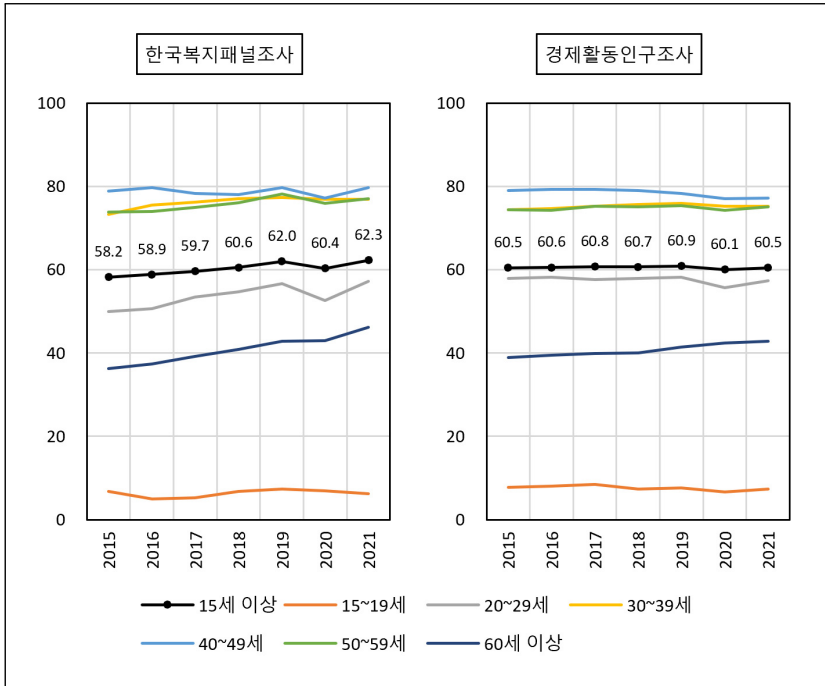
주: 고용주·자영자 사업소득, 농림축산업소득, 어업소득의 음수를 0으로 변환하였다. 가구단위로 조사된 농림축산업소득, 어업소득을 가구주 개인에게 할당하였다. 연도별로 개인취업소득이 0원 초과 존재하는 집단의 중위값의 10배로 개인취업소득을 탐코딩하였다.

자료: 변금선, 이원진, 이혜림, 김동진(2023, p.59)의 〈표 3-4〉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제3절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분배 추이

[그림 4-1] 2015~2021년 15세 이상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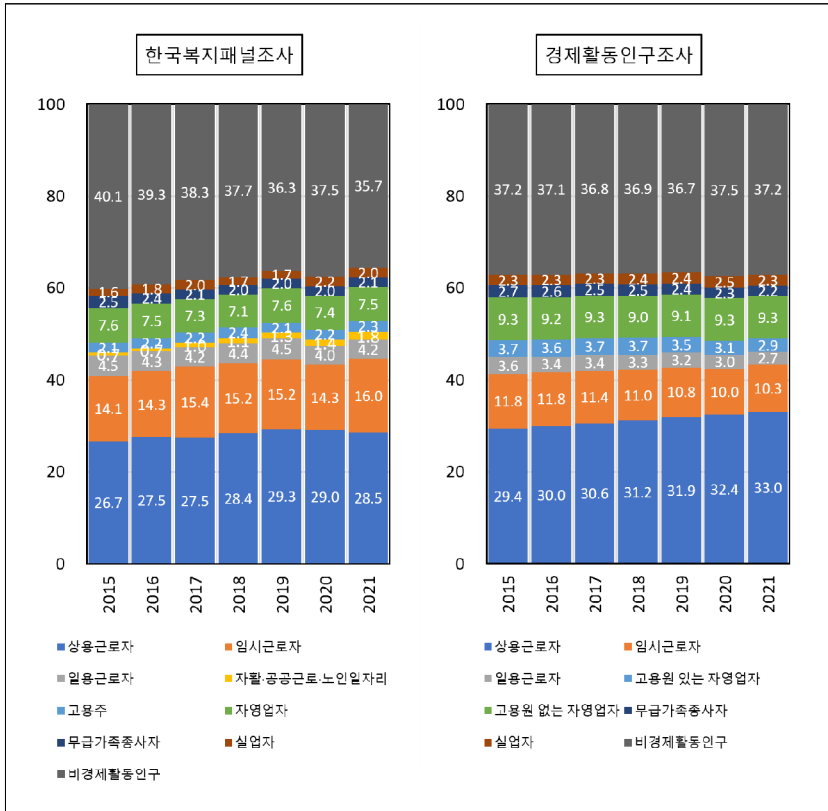
주: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연도별 개인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제3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5~2021년 경제활동 및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외부 집계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그림 4-1]에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집계한 15세 이상 고용률을 보고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로 분석한 고용률은 2015년 58.2%에서 2019년 62.0%로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에 60.4%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

다시 62.3%로 회복되었다. 코로나19 이전 고용률의 점진적 증가세, 코로나19 이후 2020년 고용률 감소, 2021년 고용률 회복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단,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고용률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이상의 분석이 실제 변화를 다소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2] 2015~2021년 15세 이상 종사상지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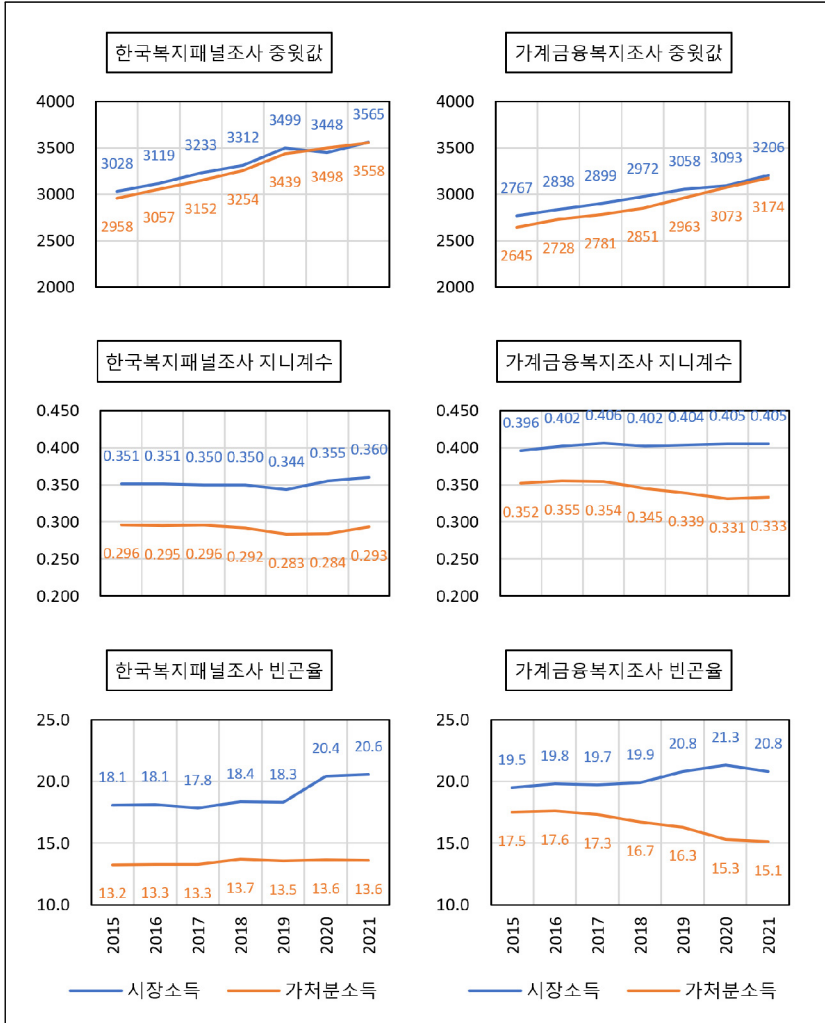
(단위: %)



주: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연도별 개인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그림 4-3] 2015~2021년 소득분배지표

(단위: 증윗값-만 원/년, 2021년 실질, 지니계수-포인트, 빈곤율-%)



주: 전체 인구의 균등화 가구소득 개인단위 분포이다.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개인단위 증윗값의 50%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여 시장소득을 정의하였고 공적이전소득에서 현물을 제외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연도별 개인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2)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그림 4-2]에서는 15세 이상 종사상지위 비율을 살펴보았다. 코로나 19 전후 2019~2020년 임시근로자 감소, 일용근로자 감소,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하지만 2019~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주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과 달리,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고용주가 증가하고 자영업자가 감소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2020년 이후 상용근로자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에도 주의해야 한다.

[그림 4-3]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를 살펴보면, 코로나 19 직후 2020년에 시장소득 증위값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하였으나 2021년에 회복하였고, 코로나19 전후 가처분소득 증위값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으나, 2019~2020년 시장소득 증위값 감소세가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훨씬 컸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코로나19 직후 2020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에 반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복지패널조사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을 다소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 변화

1. 전체 18세 이상 집단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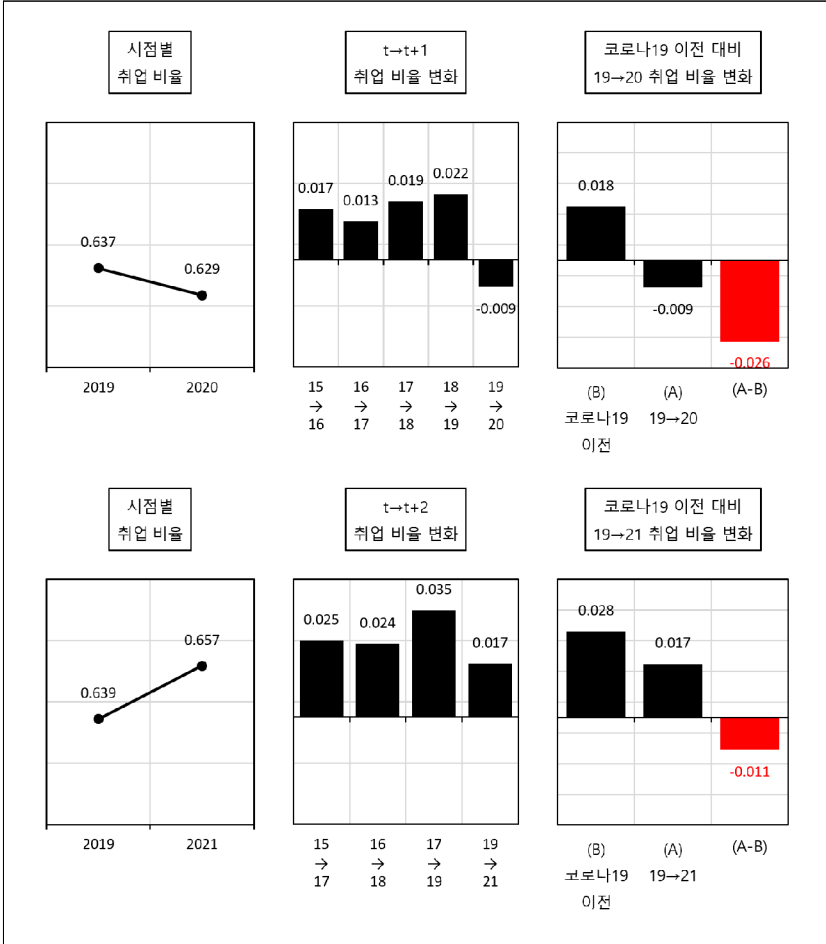
제4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 변화를 살펴본다. 우선 [그림 4-4]에서는 취업 비율을 분석하였다. 우선 19→

20 표본을 살펴보면, 2019년에 18세 이상이고 2019년과 2020년에 모두 관찰된 집단의 취업 비율이 2019년 63.7%에서 2020년 62.9%로 0.9%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 15→16, 16→17, 17→18, 18→19 표본은 각각 1년 동안 취업 비율이 1.7%포인트, 1.3%포인트, 1.9%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하였다. 15→16, 16→17, 17→18, 18→19 표본을 결합하면, 코로나19 이전 $t \rightarrow t+1$ 취업 비율 변화가 1.8%포인트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 동안 취업 비율이 평균적으로 1.8%포인트 증가하였는데, 2019~2020년에는 취업 비율이 0.9%포인트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이인 2.6%포인트를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적인 취업 비율 감소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2019~2020년 취업 비율이 1.8%포인트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코로나19가 취업 비율을 2.6%포인트 감소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19→21 표본을 살펴보면, 2019년에 18세 이상이고 2019년과 2021년에 모두 관찰된 집단의 취업 비율이 2019년 63.9%에서 2021년 65.7%로 1.7%포인트 증가하였다. 즉, 2019~2020년에는 취업 비율이 0.9%포인트 감소하였지만 2019~2021년에는 1.7%포인트 증가하였으므로, 대체로 코로나19 직후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일정하게 완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15→17, 16→18, 17→19 표본의 취업 비율이 2년 동안 평균적으로 2.8%포인트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취업 비율이 1.1%포인트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변화가 -2.6%포인트였고,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취업 비율 변화가 -1.1%포인트였으므로,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완화하였지만, 2021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4] 코로나19 전후 취업 비율 변화

(단위: 포인트)



주: (B)는 15→16, 16→17, 17→18, 18→19 표본 또는 15→17, 16→18, 17→19 표본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5〉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중사상지위 변화: t→t+1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T2 상용	T2 임시	T2 일용	T2 자활	T2 고용주	T2 자영	T2 무급	T2 실업	T2 비경활	계
19 → 20 (A)	T1 상용근로자	88.8	4.6	0.3	0.0	0.2	0.6	0.1	1.9	3.4	100.0
	T1 임시근로자	12.5	63.8	2.7	0.3	0.3	2.0	0.5	2.8	15.0	100.0
	T1 일용근로자	2.6	12.2	55.6	0.7	0.3	0.5	1.0	3.8	23.3	100.0
	T1 자활·공공근로	0.0	0.7	0.9	71.4	0.0	0.8	0.0	2.3	23.9	100.0
	T1 고용주	2.7	2.8	0.0	0.0	78.1	13.0	0.0	0.2	3.1	100.0
	T1 자영업자	1.3	2.6	0.8	0.1	3.9	83.5	0.6	0.7	6.6	100.0
	T1 무급가족종사자	0.6	2.5	0.8	0.6	0.0	3.7	85.8	0.5	5.4	100.0
	T1 실업자	14.6	24.3	7.2	3.5	0.9	2.5	0.0	21.3	25.7	100.0
	T1 비경제활동인구	2.8	6.1	2.5	1.0	0.3	1.1	0.3	1.7	84.2	100.0
코로나19 이전 (B)	T1 상용근로자	89.2	4.6	0.5	0.0	0.4	0.7	0.1	1.6	3.0	100.0
	T1 임시근로자	14.2	66.4	2.7	0.2	0.5	2.3	0.3	2.8	10.7	100.0
	T1 일용근로자	3.8	16.0	59.8	0.2	0.5	2.0	0.4	2.5	14.6	100.0
	T1 자활·공공근로	0.4	3.4	1.1	74.9	0.0	0.3	0.0	2.5	17.3	100.0
	T1 고용주	3.1	1.7	0.5	0.0	77.7	12.4	1.5	0.6	2.5	100.0
	T1 자영업자	1.2	3.7	0.8	0.2	3.4	84.4	0.6	0.3	5.4	100.0
	T1 무급가족종사자	1.3	3.5	1.2	0.3	0.8	3.9	80.3	0.1	8.6	100.0
	T1 실업자	18.8	26.0	10.3	1.6	1.5	2.2	0.4	14.5	24.7	100.0
	T1 비경제활동인구	3.3	7.1	2.6	0.9	0.2	0.9	0.5	1.6	82.9	100.0
(A-B)	T1 상용근로자	-0.3	0.0	-0.2	0.0	-0.3	0.0	0.1	0.3	0.4	0.0
	T1 임시근로자	-1.7	-2.6	0.0	0.2	-0.1	-0.2	0.1	0.1	4.3	0.0
	T1 일용근로자	-1.2	-3.8	-4.2	0.5	-0.2	-1.5	0.6	1.3	8.7	0.0
	T1 자활·공공근로	-0.4	-2.7	-0.2	-3.6	0.0	0.5	0.0	-0.2	6.6	0.0
	T1 고용주	-0.3	1.1	-0.5	0.0	0.4	0.5	-1.5	-0.4	0.6	0.0
	T1 자영업자	0.2	-1.1	0.0	-0.1	0.4	-1.0	-0.1	0.3	1.3	0.0
	T1 무급가족종사자	-0.7	-0.9	-0.4	0.3	-0.8	-0.2	5.4	0.5	-3.1	0.0
	T1 실업자	-4.2	-1.7	-3.1	1.9	-0.6	0.3	-0.4	6.8	1.0	0.0
	T1 비경제활동인구	-0.5	-1.1	-0.1	0.2	0.1	0.2	-0.2	0.1	1.3	0.0

주: (B)는 15→16, 16→17, 17→18, 18→19 표본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6〉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종사상지위 변화: t→t+2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T2 상용	T2 임시	T2 일용	T2 자활	T2 고용주	T2 자영	T2 무급	T2 실업	T2 비경활	계
19 → 21 (A)	T1 상용근로자	83.1	7.6	0.5	0.0	0.5	1.5	0.4	1.7	4.6	100.0
	T1 임시근로자	15.2	55.0	4.5	0.6	0.8	2.9	0.7	2.9	17.3	100.0
	T1 일용근로자	7.9	23.7	41.5	1.2	1.3	1.8	1.2	0.9	20.5	100.0
	T1 자활·공공근로	0.0	2.0	0.0	65.8	0.0	0.2	0.2	6.8	25.0	100.0
	T1 고용주	8.7	4.5	0.3	0.0	70.4	13.7	0.0	0.0	2.5	100.0
	T1 자영업자	2.6	4.6	1.7	0.6	5.1	75.6	1.3	0.6	7.8	100.0
	T1 무급가족종사자	1.3	3.7	0.0	0.9	0.2	8.0	74.5	0.4	11.0	100.0
	T1 실업자	20.1	34.2	3.6	5.1	0.0	6.0	1.3	9.2	20.5	100.0
	T1 비경제활동인구	4.8	9.6	3.8	2.1	0.2	1.8	0.7	2.3	74.8	100.0
코로 나19 이전 (B)	T1 상용근로자	83.3	7.3	0.8	0.0	0.9	1.3	0.1	1.5	4.7	100.0
	T1 임시근로자	20.0	54.2	3.4	0.3	0.8	3.7	0.5	3.2	14.0	100.0
	T1 일용근로자	5.9	20.4	43.7	0.4	0.3	3.5	0.6	2.7	22.5	100.0
	T1 자활·공공근로	1.1	6.2	2.1	63.9	0.0	0.2	0.0	3.2	23.3	100.0
	T1 고용주	4.0	3.8	1.1	0.0	65.8	17.0	2.5	1.0	4.7	100.0
	T1 자영업자	2.4	6.3	1.3	0.4	5.1	74.6	1.3	0.4	8.2	100.0
	T1 무급가족종사자	3.4	5.3	1.5	0.6	1.7	7.3	66.1	0.2	14.0	100.0
	T1 실업자	23.6	24.3	12.8	2.5	1.1	2.5	0.0	7.1	26.0	100.0
	T1 비경제활동인구	6.3	9.6	3.5	1.5	0.3	1.3	0.8	1.7	74.9	100.0
(A-B)	T1 상용근로자	-0.2	0.2	-0.4	0.0	-0.3	0.1	0.3	0.2	-0.1	0.0
	T1 임시근로자	-4.8	0.9	1.1	0.3	0.1	-0.8	0.2	-0.3	3.3	0.0
	T1 일용근로자	2.0	3.3	-2.2	0.8	1.0	-1.7	0.6	-1.8	-2.0	0.0
	T1 자활·공공근로	-1.1	-4.2	-2.1	1.9	0.0	0.0	0.2	3.6	1.6	0.0
	T1 고용주	4.7	0.8	-0.9	0.0	4.6	-3.3	-2.5	-1.0	-2.3	0.0
	T1 자영업자	0.3	-1.6	0.4	0.2	0.0	0.9	0.0	0.2	-0.3	0.0
	T1 무급가족종사자	-2.1	-1.6	-1.5	0.3	-1.5	0.7	8.4	0.2	-3.0	0.0
	T1 실업자	-3.5	9.9	-9.2	2.5	-1.1	3.6	1.3	2.1	-5.6	0.0
	T1 비경제활동인구	-1.5	0.1	0.3	0.6	-0.1	0.5	-0.1	0.5	-0.1	0.0

주: (B)는 15→17, 16→18, 17→19 표본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5〉와 〈표 4-6〉에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전후 종사상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4-5〉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t 시점 임시근로자의 10.7%가 $t+1$ 시점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였으나, 코로나19 전후에는 2019년 임시근로자의 15.0%가 2020년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이후 임시근로자의 비경제활동인구 전환율이 4.3%포인트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코로나19가 임시근로자의 퇴직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또한 임시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이후 상용근로자 전환율이 1.7%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임시근로자의 퇴직 가능성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상향이동 가능성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용근로자 역시 상용·임시근로자로 전환한 확률이 감소하였고 실업자로 전환한 확률이 1.3%포인트,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확률이 8.7%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의 비경제활동인구 전환율 역시 6.6%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자영업자의 퇴직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입직 가능성이 낮아졌다.

〈표 4-6〉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2019~2021년 종사상지위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1년에 임시근로자의 비경제활동인구 전환율,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의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전환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9년 임시근로자와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에 대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2021년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7〉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t→t+1 변화

(단위: 비율·빈곤·빈곤갭·포인트, 소득·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9→20			코로나19 이전 t→t+1					결합 변화 (B)	(A-B)
	19	20	19 → 20 변화 (A)	15 → 16 변화	16 → 17 변화	17 → 18 변화	18 → 19 변화			
취업 비율	0.637	0.629	-0.009	0.017	0.013	0.019	0.022	0.018	-0.026	
상용근로자 비율	0.304	0.304	0.001	0.014	0.000	0.012	0.012	0.010	-0.009	
임시근로자 비율	0.155	0.147	-0.008	0.003	0.012	0.001	0.001	0.004	-0.012	
일용근로자 비율	0.045	0.041	-0.004	-0.002	-0.002	0.002	0.001	0.000	-0.004	
자활·공공근로 비율	0.013	0.015	0.002	0.000	0.003	0.001	0.002	0.002	0.000	
고용주 비율	0.022	0.023	0.000	0.002	0.001	0.003	-0.002	0.001	0.000	
자영업자 비율	0.078	0.079	0.001	0.001	0.000	0.000	0.007	0.002	-0.002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020	0.021	0.000	-0.001	-0.002	-0.001	0.000	-0.001	0.001	
실업자 비율	0.018	0.022	0.005	0.002	0.002	-0.003	0.001	0.001	0.004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0.345	0.349	0.004	-0.019	-0.015	-0.016	-0.022	-0.018	0.022	
직접고용 비율	0.472	0.458	-0.014	0.016	0.007	0.009	0.024	0.014	-0.028	
간접고용 비율	0.022	0.031	0.009	0.003	0.005	0.006	-0.010	0.001	0.008	
특수고용 비율	0.022	0.018	-0.005	-0.004	0.003	0.001	0.003	0.001	-0.006	
시간제 비율	0.066	0.071	0.005	0.004	0.009	0.011	-0.003	0.005	0.000	
전일제 비율	0.451	0.436	-0.015	0.012	0.005	0.005	0.019	0.011	-0.025	
연간 근로시간	1275	1236	-40	45	-11	11	21	17	-56	
개인취업소득	2389	2381	-7	118	92	74	134	104	-112	
로그 개인취업소득	5.345	5.328	-0.017	0.155	0.159	0.121	0.146	0.145	-0.162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3782	3730	-52	132	112	70	158	118	-169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7.897	7.837	-0.060	0.043	0.022	0.007	0.038	0.027	-0.087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708	3733	25	128	105	72	160	117	-92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8.056	8.058	0.002	0.040	0.030	0.023	0.051	0.036	-0.034	
시장소득 빈곤	0.204	0.229	0.026	0.001	0.004	0.006	0.002	0.003	0.022	
시장소득 빈곤갭	0.110	0.127	0.017	-0.002	0.004	0.006	0.005	0.003	0.014	
가처분소득 빈곤	0.150	0.155	0.005	0.000	0.002	0.004	0.003	0.002	0.003	
가처분소득 빈곤갭	0.048	0.056	0.008	-0.004	0.003	0.001	0.001	0.000	0.007	

전체

144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4-7〉 계속

구분	19→20			코로나19 이전 t→t+1					결합 변화 (B)	(A-B)
	19	20	19 → 20 변화 (A)	15 → 16 변화	16 → 17 변화	17 → 18 변화	18 → 19 변화			
전시점 취업자	취업 비율	1.000	0.895	-0.105	-0.079	-0.090	-0.083	-0.074	-0.082	-0.023
	상용근로자 비율	0.477	0.458	-0.018	-0.003	-0.024	-0.006	-0.003	-0.009	-0.009
	임시근로자 비율	0.242	0.191	-0.052	-0.046	-0.031	-0.051	-0.045	-0.043	-0.009
	일용근로자 비율	0.071	0.049	-0.022	-0.019	-0.022	-0.017	-0.018	-0.019	-0.003
	자활·공공근로 비율	0.020	0.016	-0.004	-0.004	-0.001	-0.003	-0.003	-0.003	-0.002
	고용주 비율	0.035	0.034	-0.001	0.001	0.000	0.005	-0.006	0.000	-0.001
	자영업자 비율	0.123	0.117	-0.006	-0.004	-0.005	-0.006	0.003	-0.003	-0.003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032	0.031	-0.001	-0.004	-0.007	-0.005	-0.003	-0.005	0.003
	실업자 비율	0.000	0.020	0.020	0.017	0.018	0.018	0.016	0.017	0.003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0.000	0.085	0.085	0.062	0.072	0.065	0.059	0.064	0.020
	직접고용 비율	0.741	0.646	-0.095	-0.062	-0.079	-0.077	-0.047	-0.066	-0.029
	간접고용 비율	0.035	0.041	0.007	-0.001	-0.001	0.002	-0.021	-0.005	0.012
	특수고용 비율	0.035	0.027	-0.008	-0.008	0.002	-0.002	0.000	-0.002	-0.006
	시간제 비율	0.103	0.084	-0.019	-0.019	-0.016	-0.016	-0.035	-0.022	0.002
	전일제 비율	0.707	0.630	-0.077	-0.052	-0.062	-0.062	-0.034	-0.052	-0.025
	연간 근로시간	2000	1828	-173	-78	-164	-124	-111	-119	-54
	개인취업소득	3634	3569	-65	109	60	45	123	84	-149
	로그 개인취업소득	7.636	7.372	-0.264	-0.071	-0.098	-0.110	-0.073	-0.088	-0.176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4322	4284	-38	160	103	50	139	113	-151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8.207	8.162	-0.045	0.033	0.014	0.006	0.034	0.022	-0.067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4085	4132	46	147	87	51	139	106	-59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8.201	8.202	0.001	0.031	0.011	0.017	0.043	0.025	-0.024	
시장소득 빈곤	0.093	0.121	0.028	0.004	0.007	0.011	0.000	0.005	0.023	
시장소득 빈곤갭	0.037	0.052	0.014	0.002	0.006	0.005	0.003	0.004	0.010	
가처분소득 빈곤	0.070	0.076	0.006	0.004	0.007	0.004	0.003	0.005	0.001	
가처분소득 빈곤갭	0.018	0.024	0.006	0.002	0.008	0.001	0.000	0.003	0.003	

〈표 4-7〉 계속

구분	19→20			코로나19 이전 t→t+1				결합 변화 (B)	(A-B)
	19	20	19 → 20 변화 (A)	15 → 16 변화	16 → 17 변화	17 → 18 변화	18 → 19 변화		
취업 비율	0.000	0.160	0.160	0.163	0.177	0.184	0.182	0.177	-0.017
상용근로자 비율	0.000	0.033	0.033	0.041	0.039	0.043	0.039	0.040	-0.007
임시근로자 비율	0.000	0.070	0.070	0.078	0.081	0.085	0.079	0.081	-0.011
일용근로자 비율	0.000	0.027	0.027	0.024	0.030	0.033	0.032	0.030	-0.003
자활·공공근로 비율	0.000	0.012	0.012	0.006	0.011	0.009	0.011	0.009	0.002
고용주 비율	0.000	0.003	0.003	0.003	0.003	0.000	0.004	0.002	0.000
자영업자 비율	0.000	0.012	0.012	0.009	0.007	0.010	0.013	0.010	0.002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000	0.003	0.003	0.003	0.006	0.005	0.004	0.005	-0.002
실업자 비율	0.049	0.027	-0.022	-0.020	-0.024	-0.036	-0.025	-0.026	0.004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0.951	0.814	-0.137	-0.144	-0.153	-0.148	-0.158	-0.151	0.013
직접고용 비율	0.000	0.127	0.127	0.137	0.144	0.149	0.144	0.144	-0.016
간접고용 비율	0.000	0.013	0.013	0.010	0.013	0.012	0.009	0.011	0.003
특수고용 비율	0.000	0.001	0.001	0.002	0.004	0.007	0.008	0.006	-0.004
시간제 비율	0.000	0.048	0.048	0.039	0.050	0.055	0.051	0.049	-0.001
전일제 비율	0.000	0.095	0.095	0.110	0.112	0.114	0.110	0.111	-0.017
연간 근로시간	0	195	195	235	235	229	241	235	-39
개인취업소득	200	294	94	131	143	121	153	137	-43
로그 개인취업소득	1.318	1.735	0.418	0.503	0.568	0.495	0.513	0.520	-0.102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2833	2757	-75	88	125	102	190	126	-202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7.351	7.266	-0.085	0.059	0.034	0.009	0.045	0.037	-0.122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045	3031	-14	99	135	105	196	134	-147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7.802	7.806	0.004	0.054	0.061	0.034	0.065	0.053	-0.049
시장소득 빈곤	0.397	0.419	0.021	-0.004	0.000	-0.001	0.006	0.000	0.021
시장소득 빈곤갭	0.238	0.260	0.022	-0.007	0.000	0.008	0.008	0.002	0.020
가처분소득 빈곤	0.291	0.294	0.004	-0.007	-0.007	0.004	0.003	-0.002	0.005
가처분소득 빈곤갭	0.101	0.112	0.011	-0.012	-0.005	0.001	0.003	-0.003	0.015

주: (B)는 15→16, 16→17, 17→18, 18→19 표본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다음으로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변화를 살펴본다. 우선 <표 4-7>에는 경제활동·소득·빈곤의 $t \rightarrow t+1$ 변화를 보고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취업 비율이 2.6%포인트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사상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비율이 각각 0.9%포인트, 1.2%포인트, 0.4%포인트, 0.2%포인트 감소하였고,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각각 0.4%포인트, 2.2%포인트 증가하였다. 일자리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고용과 전일제 비율이 각각 2.8%포인트, 2.5%포인트 감소하여 안정적인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시간이 56시간 감소하였고, 개인 취업소득이 연간 112만 원, 0.162 로그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고용, 일자리의 질, 근로시간, 근로소득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충격은 가구소득 충격으로 이어졌다. 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가구시장소득이 연간 169만 원, 0.087 로그포인트 감소하였고, 가구가처분소득이 연간 92만 원, 0.034 로그포인트 감소하였다. 시장소득 빈곤 및 빈곤갭이 각각 2.2%포인트, 1.4%포인트 증가하였고, 가처분소득 빈곤 및 빈곤갭이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증가하였다. 즉,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빈곤 및 빈곤갭이 증가한 것이다. 단, 전반적으로 시장소득 악화보다 가처분소득 악화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이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일정하게 완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는 전체 18세 이상 집단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전체 집단의 취업 비율 감소에는 한편으로는 취업자의 퇴직 증가가, 다른

한편으로는 비취업자의 입직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표 4-7>에는 전시점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2019년 취업자의 10.5%가 2020년에 비취업자로 전환하였다. 시간에 따라 필연적으로 퇴직·입직이 발생하므로, 취업자 일부의 비취업 전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취업자의 8.2%가 비취업자로 전환하였으므로, 이와 비교하면 2019~2020년에 취업자의 비취업 전환율이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취업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직접고용, 전일제가 감소하였고 간접고용,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 개인취업소득, 가구소득이 감소하였고, 빈곤과 빈곤갭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전 시점 비취업자를 살펴보면, 2019년 비취업자의 16.0%가 2020년에 취업자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비취업자의 17.7%가 취업자로 전환하였으므로, 이와 비교하면 2019~2020년에 비취업자의 취업 전환율이 1.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취업자의 퇴직 증가와 비취업자의 입직 감소가 모두 고용률을 감소시킨 것이다. 취업자와 유사하게, 비취업자 역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직접고용, 전일제가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 개인취업소득, 가구소득이 감소하였고, 빈곤과 빈곤갭이 증가하였다. 단, 취업자에 비해 비취업자의 개인취업소득이 덜 감소하였지만, 가구소득, 특히 가구가처분소득이 더 많이 감소하였고 빈곤과 빈곤갭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는 취업자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험하였고, 비취업자가 코로나19의 가구소득·빈곤 충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148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4-8〉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t→t+2 변화

(단위: 비율·빈곤·빈곤갭-포인트, 소득-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9→21			코로나19 이전 t→t+2				(A-B)	
	19	21	19 → 21 변화 (A)	15 → 17 변화	16 → 18 변화	17 → 19 변화	결합 변화 (B)		
전체	취업 비율	0.639	0.657	0.017	0.025	0.024	0.035	0.028	-0.011
	상용근로자 비율	0.303	0.304	0.001	0.014	0.011	0.024	0.016	-0.016
	임시근로자 비율	0.157	0.165	0.008	0.013	0.008	-0.001	0.007	0.001
	일용근로자 비율	0.045	0.042	-0.003	-0.004	0.000	0.001	-0.001	-0.002
	자활·공공근로 비율	0.013	0.019	0.006	0.004	0.005	0.004	0.004	0.002
	고용주 비율	0.022	0.024	0.002	0.001	0.004	0.001	0.002	0.000
	자영업자 비율	0.078	0.081	0.003	0.000	0.000	0.007	0.002	0.000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021	0.022	0.001	-0.003	-0.003	-0.002	-0.003	0.004
	실업자 비율	0.019	0.021	0.002	0.004	0.000	-0.003	0.000	0.002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0.342	0.322	-0.020	-0.029	-0.024	-0.032	-0.028	0.009
	직접고용 비율	0.473	0.482	0.009	0.020	0.009	0.028	0.019	-0.010
	간접고용 비율	0.022	0.029	0.007	0.008	0.010	-0.004	0.004	0.003
	특수고용 비율	0.023	0.019	-0.004	-0.001	0.004	0.005	0.003	-0.007
	시간제 비율	0.065	0.073	0.008	0.012	0.018	0.008	0.013	-0.005
	전일제 비율	0.453	0.457	0.004	0.015	0.005	0.021	0.013	-0.010
	연간 근로시간	1282	1279	-3	26	-13	28	14	-17
	개인취업소득	2391	2519	127	204	146	199	183	-56
	로그 개인취업소득	5.366	5.441	0.075	0.258	0.235	0.214	0.235	-0.160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3756	3855	99	234	163	221	206	-107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7.893	7.868	-0.024	0.061	0.024	0.041	0.042	-0.066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688	3844	156	226	162	227	205	-49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8.053	8.073	0.021	0.067	0.051	0.074	0.064	-0.043
	시장소득 빈곤	0.203	0.234	0.030	0.003	0.013	0.010	0.009	0.022
	시장소득 빈곤갭	0.110	0.126	0.016	0.002	0.011	0.012	0.008	0.008
	가처분소득 빈곤	0.149	0.154	0.004	0.001	0.009	0.008	0.006	-0.001
	가처분소득 빈곤갭	0.048	0.057	0.009	-0.001	0.004	0.002	0.002	0.007

〈표 4-8〉 계속

구분	19→21			코로나19 이전 t→t+2				(A-B)	
	19	21	19 → 21 변화 (A)	15 → 17 변화	16 → 18 변화	17 → 19 변화	결합 변화 (B)		
전시점 취업자	취업 비율	1.000	0.884	-0.116	-0.114	-0.115	-0.106	-0.112	-0.004
	상용근로자 비율	0.474	0.444	-0.030	-0.022	-0.028	-0.005	-0.018	-0.013
	임시근로자 비율	0.245	0.196	-0.049	-0.046	-0.046	-0.065	-0.052	0.004
	일용근로자 비율	0.071	0.045	-0.026	-0.027	-0.027	-0.025	-0.026	0.000
	자활·공공근로 비율	0.020	0.017	-0.004	-0.003	-0.002	-0.003	-0.003	-0.001
	고용주 비율	0.035	0.036	0.001	0.000	0.005	-0.001	0.001	0.000
	자영업자 비율	0.122	0.115	-0.007	-0.007	-0.007	0.000	-0.005	-0.002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033	0.031	-0.002	-0.010	-0.010	-0.007	-0.009	0.007
	실업자 비율	0.000	0.018	0.018	0.019	0.017	0.018	0.018	0.000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0.000	0.098	0.098	0.096	0.098	0.087	0.094	0.004
	직접고용 비율	0.740	0.642	-0.097	-0.095	-0.110	-0.085	-0.097	0.000
	간접고용 비율	0.035	0.034	-0.001	0.004	0.007	-0.014	-0.001	0.001
	특수고용 비율	0.036	0.026	-0.011	-0.005	0.001	0.001	-0.001	-0.010
	시간제 비율	0.102	0.072	-0.029	-0.017	-0.015	-0.029	-0.020	-0.009
	전일제 비율	0.708	0.629	-0.079	-0.080	-0.088	-0.068	-0.079	0.000
	연간 근로시간	2005	1800	-206	-202	-253	-198	-218	11
	개인취업소득	3623	3645	22	132	21	98	83	-62
	로그 개인취업소득	7.632	7.221	-0.411	-0.233	-0.284	-0.282	-0.267	-0.144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4308	4379	71	243	131	175	183	-111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8.207	8.171	-0.036	0.043	0.010	0.027	0.027	-0.062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4071	4200	129	219	127	183	176	-47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8.198	8.200	0.002	0.037	0.033	0.055	0.042	-0.040
	시장소득 빈곤	0.091	0.130	0.039	0.008	0.020	0.018	0.016	0.023
	시장소득 빈곤갭	0.036	0.055	0.018	0.007	0.013	0.012	0.011	0.008
	가처분소득 빈곤	0.069	0.081	0.012	0.009	0.013	0.013	0.012	0.000
	가처분소득 빈곤갭	0.018	0.031	0.012	0.008	0.007	0.002	0.005	0.007

150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4-8〉 계속

구분	19→21			코로나19 이전 t→t+2				(A-B)
	19	21	19 → 21 변화 (A)	15 → 17 변화	16 → 18 변화	17 → 19 변화	결합 변화 (B)	
취업 비율	0.000	0.254	0.254	0.247	0.251	0.266	0.254	0.000
상용근로자 비율	0.000	0.056	0.056	0.070	0.073	0.072	0.072	-0.016
임시근로자 비율	0.000	0.109	0.109	0.108	0.095	0.105	0.103	0.006
일용근로자 비율	0.000	0.038	0.038	0.032	0.043	0.044	0.040	-0.002
자활·공공근로 비율	0.000	0.022	0.022	0.014	0.016	0.015	0.015	0.007
고용주 비율	0.000	0.002	0.002	0.004	0.004	0.004	0.004	-0.002
자영업자 비율	0.000	0.020	0.020	0.012	0.012	0.018	0.014	0.006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000	0.007	0.007	0.008	0.007	0.008	0.008	0.000
실업자 비율	0.052	0.026	-0.026	-0.018	-0.029	-0.038	-0.028	0.003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0.948	0.720	-0.228	-0.229	-0.222	-0.228	-0.226	-0.002
직접고용 비율	0.000	0.197	0.197	0.203	0.203	0.214	0.207	-0.009
간접고용 비율	0.000	0.021	0.021	0.014	0.015	0.012	0.014	0.007
특수고용 비율	0.000	0.007	0.007	0.006	0.010	0.011	0.009	-0.002
시간제 비율	0.000	0.074	0.074	0.057	0.072	0.069	0.066	0.008
전일제 비율	0.000	0.151	0.151	0.166	0.156	0.168	0.163	-0.012
연간 근로시간	0	357	357	387	380	398	388	-32
개인취업소득	207	521	314	320	351	364	345	-31
로그 개인취업소득	1.349	2.286	0.936	1.040	1.083	1.029	1.050	-0.114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2777	2926	149	220	215	297	244	-95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7.335	7.331	-0.004	0.090	0.047	0.064	0.067	-0.071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3008	3212	203	238	219	299	252	-49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7.795	7.848	0.053	0.114	0.080	0.107	0.100	-0.047
시장소득 빈곤	0.402	0.417	0.015	-0.005	0.000	-0.004	-0.003	0.018
시장소득 빈곤갭	0.239	0.252	0.013	-0.005	0.007	0.011	0.004	0.009
가처분소득 빈곤	0.291	0.283	-0.009	-0.013	0.002	-0.001	-0.004	-0.005
가처분소득 빈곤갭	0.102	0.104	0.002	-0.014	0.001	0.002	-0.003	0.005

주: (B)는 15→17, 16→18, 17→19 표본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8〉에는 경제활동·소득·빈곤의 $t \rightarrow t+2$ 변화를 보고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1년에 취업 비율이 1.1%포인트 감소하였고, 특히 상용근로자 비율이 1.6%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4-7〉의 $t \rightarrow t+1$ 취업 비율 변화가 -2.6%포인트, 상용근로자 비율 변화가 -0.9%포인트였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용량의 절대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개인취업소득이 연간 56만 원, 0.160 로그포인트 감소하였고, 가구시장소득이 연간 107만 원, 0.066 로그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가구가처분소득이 연간 49만 원, 0.043 로그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t \rightarrow t+2$ 소득 변화는 $t \rightarrow t+1$ 소득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21년의 전반적인 고용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득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1년에 시장소득 빈곤 및 빈곤갭이 각각 2.2%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하였고,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0.7%포인트 증가하였다. $t \rightarrow t+1$ 빈곤 변화와 비교하면, 시장소득 빈곤갭과 가처분소득 빈곤이 일정하게 감소하였지만 시장소득 빈곤과 가처분소득 빈곤갭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4-9〉에서는 선형 추이와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고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변화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19→20 취업 비율 식(1) β 는 〈표 4-7〉의 (A-B)와 동일한데, 회귀분석으로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여 보고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변화는 -0.026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식(2)의 β 는 -0.032였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5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4-9〉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변화

(단위: 비율·빈곤·빈곤갭-포인트, 소득-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9→20		19→21	
		식(1) β	식(2) β	식(1) β	식(2) β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 통제		×	○	×	○
전체	취업 비율	-0.026***	-0.032***	-0.011	-0.025
	상용근로자 비율	-0.009*	-0.011+	-0.016*	-0.032*
	임시근로자 비율	-0.012*	-0.008	0.001	0.022
	일용근로자 비율	-0.004	-0.007	-0.002	-0.010
	자활·공공근로 비율	0.000	-0.001	0.002	0.002
	고용주 비율	0.000	0.002	0.000	0.001
	자영업자 비율	-0.002	-0.006+	0.000	-0.010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001	0.000	0.004*	0.001
	실업자 비율	0.004	0.007	0.002	0.013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0.022***	0.025**	0.009	0.012
	직접고용 비율	-0.028***	-0.035***	-0.010	-0.022
	간접고용 비율	0.008**	0.018***	0.003	0.020**
	특수고용 비율	-0.006*	-0.010**	-0.007**	-0.016*
	시간제 비율	0.000	0.004	-0.005	0.001
	전일제 비율	-0.025***	-0.031***	-0.010	-0.019
	연간 근로시간	-56***	-44*	-17	-21
	개인취업소득	-112***	-120***	-56+	-48
	로그 개인취업소득	-0.162***	-0.145**	-0.160***	-0.090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169***	-179**	-107*	-86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0.087***	-0.080***	-0.066***	-0.036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92*	-108+	-49	-50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0.034**	-0.041*	-0.043**	-0.055
	시장소득 빈곤	0.022***	0.021*	0.022**	0.011
	시장소득 빈곤갭	0.014***	0.008*	0.008**	-0.006
	가처분소득 빈곤	0.003	0.000	-0.001	-0.012
	가처분소득 빈곤갭	0.007	0.004	0.007	0.003

〈표 4-9〉 계속

구분		19→20		19→21	
		식(1) β	식(2) β	식(1) β	식(2) β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 통제		×	○	×	○
전시점 취업자	취업 비율	-0.023***	-0.029***	-0.004	-0.019
	상용근로자 비율	-0.009	-0.013	-0.013	-0.038*
	임시근로자 비율	-0.009	-0.005	0.004	0.032
	일용근로자 비율	-0.003	-0.005	0.000	-0.003
	자활-공공근로 비율	-0.002	-0.002	-0.001	0.000
	고용주 비율	-0.001	0.003	0.000	0.002
	자영업자 비율	-0.003	-0.009+	-0.002	-0.014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003*	0.001	0.007**	0.002
	실업자 비율	0.003	0.004	0.000	0.001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0.020***	0.025***	0.004	0.018
	직접고용 비율	-0.029***	-0.041***	0.000	-0.017
	간접고용 비율	0.012**	0.027***	0.001	0.027*
	특수고용 비율	-0.006+	-0.011*	-0.010**	-0.020*
	시간제 비율	0.002	0.013+	-0.009	0.009
	전일제 비율	-0.025***	-0.038***	0.000	-0.018
	연간 근로시간	-54***	-42+	11	4
	개인취업소득	-149***	-156**	-62	-9
	로그 개인취업소득	-0.176***	-0.172***	-0.144***	-0.071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151**	-124+	-111+	-7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0.067***	-0.066***	-0.062***	-0.038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59	-46	-47	7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0.024*	-0.035*	-0.040*	-0.065+
	시장소득 빈곤	0.023***	0.025***	0.023***	0.008
	시장소득 빈곤갭	0.010***	0.010**	0.008**	0.000
	가처분소득 빈곤	0.001	0.003	0.000	-0.005
	가처분소득 빈곤갭	0.003	0.006	0.007	0.016

〈표 4-9〉 계속

구분		19→20		19→21	
		식(1) β	식(2) β	식(1) β	식(2) β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 통제		×	○	×	○
전시점 비취 업자	취업 비율	-0.017+	-0.032*	0.000	-0.028
	상용근로자 비율	-0.007	-0.007	-0.016*	-0.021
	임시근로자 비율	-0.011+	-0.012	0.006	0.011
	일용근로자 비율	-0.003	-0.009	-0.002	-0.019+
	자활·공공근로 비율	0.002	0.000	0.007*	0.004
	고용주 비율	0.000	0.000	-0.002	-0.001
	자영업자 비율	0.002	-0.001	0.006	-0.002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0.002+	-0.002	0.000	0.000
	실업자 비율	0.004	0.010	0.003	0.031+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0.013	0.023	-0.002	-0.003
	직접고용 비율	-0.016+	-0.023*	-0.009	-0.027
	간접고용 비율	0.003	0.004	0.007+	0.011+
	특수고용 비율	-0.004***	-0.009***	-0.002	-0.009+
	시간제 비율	-0.001	-0.012+	0.008	-0.010
	전일제 비율	-0.017*	-0.017	-0.012	-0.015
	연간 근로시간	-39**	-41*	-32	-45
	개인취업소득	-43*	-55	-31	-100
	로그 개인취업소득	-0.102	-0.095	-0.114	-0.102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202***	-272***	-95	-207
	로그 균등화 가구시장소득	-0.122***	-0.105**	-0.071**	-0.032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147**	-210*	-49	-136
	로그 균등화 가구가처분소득	-0.049*	-0.050	-0.047*	-0.035
	시장소득 빈곤	0.021*	0.014	0.018	0.017
시장소득 빈곤갭	0.020***	0.007	0.009	-0.015	
가처분소득 빈곤	0.005	-0.005	-0.005	-0.024	
가처분소득 빈곤갭	0.015	0.001	0.005	-0.019	

주: 제2절의 식(1)과 식(2)를 추정한 결과이다. 원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이다.

+ p<.10,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식(2)로 추정된 β 를 중심으로 표를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변화가 -3.2%포인트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년 취업자의 비취업 전환이 2.9%포인트 증가하였고, 2019년 비취업자의 취업 전환이 3.2%포인트 감소하였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상용근로자 비율이 1.1%포인트, 자영업자 비율이 0.6%포인트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2.5%포인트 증가하였다. 자영업자 비율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증가는 취업자 대상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접고용 비율과 전일제 비율이 각각 3.5%포인트, 3.1%포인트 감소하였고 간접고용 비율이 1.8%포인트 증가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특수고용 비율의 1.0%포인트 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학습지교사, 택배원, 판매원 등과 같이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일자리가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근로시간이 44시간, 개인 취업소득이 0.145 로그포인트 감소하였고, 가구시장소득과 가구가처분소득이 각각 0.080 로그포인트, 0.041 로그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시장소득 빈곤 및 빈곤갭이 각각 2.1%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하였다. 대체로 비취업자보다 취업자의 경제활동 변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고, 시장소득 빈곤 및 빈곤갭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변화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가 많지 않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용근로자 비율이 3.2%포인트 감소하였고, 특수고용 비율이 1.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간접고용 비율이 2.0%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2021년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 하위집단 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하위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위 집단은 전 시점 특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¹⁵⁾ 우선 <표 4-10>에는 하위집단별로 식(2)의 β 를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19→20 남성 취업 비율 변화인 -0.039는 남성 표본을 활용하여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을 통제하고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의미한다. 즉, 선형 추이와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할 때 남성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이 3.9% 포인트 감소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 비율 감소가 컸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취업 비율 변화가 -4.4%포인트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남성의 개인취업소득 및 시장소득 감소 역시 대체로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여성은 대체로 2020년까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 충격을 경험하였지만, 2021년에는 그 충격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근로연령인구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험하였다. 50~64세 중년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취업 비율 감소가 2019~2020년 5.4%포인트, 2019~2021년 7.7%포인트로 가장 컸고, 35~49세 장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 증가가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대비 취업 비율이 2019~2021년에 5.4%포인트 증가하였고,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각각 4.2%포인트, 6.1%포인트 감소하였다. 노인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재난 지원금 등의 공적이전 확대에 의해 빈곤갭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하위집단 표본 사례 수 및 표본 비율은 <부표 4-1>과 <부표 4-2>에 보고하였다.

〈표 4-10〉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변화

(단위: 비율·빈곤갭-포인트, 소득-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9→20							19→21						
	취업 비율	연간 근로 시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취업 비율	연간 근로 시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남성	-0.039	-45	-0.181	-0.080	-0.049	0.007	0.006	-0.044	-6	-0.275	-0.062	-0.083	-0.001	0.011
여성	-0.025	-43	-0.110	-0.080	-0.033	0.009	0.002	-0.007	-34	0.091	-0.011	-0.028	-0.010	-0.005
18~34세	-0.029	-64	-0.205	-0.109	-0.071	0.011	0.007	-0.013	-52	-0.235	-0.085	-0.085	-0.003	0.018
35~49세	-0.032	-20	-0.121	-0.056	-0.046	0.011	0.010	-0.031	34	0.001	0.005	-0.114	0.004	0.028
50~64세	-0.054	-95	-0.152	-0.105	-0.055	0.009	0.005	-0.077	-101	-0.106	-0.107	-0.047	0.000	-0.002
65세 이상	0.002	25	-0.092	-0.033	0.039	-0.003	-0.012	0.054	60	0.011	0.101	0.100	-0.042	-0.061
중졸 이하	-0.039	-66	-0.087	-0.065	0.018	0.010	-0.017	-0.024	-95	0.024	0.029	0.068	-0.026	-0.036
고졸	-0.032	-21	-0.265	-0.107	-0.055	0.007	0.000	-0.023	17	-0.333	-0.056	-0.078	-0.009	0.009
전문대졸	-0.042	-110	-0.120	-0.065	-0.048	0.010	0.014	-0.003	38	0.343	0.022	-0.019	0.003	0.005
4년제 대졸 이상	-0.021	-29	-0.043	-0.064	-0.063	0.008	0.022	-0.041	-45	-0.051	-0.093	-0.143	0.013	0.026
가구주	-0.022	-5	-0.168	-0.086	-0.047	0.010	0.004	-0.009	66	-0.051	-0.014	-0.062	-0.010	-0.003
배우자	-0.050	-89	-0.090	-0.073	-0.027	0.009	0.006	-0.066	-142	-0.033	-0.046	-0.034	0.001	-0.003
기타 가구원	-0.027	-59	-0.161	-0.078	-0.046	0.005	0.003	-0.005	-28	-0.210	-0.062	-0.067	-0.008	0.020
1인 가구	-0.024	-50	-0.252	-0.073	-0.053	0.007	-0.012	0.066	99	0.134	0.225	0.072	-0.064	-0.046
2인 가구	-0.019	-22	-0.142	-0.082	0.021	0.011	0.007	-0.021	-41	-0.065	-0.025	0.063	-0.006	-0.034
3인 가구	-0.043	-61	-0.079	-0.093	-0.051	0.015	0.003	-0.063	-63	-0.251	-0.123	-0.098	0.012	0.012
4인 이상 가구	-0.033	-44	-0.157	-0.068	-0.066	0.002	0.007	-0.024	-10	-0.053	-0.046	-0.128	-0.004	0.031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0.091	-114	-0.456	-0.069	-0.097	0.008	0.016	-0.071	-127	0.041	0.030	-0.201	-0.005	0.049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0.005	128	-0.232	-0.086	-0.113	0.008	0.019	0.013	244	-0.256	-0.096	-0.275	-0.001	0.047
초등학생 동거 여성	-0.029	-85	-0.024	-0.044	-0.065	0.014	0.020	-0.010	-87	0.171	0.034	-0.176	0.010	0.054
초등학생 동거 남성	-0.025	23	0.014	-0.053	-0.087	0.006	0.024	-0.020	125	0.113	0.022	-0.169	0.006	0.062
상용근로자	-0.010	-7	-0.075	-0.023	-0.018	0.004	0.008	-0.026	44	0.011	-0.012	-0.045	-0.002	0.010
임시근로자	-0.045	-123	-0.251	-0.105	-0.069	0.015	0.010	-0.017	-65	-0.246	-0.076	-0.100	0.013	0.018
일용근로자	-0.095	-84	-0.404	-0.098	0.002	0.011	-0.009	0.036	15	-0.230	-0.008	0.119	-0.031	-0.042
저활 공공근로·노인일자리	-0.116	-148	-0.491	-0.114	-0.054	0.042	0.023	-0.101	-128	-0.430	-0.408	-0.179	0.120	0.079
고용주	-0.011	235	-0.425	-0.092	-0.059	-0.006	-0.004	0.005	307	-0.290	-0.177	-0.275	0.011	0.060
자영업자	-0.034	-65	-0.116	-0.106	-0.040	0.010	-0.002	-0.013	45	0.274	0.048	-0.035	-0.029	0.030
무급가족종사자	0.007	-77	-0.327	-0.161	-0.084	0.041	0.016	-0.026	-443	-0.504	-0.149	-0.256	0.034	0.062
실업자	-0.108	-246	0.702	-0.056	-0.108	-0.023	-0.008	0.069	191	-0.924	-0.209	-0.370	0.020	0.053
비경제활동인구	-0.028	-29	-0.128	-0.106	-0.046	0.008	0.001	-0.032	-50	-0.059	-0.019	-0.014	-0.017	-0.022
직접고용	-0.032	-58	-0.174	-0.049	-0.026	0.009	0.006	-0.021	16	-0.081	-0.022	-0.028	-0.001	0.006
간접고용	-0.061	-13	-0.195	-0.145	-0.120	0.014	0.039	-0.074	-93	-0.455	-0.193	-0.255	0.033	0.054

〈표 4-10〉 계속

구분	19→20							19→21						
	취업 비율	연간 근로 시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취업 비율	연간 근로 시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특수고용	0.020	83	0.109	-0.124	-0.071	0.000	-0.007	0.029	-111	-0.138	-0.256	-0.246	0.040	0.016
시간제	-0.113	-153	-0.356	-0.115	-0.064	0.013	0.003	0.050	-40	0.034	-0.102	-0.096	-0.017	-0.003
전일제	-0.020	-29	-0.139	-0.047	-0.027	0.008	0.008	-0.029	17	-0.120	-0.032	-0.042	0.004	0.011
1~4인 사업장	-0.041	-64	-0.281	-0.093	-0.026	0.013	-0.002	-0.023	-114	-0.051	-0.043	-0.070	-0.006	0.018
5~29인 사업장	-0.047	-66	-0.201	-0.056	-0.031	0.009	0.009	-0.046	6	-0.365	-0.049	-0.068	0.005	0.019
30~299인 사업장	-0.013	6	-0.143	-0.070	-0.041	0.009	0.008	0.013	145	0.118	-0.058	-0.081	0.005	0.018
300인 이상 사업장	-0.004	-24	-0.003	-0.035	-0.047	0.004	0.012	-0.009	27	0.085	0.012	-0.031	-0.007	0.003
관리자	-0.002	260	-0.025	-0.034	-0.002	0.018	0.013	0.024	318	-0.048	-0.015	-0.012	0.021	0.03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38	-45	-0.160	-0.035	-0.020	0.005	0.005	-0.008	159	0.046	-0.021	-0.089	-0.001	0.030
사무 종사자	0.003	-41	-0.188	-0.046	-0.016	0.006	-0.003	-0.029	-35	-0.190	-0.001	-0.037	0.002	-0.002
서비스 종사자	-0.036	-76	-0.273	-0.065	-0.068	-0.002	0.014	-0.014	-63	-0.109	0.022	-0.121	-0.021	0.060
판매 종사자	-0.062	-136	-0.285	-0.200	-0.118	0.035	0.015	-0.044	-169	-0.060	-0.097	-0.033	0.027	-0.0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20	47	0.194	0.074	0.141	0.002	-0.029	0.001	-121	0.532	0.174	0.172	-0.065	-0.06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18	-38	-0.149	-0.074	-0.009	0.002	0.011	0.010	-8	-0.176	-0.114	-0.062	0.011	0.01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26	-33	-0.192	-0.068	-0.055	0.007	0.005	-0.027	-9	-0.084	-0.092	-0.130	-0.010	0.016
단순노무 종사자	-0.052	-56	-0.190	-0.098	-0.074	0.017	0.015	-0.023	43	-0.157	-0.086	-0.105	0.009	0.028
개인취업소득 1분위	-0.055	-135	-0.188	-0.093	-0.004	0.009	-0.011	-0.033	-212	0.002	-0.070	-0.076	-0.010	0.002
개인취업소득 2분위	-0.062	-81	-0.362	-0.095	-0.054	0.012	0.000	-0.045	-93	-0.450	-0.075	-0.107	-0.008	0.021
개인취업소득 3분위	-0.035	-54	-0.152	-0.013	-0.005	0.005	0.014	-0.009	95	0.044	0.001	0.000	0.001	0.017
개인취업소득 4분위	0.010	29	-0.146	-0.064	-0.040	0.015	0.013	0.003	156	0.016	-0.046	-0.017	0.012	0.009
개인취업소득 5분위	-0.010	41	-0.017	-0.067	-0.075	0.008	0.015	-0.015	93	0.050	0.003	-0.125	0.005	0.033
가구시장소득 1분위	-0.037	-54	-0.206	-0.101	-0.028	0.002	-0.002	-0.010	-30	-0.170	0.004	-0.051	-0.042	-0.028
가구시장소득 2분위	-0.020	-21	-0.154	-0.102	-0.017	0.016	-0.003	-0.016	-19	-0.024	-0.048	0.081	0.001	-0.048
가구시장소득 3분위	-0.051	-86	-0.080	-0.068	-0.043	0.011	0.007	-0.066	-132	-0.298	-0.079	-0.027	0.015	0.022
가구시장소득 4분위	-0.028	-36	-0.021	-0.081	-0.068	0.010	0.010	-0.033	-57	0.068	-0.058	-0.149	0.001	0.040
가구시장소득 5분위	-0.024	-28	-0.262	-0.051	-0.054	0.004	0.011	-0.005	123	0.009	0.001	-0.122	0.002	0.032

주: 제2절의 식(2) β 를 추정한 결과이다. 원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이다. $p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가구원 지위별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취업 비율 및 근로시간 감소가 두드러졌다. 배우자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취업 비율이 2019~2020년에 5.0%포인트, 2019~2021년에 6.6%포인트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전 대비 연간 근로시간이 2019~2020년에 89시간, 2019~2021년에 142시간 감소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 하락이 2021년까지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 하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미취학 아동과 동거하는 여성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감소가 9.1%포인트로 매우 컸고, 연간 근로시간이 114시간, 개인취업소득이 0.456 로그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가구소득이 감소하여 2021년까지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증가하였다. 이는 미취학 아동의 존재가 코로나19 전후 이차소득자의 경제활동·소득·빈곤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취업소득과 가구시장소득이 2019~2020년에 감소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불안정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시장소득 빈곤갭이 2019~2020년에 4.2%포인트, 2019~2021년에 12.0%포인트 증가하여,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이 매우 강하게 관찰되었다. 이들은 전체 18세 이상 집단의 약 1%에 불과하지만(〈부표 4-2〉 참조), 코로나19 전후 빈곤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일자리 특성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시간제의 2019~2020년 취업 비율, 근로시간,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가구가처분소득 감소가 확인되었고, 중소기업의 2019~2020년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감소,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관찰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판매 종사자의 2019~2020년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가구가처분소득 감소가 확인되었고,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판매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노무 종사자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가구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빈곤갭이 증가하였다.

개인취업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취업 비율, 근로시간,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감소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가구가처분소득 감소와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갭 증가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코로나19의 충격이 가구 구성 및 공적이전을 경유하여 복합적인 패턴의 분배 효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가구시장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개인취업소득 감소가 1분위와 5분위에게 확인되었고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2~4분위에게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일관된 패턴을 관찰하기 어려웠다.

한편, 19→21 표본 분석 결과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2019~2021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집단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2021년까지 다양한 공적이전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집단에

해당한다. 흥미롭게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가처분소득 빈곤갭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찰된 집단은 35~49세 장년,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초등학생 동거 여성·남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개인취업소득 5분위 등과 같이 대체로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었다.¹⁶⁾ 이는 코로나19 전후 조세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 대한 순공적이전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중졸 이하, 1인 가구 등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가처분소득 빈곤갭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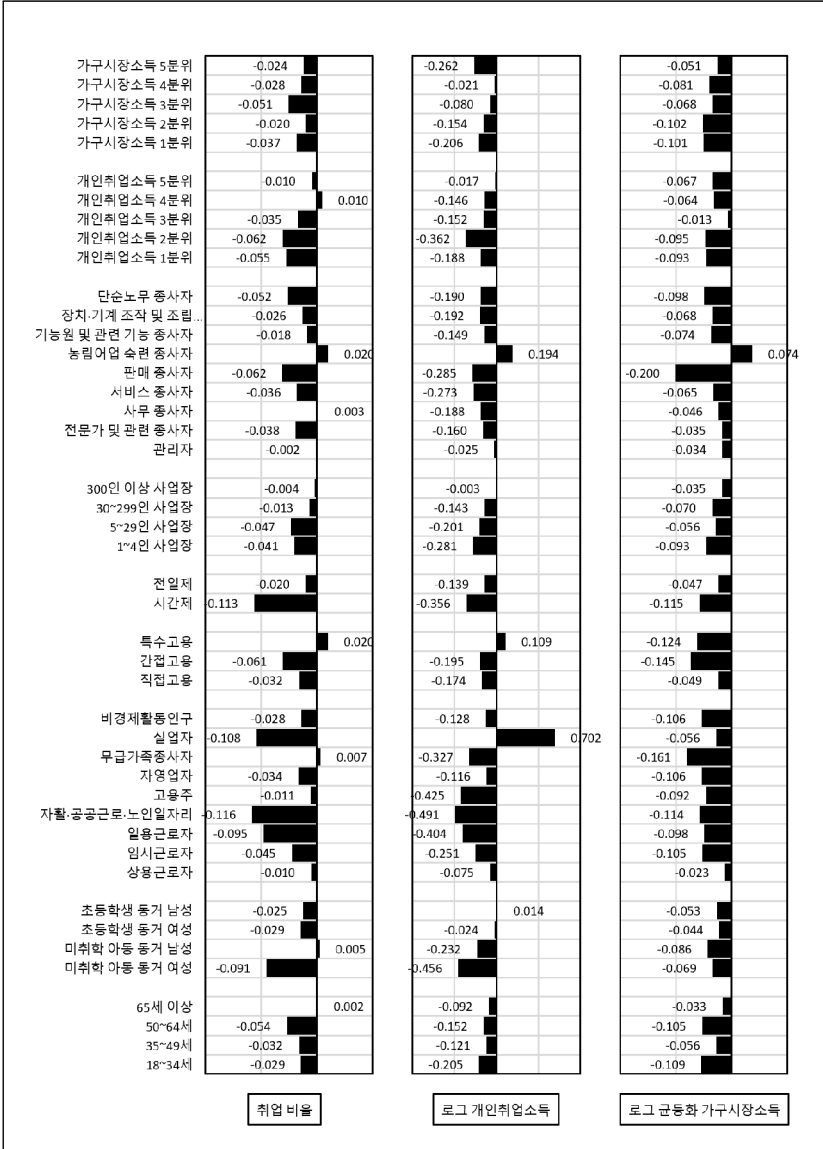
[그림 4-5]에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컸던 2020년까지의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변화에 집중하여 <표 4-10>의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림을 요약하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대체로 근로연령인구, 미취학 아동과 동거하는 여성,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시간제, 소규모 사업장,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개인취업소득 1·2분위의 고용·소득 충격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에는 개별 하위집단에 대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표 4-10>에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변화는 남성이 -0.039, 여성이 -0.025로 나타났다. <표 4-11>에서 식(3)의 δ 를 추정된 결과, 남성 취업 비율 변화와 여성 취업 비율 변화의 차이가 -0.014였고, 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취업 비율 감소가 1.4%포인트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6) 예외적으로,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의 가처분소득 빈곤갭 증가가 가장 컸다.

[그림 4-5]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19→20 경제활동·소득 변화

(단위: 비율-포인트, 소득-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주: 제2절의 식(2) β를 추정된 결과이다. 통계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11〉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소득·빈곤 변화의 집단 간 차이
(단위: 비율·빈곤갭-포인트, 소득-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9→20							19→21						
	취업 비율	연간 근로 시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취업 비율	연간 근로 시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남성	-0.014	-2	-0.069	0.001	-0.016	-0.002	0.004	-0.036	29	-0.362	-0.052	-0.055	0.009	0.016
여성	0.014	2	0.069	-0.001	0.016	0.002	-0.004	0.036	-29	0.362	0.052	0.055	-0.009	-0.016
18~34세	0.004	-29	-0.083	-0.040	-0.041	0.004	0.004	0.016	-44	-0.218	-0.068	-0.042	0.005	0.021
35~49세	-0.001	34	0.035	0.033	-0.007	0.004	0.008	-0.008	78	0.131	0.057	-0.086	0.015	0.037
50~64세	-0.032	-70	-0.012	-0.034	-0.019	0.001	0.001	-0.072	-110	-0.026	-0.098	0.010	0.008	-0.006
65세 이상	0.041	86	0.073	0.057	0.096	-0.014	-0.019	0.096	100	0.134	0.163	0.184	-0.043	-0.077
중졸 이하	-0.009	-27	0.078	0.020	0.076	0.002	-0.027	0.001	-95	0.134	0.081	0.158	-0.026	-0.050
고졸	0.000	37	-0.191	-0.045	-0.024	-0.001	-0.007	0.004	62	-0.380	-0.033	-0.038	-0.005	0.010
전문대졸	-0.013	-75	0.028	0.018	-0.008	0.002	0.011	0.025	71	0.493	0.070	0.043	0.009	0.002
4년제 대졸 이상	0.015	23	0.144	0.024	-0.032	-0.001	0.025	-0.021	-31	0.058	-0.077	-0.121	0.025	0.032
가구주	0.018	71	-0.044	-0.010	-0.011	0.003	-0.001	0.030	157	0.074	0.040	-0.013	-0.007	-0.011
배우자	-0.027	-65	0.073	0.009	0.020	0.001	0.003	-0.060	-178	0.065	-0.015	0.030	0.010	-0.008
기타 가구원	0.006	-21	-0.023	0.003	-0.007	-0.005	-0.002	0.028	-7	-0.171	-0.036	-0.017	-0.002	0.023
1인 가구	0.009	-4	-0.119	0.009	-0.012	-0.001	-0.019	0.103	140	0.254	0.292	0.142	-0.066	-0.056
2인 가구	0.016	28	-0.003	-0.002	0.080	0.003	0.003	0.004	-30	0.021	0.017	0.154	-0.002	-0.048
3인 가구	-0.015	-23	0.090	-0.017	-0.013	0.009	-0.001	-0.050	-55	-0.215	-0.118	-0.058	0.025	0.012
4인 이상 가구	-0.002	-1	-0.024	0.017	-0.044	-0.010	0.006	0.002	18	0.064	-0.019	-0.122	0.004	0.046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0.066	-82	-0.354	0.006	-0.062	0.000	0.013	-0.058	-129	0.072	0.055	-0.168	0.004	0.051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0.038	178	-0.103	-0.011	-0.077	0.000	0.015	0.041	274	-0.188	-0.069	-0.241	0.006	0.049
초등학생 동거 여성	0.003	-48	0.129	0.038	-0.026	0.006	0.018	0.014	-89	0.283	0.073	-0.129	0.017	0.054
초등학생 동거 남성	0.008	71	0.175	0.028	-0.049	-0.002	0.021	0.010	161	0.249	0.063	-0.125	0.012	0.064
상용근로자	0.031	54	0.105	0.083	0.033	-0.006	0.006	-0.002	90	0.145	0.035	0.014	0.005	0.011
임시근로자	-0.010	-85	-0.112	-0.028	-0.032	0.008	0.007	0.018	-46	-0.149	-0.048	-0.054	0.022	0.018
일용근로자	-0.073	-30	-0.270	-0.009	0.053	0.001	-0.016	0.058	73	-0.154	0.041	0.192	-0.030	-0.049
저활 공공근로·노인일자리	-0.095	-106	-0.362	-0.035	-0.012	0.034	0.018	-0.079	-125	-0.328	-0.402	-0.128	0.130	0.078
고용주	0.021	280	-0.259	-0.006	-0.014	-0.016	-0.008	0.031	312	-0.224	-0.132	-0.217	0.017	0.058
자영업자	-0.006	-30	0.023	-0.030	-0.004	0.003	-0.006	0.013	57	0.410	0.079	0.006	-0.024	0.031
무급가족종사자	0.036	-42	-0.181	-0.085	-0.043	0.033	0.012	-0.001	-438	-0.421	-0.104	-0.199	0.038	0.059
실업자	-0.079	-210	0.661	0.010	-0.081	-0.027	-0.010	0.129	231	-0.970	-0.197	-0.363	0.034	0.057
비경제활동인구	0.006	20	0.032	-0.040	-0.008	-0.001	-0.004	-0.006	-45	0.074	0.027	0.064	-0.019	-0.039
직접고용	-0.005	-31	-0.061	0.059	0.028	0.001	0.004	0.008	62	0.019	0.024	0.048	0.009	0.005
간접고용	-0.029	8	-0.029	-0.060	-0.079	0.006	0.038	-0.058	-47	-0.410	-0.155	-0.219	0.043	0.062

164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4-11〉 계속

구분	19→20							19→21						
	취업 비율	연간 근로 시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취업 비율	연간 근로 시간	로그 개인 취업 소득	로그 가구 시장 소득	로그 가구 가처분 소득	시장 소득 빈곤갭	가처분 소득 빈곤갭
특수고용	0.063	148	0.295	-0.038	-0.023	-0.008	-0.011	0.059	-118	0.027	-0.227	-0.192	0.045	0.012
시간제	-0.086	-111	-0.232	-0.030	-0.019	0.004	-0.002	0.080	-3	0.129	-0.055	-0.038	-0.014	-0.007
전일제	0.018	22	0.008	0.060	0.025	0.000	0.007	-0.010	60	-0.054	0.005	0.019	0.019	0.015
1~4인 사업장	-0.016	-30	-0.181	-0.016	0.019	0.006	-0.008	-0.002	-126	0.034	-0.008	-0.017	0.000	0.018
5~29인 사업장	-0.013	-22	-0.043	0.029	0.012	0.002	0.006	-0.019	36	-0.293	-0.020	-0.020	0.014	0.020
30~299인 사업장	0.024	65	-0.001	0.012	0.000	0.001	0.005	0.055	211	0.284	-0.018	-0.026	0.011	0.018
300인 이상 사업장	0.032	22	0.166	0.053	-0.007	-0.005	0.009	0.013	44	0.171	0.048	0.026	0.000	0.000
관리자	0.034	313	0.116	0.047	0.040	0.010	0.009	0.071	368	0.114	0.026	0.047	0.027	0.03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6	4	-0.013	0.053	0.025	-0.004	0.000	0.017	199	0.124	0.015	-0.039	0.005	0.030
사무 종사자	0.043	8	-0.031	0.038	0.025	-0.003	-0.007	0.002	-15	-0.090	0.037	0.017	0.009	-0.005
서비스 종사자	-0.006	-36	-0.133	0.018	-0.027	-0.011	0.011	0.025	-39	0.036	0.062	-0.068	-0.015	0.060
판매 종사자	-0.050	-120	-0.187	-0.126	-0.077	0.028	0.011	-0.046	-200	-0.085	-0.070	0.027	0.036	-0.0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54	93	0.369	0.158	0.187	-0.006	-0.034	0.032	-79	0.704	0.216	0.237	-0.062	-0.06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15	5	0.009	0.005	0.031	-0.006	0.008	0.041	11	-0.057	-0.087	-0.017	0.019	0.01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00	2	-0.074	0.010	-0.016	0.000	0.002	-0.007	7	-0.020	-0.057	-0.079	-0.004	0.015
단순노무 종사자	-0.021	-9	-0.049	-0.019	-0.036	0.010	0.011	0.002	62	-0.079	-0.057	-0.056	0.017	0.028
개인취업소득 1분위	-0.019	-103	-0.030	-0.015	0.045	0.001	-0.019	0.007	-221	0.172	-0.032	-0.016	-0.006	-0.003
개인취업소득 2분위	-0.034	-43	-0.249	-0.015	-0.013	0.003	-0.005	-0.024	-85	-0.425	-0.049	-0.064	-0.003	0.021
개인취업소득 3분위	-0.005	-14	-0.021	0.078	0.043	-0.004	0.012	0.012	116	0.100	0.042	0.066	0.007	0.015
개인취업소득 4분위	0.047	82	0.009	0.017	-0.002	0.008	0.010	0.034	202	0.143	-0.015	0.037	0.020	0.007
개인취업소득 5분위	0.025	96	0.151	0.018	-0.037	-0.001	0.013	0.011	128	0.157	0.046	-0.080	0.012	0.035
가구시장소득 1분위	-0.006	-11	-0.072	-0.024	0.018	-0.009	-0.009	0.020	-6	-0.100	0.050	0.004	-0.047	-0.040
가구시장소득 2분위	0.016	31	-0.007	-0.029	0.032	0.010	-0.010	0.011	1	0.072	-0.020	0.166	0.008	-0.063
가구시장소득 3분위	-0.025	-55	0.075	0.014	-0.003	0.004	0.004	-0.048	-133	-0.252	-0.049	0.038	0.026	0.025
가구시장소득 4분위	0.005	14	0.156	0.002	-0.031	0.002	0.007	-0.008	-39	0.185	-0.028	-0.113	0.008	0.045
가구시장소득 5분위	0.010	22	-0.146	0.036	-0.017	-0.005	0.008	0.026	183	0.124	0.049	-0.083	0.010	0.037

주: 제2절의 식(3) δ 를 추정된 결과이다. 원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이다. $p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나머지 집단과 비교할 때, 50~64세 중년의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 비율과 가처분소득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미취학 아동과 동거하는 여성의 2019~2020년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2019~2021년 가처분소득 빈곤갭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초·중학생과 동거하는 여성·남성의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일용근로자,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의 2019~2020년 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019~2021년에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시간제의 2019~2020년 취업 비율과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2019~2020년 취업 비율과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 시장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2020년에 판매 종사자의 취업 비율과 시장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빈곤갭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시장소득 빈곤갭의 상대적인 증가는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개인취업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분위의 근로시간과 2분위의 개인취업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4분위와 5분위의 2019~2020년 취업 비율과 2019~2021년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단, 2019~2021년에 4분위의 시장소득 빈곤갭과 5분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언급해둔다.

제5절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의 소득·빈곤 효과 변화

제5절에서는 고용보험급여,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이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앞서 정의한 하위집단별로 분석하되, 코로

나19 이후 공적이전이 코로나19 전후 소득이 감소한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4-12>와 같이 T1→T2 소득분위 상승/유지/하락 집단을 정의하여 하위집단에 추가한다.

<표 4-12>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시장소득 분위이동 정의

구분	정의
개인취업소득분위 상승	비취업→1~5분위, 1분위→2~5분위, 2분위→3~5분위, 3분위→4~5분위, 4분위→5분위
개인취업소득분위 유지	비취업→비취업, 1분위→1분위, 2분위→2분위, 3분위→3분위, 4분위→4분위, 5분위→5분위
개인취업소득분위 하락	1분위→비취업, 2분위→비취업~1분위, 3분위→비취업~2분위, 4분위→비취업~3분위, 5분위→비취업~4분위
가구시장소득분위 상승	1분위→2~5분위, 2분위→3~5분위, 3분위→4~5분위, 4분위→5분위
가구시장소득분위 유지	1분위→1분위, 2분위→2분위, 3분위→3분위, 4분위→4분위, 5분위→5분위
가구시장소득분위 하락	2분위→1분위, 3분위→1~2분위, 4분위→1~3분위, 5분위→1~4분위

주: $t \rightarrow t+1$ 또는 $t \rightarrow t+2$ 표본에 대해 전 시점 및 후 시점 소득계층을 조합하여 정의하였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표 4-13> 공적이전소득 효과 정의

구분	정의
소득 효과	<균등화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로그값 - <균등화 시장소득> 로그값
빈곤 효과	<균등화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빈곤 - <균등화 시장소득> 빈곤
빈곤갭 효과	<균등화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빈곤갭 - <균등화 시장소득> 빈곤갭

주: 가구 내에서 합산한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자료: 필자가 작성하였다.

제5절에서는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효과를 <표 4-13>과 같이 소득 효과, 빈곤 효과, 빈곤갭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만약 공적이전 기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였다면, 코로나19 전후 시장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였고 시장소득 빈곤/빈곤갭 증가에 대응하여 공적

이전의 빈곤/빈곤갭 감소 효과가 강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제5절에서는 시장소득에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합산함에 따른 로그 소득 변화를 공적이전의 소득 효과로 정의하고, 시장소득에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을 합산한 소득으로 측정한 빈곤/빈곤갭과 시장소득 빈곤/빈곤갭의 차이를 공적이전의 빈곤/빈곤갭 효과로 정의하여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시장소득 빈곤율이 $a\%$ 이고 시장소득에 긴급복지지원을 합산한 소득의 빈곤율이 $b\%$ 라면 긴급복지지원의 빈곤 효과를 $(b-a)\%$ 포인트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긴급복지지원 확대에 따라 2019~2020년에 긴급복지지원의 빈곤 효과가 $c\%$ 포인트에서 $d\%$ 포인트로 변화하였다면, 코로나19 전후 긴급복지지원 빈곤 효과 변화를 $(d-c)\%$ 포인트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기준중위소득의 점진적인 인상 등으로 $t \rightarrow t+1$ 긴급복지지원 빈곤 효과가 평균적으로 $e\%$ 포인트에서 $f\%$ 포인트로 변화하였다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2019~2020년에 긴급복지지원 빈곤 효과가 $(f-e)\%$ 포인트 변화하였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에 대응한 2019~2020년 긴급복지지원 빈곤 효과 변화를 $(d-c)-(f-e)\%$ 포인트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별 공적이전소득 항목의 소득 효과, 빈곤 효과, 빈곤갭 효과를 <표 4-13>과 같이 개인 수준에서 변수로 조작하고, 식(1), 식(2), 식(3)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1. 전체 18세 이상 집단 분석 결과

우선 <표 4-14>와 <표 4-15>에는 추가적인 하위집단 설정에 활용된 개인취업소득분위 및 가구시장소득분위 변화를 보고하였다.

〈표 4-14〉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개인취업소득분위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t→t+1 변화										t→t+2 변화											
	T2		T2		T2		T2		T2		T2		T2		T2		T2		T2			
	비취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비취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비취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19→20 19→21 (A)	T1 비취업	84.0	8.6	4.6	2.0	0.7	0.1	100.0	74.6	10.9	7.0	5.1	1.8	0.6	100.0	74.6	10.9	7.0	5.1	1.8	0.6	100.0
	T1 1분위	21.5	57.0	14.5	5.3	1.0	0.7	100.0	22.6	49.9	15.8	7.1	2.8	1.8	100.0	22.6	49.9	15.8	7.1	2.8	1.8	100.0
	T1 2분위	16.7	11.9	45.7	19.5	5.5	0.7	100.0	18.7	13.2	39.3	20.1	7.4	1.2	100.0	18.7	13.2	39.3	20.1	7.4	1.2	100.0
	T1 3분위	8.7	3.4	16.7	54.1	15.5	1.6	100.0	9.7	4.0	19.0	41.7	24.2	1.4	100.0	9.7	4.0	19.0	41.7	24.2	1.4	100.0
	T1 4분위	3.6	2.9	7.6	12.2	59.8	13.9	100.0	5.3	4.3	5.3	16.0	49.8	19.3	100.0	5.3	4.3	5.3	16.0	49.8	19.3	100.0
T1 5분위	2.5	0.8	1.0	1.6	14.3	79.8	100.0	2.4	1.4	2.6	3.0	13.4	77.2	100.0	2.4	1.4	2.6	3.0	13.4	77.2	100.0	
코로나19 이전 (B)	T1 비취업	82.3	9.4	5.2	2.1	0.8	0.2	100.0	74.6	10.7	7.3	5.1	1.9	0.5	100.0	74.6	10.7	7.3	5.1	1.9	0.5	100.0
	T1 1분위	16.8	57.8	16.4	6.1	2.1	0.7	100.0	22.8	49.2	17.1	6.2	3.6	1.0	100.0	22.8	49.2	17.1	6.2	3.6	1.0	100.0
	T1 2분위	11.9	10.5	49.6	22.8	4.4	0.8	100.0	15.5	13.2	42.2	21.6	6.4	1.2	100.0	15.5	13.2	42.2	21.6	6.4	1.2	100.0
	T1 3분위	7.4	3.0	16.9	51.0	19.7	2.0	100.0	10.0	4.2	16.5	44.6	21.9	2.8	100.0	10.0	4.2	16.5	44.6	21.9	2.8	100.0
	T1 4분위	3.4	1.3	3.3	13.9	62.7	15.4	100.0	4.8	2.0	5.0	13.8	54.9	19.5	100.0	4.8	2.0	5.0	13.8	54.9	19.5	100.0
T1 5분위	1.4	0.8	0.8	2.0	11.2	83.8	100.0	3.0	1.2	1.1	2.1	12.4	80.1	100.0	3.0	1.2	1.1	2.1	12.4	80.1	100.0	
(A-B)	T1 비취업	1.7	-0.8	-0.6	-0.1	-0.1	-0.1	0.0	0.0	0.2	-0.3	0.1	-0.1	0.0	0.0	0.0	0.2	-0.3	0.1	-0.1	0.0	0.0
	T1 1분위	4.7	-0.8	-1.9	-0.8	-1.1	0.0	0.0	-0.3	0.7	-1.3	0.9	-0.8	0.8	0.0	-0.3	0.7	-1.3	0.9	-0.8	0.8	0.0
	T1 2분위	4.9	1.4	-3.9	-3.4	1.1	-0.1	0.0	3.3	0.1	-2.9	-1.5	1.0	0.1	0.0	3.3	0.1	-2.9	-1.5	1.0	0.1	0.0
	T1 3분위	1.3	0.5	-0.2	3.1	-4.2	-0.4	0.0	-0.4	-0.2	2.5	-2.9	2.2	-1.4	0.0	-0.4	-0.2	2.5	-2.9	2.2	-1.4	0.0
	T1 4분위	0.2	1.6	4.4	-1.8	-2.9	-1.5	0.0	0.5	2.2	0.4	2.2	-5.1	-0.2	0.0	0.5	2.2	0.4	2.2	-5.1	-0.2	0.0
T1 5분위	1.0	0.0	0.2	-0.4	3.1	-4.0	0.0	-0.6	0.1	1.5	0.9	1.1	-2.9	0.0	-0.6	0.1	1.5	0.9	1.1	-2.9	0.0	

주: (B)는 15→16, 16→17, 17→18, 18→19 표본 또는 15→17, 16→18, 17→19 표본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15〉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가구시장소득분위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t→t+1 변화					t→t+2 변화						
	T2 1분위	T2 2분위	T2 3분위	T2 4분위	T2 5분위	T2 1분위	T2 2분위	T2 3분위	T2 4분위	T2 5분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19→20 19→21 (A)	T1 1분위	81.9	14.6	2.3	1.0	0.1	79.2	15.3	3.5	1.3	0.8	100.0
	T1 2분위	16.4	52.9	22.6	6.7	1.5	17.3	45.4	26.6	7.9	2.9	100.0
	T1 3분위	4.3	21.1	44.6	26.9	3.0	7.2	22.1	38.4	26.4	6.0	100.0
	T1 4분위	1.8	6.8	21.3	49.6	20.4	1.8	12.1	18.1	43.2	24.9	100.0
	T1 5분위	0.6	1.7	6.0	16.6	75.1	1.1	3.4	7.5	20.9	67.1	100.0
코로나19 이전 (B)	T1 1분위	81.5	14.6	2.6	1.0	0.2	78.9	14.8	4.3	1.5	0.4	100.0
	T1 2분위	17.3	52.0	23.6	5.9	1.2	19.2	44.1	25.5	9.2	2.1	100.0
	T1 3분위	3.5	21.4	47.1	23.4	4.5	4.8	24.4	39.2	24.8	6.7	100.0
	T1 4분위	1.4	6.1	21.7	52.1	18.7	2.1	8.8	23.6	43.1	22.4	100.0
	T1 5분위	0.6	1.8	3.9	17.4	76.3	1.4	2.9	6.0	20.4	69.3	100.0
(A-B)	T1 1분위	0.4	0.0	-0.3	-0.1	-0.1	0.3	0.4	-0.9	-0.2	0.3	0.0
	T1 2분위	-0.9	0.9	-1.0	0.7	0.3	-1.9	1.3	1.1	-1.3	0.8	0.0
	T1 3분위	0.8	-0.3	-2.4	3.5	-1.5	0.0	-2.3	-0.9	1.6	-0.7	0.0
	T1 4분위	0.4	0.7	-0.4	-2.5	1.8	-0.4	3.3	-5.5	0.1	2.4	0.0
	T1 5분위	0.0	-0.1	2.0	-0.8	-1.2	-0.3	0.5	1.5	0.5	-2.2	0.0

주: (B)는 15→16, 16→17, 17→18, 18→19 표본 또는 15→17, 16→18, 17→19 표본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가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 4-14〉에서 2019~2020년 개인취업소득분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 비취업자의 84.0%가 2020년에 비취업 상태를 유지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 평균적으로 t시점 비취업자의 82.3%가 t+1 시점에 비취업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0년에 비취업자의 비취업 유지율이 1.7%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취업자의 입직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소득분위 상승 확률이 감소하였고 소득분위 하락 확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19가 평균적으로 개인취업소득 수준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분위 상승을 억제하였고 고소득층의 소득분위 하락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2019~2021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코로나19 직후의 소득 충격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이후 가구시장소득분위 변화를 보고하였다. 개인취업소득분위 변화와 달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전후 가구시장소득분위 변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9년 가구시장소득 1분위의 18.1%(=14.6%+2.3%+1.0%+0.1%)가 2020년에 소득분위 상승을 경험하였고, 코로나19 이전에 t시점 가구시장소득 1분위의 18.5%(=14.6%+2.6%+1.0%+0.2%)가 t+1시점에 소득분위 상승을 경험하였다. 즉, 가구시장소득 1분위의 소득분위 상승 확률이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취업자 내 상대적 소득 순위인 개인취업소득분위의 변화가 비취업자 규모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가구시장소득분위는 전체 인구 내 상대적 소득순위이므로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에도 불구하고 가구시장소득분위 변화 패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6〉에서는 2019~2020년 공적이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고용보험급여를 살펴보면, 수급 비율이 2019년 6.0%에서 2020년 7.4%로 1.4%포인트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1년 동안 고용보험급여 수급 비율이 평균적으로 0.0%포인트 증가하였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수급 비율이 1.4%포인트 증가하였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9~2020년에 고용보험급여가 연간 12.5만 원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이전에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1.7만 원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비교하면 2019~2020년에 연간 10.8만 원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이 0.010 로그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고용보험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가 2019년 0.3%포인트에서 2020년 0.7%포인트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이전 고용보험급여 빈곤 효과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고용보험급여 빈곤 감소 효과는 0.4%포인트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고용보험급여 빈곤갭 감소 효과는 0.3%포인트 증가하였다. 요컨대, 고용보험급여가 코로나19 직후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을 일정하게 완화하였다. 취업지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급여의 소득·빈곤·빈곤갭 효과 변화가 전 시점 취업자와 비취업자에게 대체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19~2020년에 수급 비율이 0.1%포인트 증가한 데 그쳤고, 급여와 소득, 빈곤, 빈곤갭 효과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주로 2019년 확대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에 1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비율이 평균적으로 1.1%포인트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비율 및 급여가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17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4-16>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t→t+1 변화

(단위: 비율·빈곤·빈곤갭·포인트, 급여-만 원/년, 2021년 실질, 소득-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9→20			코로나19 이전 t→t+1					(A-B)	
		19	20	19 → 20 변화 (A)	15 → 16 변화	16 → 17 변화	17 → 18 변화	18 → 19 변화	결합 변화 (B)		
전체	고용 보험 급여	수급 비율	0.060	0.074	0.014	-0.008	0.006	0.003	0.000	0.000	0.014
		균등화 급여	22.9	35.4	12.5	-1.9	2.6	4.7	1.5	1.7	10.8
		소득 효과	0.008	0.019	0.011	-0.001	0.001	0.001	0.000	0.000	0.010
		빈곤 효과	-0.003	-0.007	-0.004	0.001	-0.001	0.000	0.000	0.000	-0.004
		빈곤갭 효과	-0.001	-0.005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3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비율	0.110	0.111	0.001	0.004	0.011	-0.007	0.035	0.011	-0.010
		균등화 급여	8.0	7.6	-0.4	0.0	0.0	-0.2	4.1	1.0	-1.4
		소득 효과	0.005	0.005	0.000	0.000	0.000	0.000	0.003	0.001	-0.001
		빈곤 효과	-0.002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0	0.001
		빈곤갭 효과	-0.001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초 보장 급여	수급 비율	0.062	0.062	0.000	0.000	0.000	0.003	0.002	0.001	-0.001
		균등화 급여	25.1	25.7	0.6	1.8	1.2	-0.9	-0.3	0.4	0.2
		소득 효과	0.073	0.084	0.011	0.000	0.006	-0.003	0.001	0.001	0.010
		빈곤 효과	-0.003	-0.005	-0.002	0.000	0.001	-0.003	0.003	0.000	-0.002
		빈곤갭 효과	-0.013	-0.013	0.000	0.000	0.000	0.001	0.001	0.000	0.000
	긴급 복지 지원	수급 비율	0.001	0.003	0.002	0.000	0.000	0.002	-0.001	0.000	0.002
		균등화 급여	0.1	0.4	0.2	0.0	-0.2	0.3	-0.2	0.0	0.2
		소득 효과	0.000	0.002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2
		빈곤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재난 지원금	수급 비율	0.000	0.999	0.999	0.000	0.000	0.000	0.000	0.000	0.999	
	균등화 급여	0.0	87.5	87.5	0.0	0.0	0.0	0.0	0.0	87.5	
	소득 효과	0.000	0.092	0.092	0.000	0.000	0.000	0.000	0.000	0.092	
	빈곤 효과	0.000	-0.010	-0.0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0	
	빈곤갭 효과	0.000	-0.010	-0.0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0	
순공적 이전	수급 비율	0.401	0.490	0.090	0.010	0.002	0.006	0.004	0.005	0.084	
	균등화 급여	-73.7	2.6	76.3	-3.3	-6.3	1.7	2.4	-1.3	77.6	
	소득 효과	0.159	0.221	0.062	-0.003	0.008	0.016	0.013	0.009	0.053	
	빈곤 효과	-0.054	-0.074	-0.021	-0.001	-0.002	-0.002	0.001	-0.001	-0.019	
	빈곤갭 효과	-0.062	-0.071	-0.009	-0.002	-0.001	-0.006	-0.004	-0.003	-0.006	

〈표 4-16〉 계속

구분		19→20			코로나19 이전 t→t+1					(A-B)	
		19	20	19 → 20 변화 (A)	15 → 16 변화	16 → 17 변화	17 → 18 변화	18 → 19 변화	결합 변화 (B)		
전시점 취업자	고용 보험 급여	수급 비율	0.060	0.085	0.024	0.002	0.017	0.014	0.008	0.010	0.014
		균등화 급여	22.7	41.2	18.5	-0.2	5.1	10.1	6.7	5.5	13.0
		소득 효과	0.007	0.017	0.010	0.000	0.002	0.003	0.002	0.002	0.009
		빈곤 효과	-0.002	-0.007	-0.005	0.000	-0.001	-0.001	0.000	-0.001	-0.004
		빈곤갭 효과	-0.001	-0.004	-0.003	0.000	-0.001	0.000	0.000	0.000	-0.003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비율	0.120	0.118	-0.002	0.006	0.007	-0.007	0.040	0.012	-0.014
		균등화 급여	8.6	8.1	-0.6	0.3	-0.2	-0.2	4.5	1.1	-1.7
		소득 효과	0.004	0.005	0.001	0.000	0.000	0.000	0.002	0.001	0.000
		빈곤 효과	-0.002	-0.001	0.000	-0.002	0.001	0.001	-0.001	0.000	0.001
		빈곤갭 효과	-0.001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초 보장 급여	수급 비율	0.030	0.030	-0.001	-0.001	-0.001	0.002	0.000	0.000	-0.001
		균등화 급여	7.8	8.4	0.6	0.7	0.4	0.1	-0.5	0.2	0.4
		소득 효과	0.008	0.011	0.003	0.001	0.001	0.001	0.000	0.001	0.002
		빈곤 효과	-0.002	-0.003	-0.002	0.001	0.000	-0.002	0.002	0.000	-0.002
		빈곤갭 효과	-0.003	-0.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긴급 복지 지원	수급 비율	0.001	0.002	0.001	0.000	0.000	0.001	-0.001	0.000	0.001
		균등화 급여	0.2	0.2	0.0	0.0	-0.2	0.2	-0.3	-0.1	0.1
		소득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빈곤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재난 지원금	수급 비율	0.000	0.999	0.999	0.000	0.000	0.000	0.000	0.000	0.999	
	균등화 급여	0.0	90.8	90.8	0.0	0.0	0.0	0.0	0.0	90.8	
	소득 효과	0.000	0.039	0.039	0.000	0.000	0.000	0.000	0.000	0.039	
	빈곤 효과	0.000	-0.010	-0.0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0	
	빈곤갭 효과	0.000	-0.006	-0.006	0.000	0.000	0.000	0.000	0.000	-0.006	
순공적 이전	수급 비율	0.301	0.405	0.104	0.014	0.001	0.011	0.005	0.008	0.096	
	균등화 급여	-236.2	-151.7	84.5	-12.8	-16.4	1.0	0.4	-6.8	91.3	
	소득 효과	-0.007	0.040	0.046	-0.002	-0.003	0.011	0.009	0.004	0.042	
	빈곤 효과	-0.023	-0.046	-0.022	0.000	0.001	-0.006	0.003	-0.001	-0.022	
	빈곤갭 효과	-0.019	-0.028	-0.009	0.000	0.002	-0.004	-0.003	-0.002	-0.007	

〈표 4-16〉 계속

구분		19→20			코로나19 이전 t→t+1				결합 변화 (B)	(A-B)	
		19	20	19 → 20 변화 (A)	15 → 16 변화	16 → 17 변화	17 → 18 변화	18 → 19 변화			
전시점 비취 업자	고용 보험 급여	수급 비율	0.059	0.055	-0.005	-0.024	-0.012	-0.014	-0.014	-0.016	0.011
		균등화 급여	23.1	25.1	2.1	-4.7	-1.5	-3.9	-7.3	-4.3	6.4
		소득 효과	0.011	0.022	0.011	-0.003	-0.001	-0.002	-0.004	-0.003	0.014
		빈곤 효과	-0.004	-0.007	-0.003	0.001	-0.001	0.002	0.000	0.000	-0.003
		빈곤갭 효과	-0.002	-0.006	-0.003	0.000	0.000	0.001	0.000	0.000	-0.004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비율	0.093	0.099	0.006	0.001	0.016	-0.006	0.026	0.009	-0.003
		균등화 급여	6.8	6.7	-0.1	-0.4	0.5	-0.3	3.4	0.8	-0.9
		소득 효과	0.007	0.006	-0.002	0.000	0.000	0.000	0.003	0.001	-0.003
		빈곤 효과	-0.003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0	0.001
		빈곤갭 효과	-0.001	-0.00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기초 보장 급여	수급 비율	0.118	0.120	0.001	0.001	0.002	0.005	0.004	0.003	-0.002
		균등화 급여	55.4	56.1	0.7	3.4	2.5	-2.5	0.0	0.8	-0.1
		소득 효과	0.186	0.212	0.026	-0.001	0.014	-0.009	0.002	0.002	0.024
		빈곤 효과	-0.006	-0.007	-0.001	-0.002	0.002	-0.004	0.003	0.000	-0.001
		빈곤갭 효과	-0.030	-0.030	0.000	0.000	-0.001	0.003	0.001	0.001	-0.001
	긴급 복지 지원	수급 비율	0.001	0.005	0.004	0.001	-0.001	0.003	-0.002	0.000	0.004
		균등화 급여	0.1	0.7	0.6	0.1	-0.1	0.5	-0.2	0.1	0.5
		소득 효과	0.001	0.004	0.003	-0.002	0.000	0.000	0.000	-0.001	0.004
		빈곤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재난 지원금	수급 비율	0.000	0.999	0.999	0.000	0.000	0.000	0.000	0.000	0.999	
	균등화 급여	0.0	81.7	81.7	0.0	0.0	0.0	0.0	0.0	81.7	
	소득 효과	0.000	0.186	0.186	0.000	0.000	0.000	0.000	0.000	0.186	
	빈곤 효과	0.000	-0.010	-0.010	0.000	0.000	0.000	0.000	0.000	-0.010	
	빈곤갭 효과	0.000	-0.018	-0.018	0.000	0.000	0.000	0.000	0.000	-0.018	
순공적 이전	수급 비율	0.576	0.640	0.065	0.004	0.003	-0.001	0.001	0.002	0.063	
	균등화 급여	212.1	273.9	61.8	11.2	9.9	2.8	5.9	7.5	54.3	
	소득 효과	0.451	0.540	0.089	-0.005	0.027	0.025	0.019	0.017	0.073	
	빈곤 효과	-0.107	-0.124	-0.018	-0.003	-0.007	0.005	-0.003	-0.002	-0.016	
	빈곤갭 효과	-0.137	-0.147	-0.011	-0.005	-0.005	-0.007	-0.004	-0.005	-0.005	

주: (B)는 15→16, 16→17, 17→18, 18→19 표본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순공적이전은 총 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값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기초보장급여 수급 비율은 2019~2020년에 6.2%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는데,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기초보장급여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기초보장 수급 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수급 비율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기초보장급여 빈곤 감소 효과가 0.2%포인트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언급할만하다.

긴급복지지원 수급 비율은 2019년 0.1%에서 2020년 0.3%로 0.2%포인트 증가하였다. 긴급복지지원 수급규모가 매우 작지만, 코로나19 전후 수급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특히 2019년 비취업자의 긴급복지지원 수급 비율이 2019년 0.1%에서 2020년 0.5%로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긴급복지지원이 비취업자에 대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전반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수급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소득·빈곤·빈곤갭 효과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재난지원금의 소득·빈곤·빈곤갭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2020년 5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2020년 재난지원금 수급 비율은 99.9%로 관찰되었다. 2020년 재난지원금 급여는 연간 87.5만 원이었고, 재난지원금이 소득을 0.092 로그포인트 증가시켰으며 빈곤 및 빈곤갭을 각각 1.0%포인트 감소시켰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시장소득 빈곤 및 빈곤갭이 2019~2020년에 각각 2.2%포인트, 1.4%포인트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표 4-7〉 참조),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의 빈곤 및 빈곤갭 충격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업지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재난지원금이 2019년 비취업자의 빈곤갭을 감소시킨 효과가 1.8%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컸다.

176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4-17〉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t→t+2 변화

(단위: 비율·빈곤·빈곤갭·포인트, 급여-만 원/년, 2021년 실질, 소득-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9→21			코로나19 이전 t→t+2				(A-B)	
		19	21	19 → 21 변화 (A)	15 → 17 변화	16 → 18 변화	17 → 19 변화	결합 변화 (B)		
전체	고용 보험 급여	수급 비율	0.062	0.080	0.018	-0.003	0.009	0.002	0.003	0.015
		균등화 급여	23.9	35.8	11.9	0.2	7.2	6.4	4.6	7.3
		소득 효과	0.008	0.015	0.007	0.000	0.002	0.001	0.001	0.006
		빈곤 효과	-0.003	-0.007	-0.004	0.000	-0.001	0.000	-0.001	-0.003
		빈곤갭 효과	-0.001	-0.003	-0.002	0.000	0.000	0.000	0.000	-0.002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비율	0.111	0.104	-0.007	0.015	0.005	0.029	0.016	-0.023
		균등화 급여	7.9	7.2	-0.7	0.1	0.0	3.9	1.4	-2.1
		소득 효과	0.005	0.006	0.000	0.000	0.000	0.003	0.001	-0.001
		빈곤 효과	-0.002	-0.003	-0.001	0.000	0.001	0.000	0.000	-0.001
		빈곤갭 효과	-0.001	-0.001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기초 보장 급여	수급 비율	0.060	0.062	0.002	0.000	0.003	0.005	0.003	-0.001
		균등화 급여	24.7	26.2	1.6	3.4	0.3	-1.1	0.8	0.7
		소득 효과	0.073	0.083	0.010	0.008	0.003	-0.001	0.003	0.006
		빈곤 효과	-0.003	-0.004	-0.001	0.001	-0.002	0.000	-0.001	-0.001
		빈곤갭 효과	-0.013	-0.013	0.000	-0.001	0.001	0.002	0.001	-0.001
	긴급 복지 지원	수급 비율	0.001	0.002	0.001	-0.001	0.001	0.000	0.000	0.001
		균등화 급여	0.2	0.2	0.0	-0.2	0.2	0.1	0.0	0.0
		소득 효과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빈곤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재난 지원금	수급 비율	0.000	0.943	0.943	0.000	0.000	0.000	0.000	0.943	
	균등화 급여	0.0	79.8	79.8	0.0	0.0	0.0	0.0	79.8	
	소득 효과	0.000	0.072	0.072	0.000	0.000	0.000	0.000	0.072	
	빈곤 효과	0.000	-0.010	-0.010	0.000	0.000	0.000	0.000	-0.010	
	빈곤갭 효과	0.000	-0.008	-0.008	0.000	0.000	0.000	0.000	-0.008	
순공적 이전	수급 비율	0.399	0.478	0.079	0.009	0.007	0.010	0.009	0.070	
	균등화 급여	-68.1	-11.6	56.5	-8.4	-0.8	5.6	-1.1	57.6	
	소득 효과	0.160	0.205	0.045	0.006	0.027	0.033	0.022	0.023	
	빈곤 효과	-0.054	-0.080	-0.026	-0.002	-0.004	-0.002	-0.003	-0.023	
	빈곤갭 효과	-0.061	-0.069	-0.008	-0.003	-0.006	-0.010	-0.006	-0.002	

〈표 4-17〉 계속

구분		19→21			코로나19 이전 t→t+2				(A-B)	
		19	21	19 → 21 변화 (A)	15 → 17 변화	16 → 18 변화	17 → 19 변화	결합 변화 (B)		
전시점 취업자	고용 보험 급여	수급 비율	0.063	0.097	0.035	0.009	0.020	0.019	0.016	0.019
		균등화 급여	23.4	43.0	19.6	3.2	11.6	15.3	10.1	9.5
		소득 효과	0.007	0.018	0.011	0.002	0.004	0.005	0.004	0.007
		빈곤 효과	-0.002	-0.008	-0.006	-0.001	-0.002	-0.002	-0.002	-0.004
		빈곤갭 효과	-0.001	-0.003	-0.003	-0.001	-0.001	-0.001	-0.001	-0.002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비율	0.120	0.109	-0.011	0.013	-0.002	0.030	0.014	-0.025
		균등화 급여	8.6	7.6	-1.0	0.2	-0.5	4.1	1.3	-2.3
		소득 효과	0.004	0.005	0.001	0.000	0.000	0.002	0.001	0.000
		빈곤 효과	-0.002	-0.003	-0.002	-0.001	0.001	0.000	0.000	-0.002
		빈곤갭 효과	-0.001	-0.001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기초 보장 급여	수급 비율	0.028	0.028	0.000	-0.001	0.002	0.003	0.001	-0.001
		균등화 급여	6.9	8.2	1.3	1.8	0.6	0.1	0.8	0.5
		소득 효과	0.007	0.012	0.005	0.004	0.004	0.003	0.004	0.001
		빈곤 효과	-0.002	-0.003	-0.002	0.000	-0.002	0.001	0.000	-0.002
		빈곤갭 효과	-0.003	-0.003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긴급 복지 지원	수급 비율	0.001	0.001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균등화 급여	0.2	0.0	-0.1	-0.1	0.0	0.1	0.0	-0.1
		소득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빈곤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재난 지원금	수급 비율	0.000	0.944	0.944	0.000	0.000	0.000	0.000	0.944	
	균등화 급여	0.0	85.2	85.2	0.0	0.0	0.0	0.0	85.2	
	소득 효과	0.000	0.034	0.034	0.000	0.000	0.000	0.000	0.034	
	빈곤 효과	0.000	-0.012	-0.012	0.000	0.000	0.000	0.000	-0.012	
	빈곤갭 효과	0.000	-0.005	-0.005	0.000	0.000	0.000	0.000	-0.005	
순공적 이전	수급 비율	0.296	0.394	0.098	0.013	0.013	0.023	0.017	0.081	
	균등화 급여	-237.2	-179.4	57.7	-24.6	-3.6	7.8	-6.6	64.3	
	소득 효과	-0.009	0.029	0.038	-0.006	0.023	0.028	0.015	0.023	
	빈곤 효과	-0.022	-0.049	-0.027	0.001	-0.007	-0.005	-0.004	-0.023	
	빈곤갭 효과	-0.018	-0.024	-0.006	0.001	-0.007	-0.011	-0.006	0.000	

〈표 4-17〉 계속

구분		19→21			코로나19 이전 t→t+2				(A-B)	
		19	21	19 → 21 변화 (A)	15 → 17 변화	16 → 18 변화	17 → 19 변화	결합 변화 (B)		
전시점 비취 업자	고용 보험 급여	수급 비율	0.062	0.050	-0.012	-0.021	-0.008	-0.026	-0.019	0.007
		균등화 급여	24.8	23.0	-1.8	-4.7	0.0	-8.3	-4.4	2.6
		소득 효과	0.012	0.011	0.000	-0.004	-0.001	-0.007	-0.004	0.004
		빈곤 효과	-0.005	-0.004	0.001	0.001	0.000	0.004	0.002	-0.001
		빈곤갭 효과	-0.003	-0.003	-0.001	0.000	0.001	0.002	0.001	-0.002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비율	0.093	0.095	0.002	0.018	0.018	0.027	0.021	-0.019
		균등화 급여	6.8	6.5	-0.3	0.0	0.7	3.5	1.4	-1.7
		소득 효과	0.007	0.007	-0.001	0.000	0.001	0.004	0.002	-0.003
		빈곤 효과	-0.002	-0.003	-0.001	0.000	0.001	0.000	0.000	-0.001
		빈곤갭 효과	-0.001	-0.002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기초 보장 급여	수급 비율	0.117	0.123	0.006	0.002	0.006	0.008	0.005	0.000
		균등화 급여	56.1	58.1	2.0	6.0	-0.3	-3.1	0.8	1.2
		소득 효과	0.189	0.208	0.019	0.013	0.002	-0.007	0.003	0.016
		빈곤 효과	-0.006	-0.006	0.000	0.001	-0.003	-0.002	-0.001	0.001
		빈곤갭 효과	-0.030	-0.030	0.001	-0.001	0.003	0.005	0.003	-0.002
	긴급 복지 지원	수급 비율	0.001	0.004	0.003	-0.001	0.001	0.000	0.000	0.003
		균등화 급여	0.1	0.4	0.3	-0.3	0.4	0.1	0.1	0.3
		소득 효과	0.001	0.002	0.001	-0.003	0.000	-0.001	-0.001	0.003
		빈곤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재난 지원금	수급 비율	0.000	0.941	0.941	0.000	0.000	0.000	0.000	0.941	
	균등화 급여	0.0	70.1	70.1	0.0	0.0	0.0	0.0	70.1	
	소득 효과	0.000	0.137	0.137	0.000	0.000	0.000	0.000	0.137	
	빈곤 효과	0.000	-0.007	-0.007	0.000	0.000	0.000	0.000	-0.007	
	빈곤갭 효과	0.000	-0.012	-0.012	0.000	0.000	0.000	0.000	-0.012	
순공적 이전	수급 비율	0.581	0.627	0.045	0.002	-0.003	-0.011	-0.004	0.050	
	균등화 급여	231.5	285.8	54.3	17.4	3.8	2.0	7.7	46.6	
	소득 효과	0.460	0.517	0.057	0.024	0.033	0.043	0.033	0.024	
	빈곤 효과	-0.111	-0.135	-0.024	-0.008	0.001	0.003	-0.001	-0.023	
	빈곤갭 효과	-0.138	-0.149	-0.011	-0.008	-0.006	-0.008	-0.007	-0.004	

주: (B)는 15→17, 16→18, 17→19 표본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순공적이전은 총공적이전 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값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총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순공적이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제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전후 국민연금의 성숙과 기초연금의 인상,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공적이전의 증가가 짐작된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에, 공적이전지출보다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순공적이전 변화가 소득 증가에 기여한 집단과 공적이전소득보다 공적이전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순공적이전 변화가 소득 감소에 기여한 집단이 존재할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순공적이전의 수급 비율¹⁷⁾이 2019년 40.1%에서 2020년 49.0%로 9.0%포인트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전에 1년 동안 순공적이전의 수급 비율이 평균적으로 0.5%포인트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019~2020년에 순공적이전의 수급 비율이 8.4%포인트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순공적이전 평균은 2019년 연간 -73.7만 원에서 2020년 연간 2.6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덕분에 순공적이전 평균이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순공적이전이 크게 증가한 결과,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순공적이전의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가 각각 1.9%포인트, 0.6%포인트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시장소득 빈곤 및 빈곤갭 변화가 2.2%포인트, 1.4%포인트였으므로(〈표 4-7〉 참조), 순공적이전 확대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상당히 완화하였지만,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순공적이전의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 증가에 재난지원금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고용보험급여가 적지 않게 기여하

17) 서술의 편의를 위해, 순공적이전이 양의 값인 집단을 수급자로 정의한다.

였으며, 기초보장급여 등과 같은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취업지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순공적이전의 소득 효과 변화는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지만 빈곤·빈곤갭 효과 변화는 비취업자보다 취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성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표 4-17>에는 2019~2021년 공적이전 효과를 보고하였다. <표 4-16>의 2019~2020년 변화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관찰되었던 고용보험급여의 소득·빈곤·빈곤갭 효과 강화가 대체로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빈곤·빈곤갭 효과 변화는 2019~2020년과 마찬가지로 2019~2021년에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빈곤·빈곤갭 효과는 2019~2020년과 마찬가지로 2019~2021년에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2021년 재난지원금 수급 비율이 94.3%로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주로 2021년 9월 전국민의 88%에게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단, 재난지원금 빈곤갭 감소 효과가 2021년에 0.8%포인트였는데, 2020년의 1.0%포인트보다는 조금 작았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1년에 순공적이전의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가 각각 2.3%포인트, 0.2%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4-18>에는 제2절의 식(1)과 식(2)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변화를 추정하였다.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지 않고 식(1)로 추정한 β 는 <표 4-16>과 <표 4-17>에 보고한 (A-B)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선형 추이와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를 통제하여 추정한 식(2)의 β 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표 4-18〉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변화

(단위: 비율·빈곤·빈곤갭·포인트, 급여-만 원/년, 2021년 실질, 소득-로그 만 원/년, 2021년 실질)

구분		19→20		19→21		
		식(1) β	식(2) β	식(1) β	식(2) β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 통제		×	○	×	○	
전체	고용 보험 급여	수급 비율	0.014+	0.008	0.015+	0.008
		균등화 급여	10.8**	7.8	7.3	-1.9
		소득 효과	0.010***	0.010**	0.006**	0.005
		빈곤 효과	-0.004+	-0.004	-0.003	-0.004
		빈곤갭 효과	-0.003***	-0.003**	-0.002*	-0.002+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비율	-0.010	-0.029**	-0.023**	-0.044*
		균등화 급여	-1.4**	-4.4***	-2.1***	-7.8***
		소득 효과	-0.001	-0.003**	-0.001	-0.006**
		빈곤 효과	0.001	0.001	-0.001	-0.001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1**
	기초 보장 급여	수급 비율	-0.001	-0.004	-0.001	-0.009
		균등화 급여	0.2	2.2*	0.7	7.5**
		소득 효과	0.010*	0.012+	0.006	0.019
		빈곤 효과	-0.002	-0.003	-0.001	0.001
		빈곤갭 효과	0.000	-0.001	-0.001	-0.005**
	긴급 복지 지원	수급 비율	0.002*	0.003*	0.001	0.000
		균등화 급여	0.2+	0.3	0.0	-0.4
		소득 효과	0.002	0.001	0.001	-0.001
		빈곤 효과	0.000	0.000	0.000	0.000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0
재난 지원금	수급 비율	0.999***	0.999***	0.943***	0.943***	
	균등화 급여	87.5***	87.5***	79.8***	79.8***	
	소득 효과	0.092***	0.092***	0.072***	0.071***	
	빈곤 효과	-0.010***	-0.010***	-0.010***	-0.010***	
	빈곤갭 효과	-0.010***	-0.010***	-0.008***	-0.008***	
순공적 이전	수급 비율	0.084***	0.088***	0.070***	0.068**	
	균등화 급여	77.6***	71.2***	57.6**	35.9	
	소득 효과	0.053***	0.039*	0.023+	-0.019	
	빈곤 효과	-0.019***	-0.021**	-0.023***	-0.023	
	빈곤갭 효과	-0.006	-0.004	-0.002	0.009	

〈표 4-18〉 계속

구분		19→20		19→21		
		식(1) β	식(2) β	식(1) β	식(2) β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 통제		×	○	×	○	
전시점 취업자	고용 보험 급여	수급 비율	0.014	0.010	0.019+	0.003
		균등화 급여	13.0**	6.8	9.5+	-8.6
		소득 효과	0.009***	0.007**	0.007**	0.002
		빈곤 효과	-0.004+	-0.004	-0.004+	-0.003
		빈곤갭 효과	-0.003***	-0.003**	-0.002**	-0.001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비율	-0.014+	-0.036**	-0.025**	-0.051*
		균등화 급여	-1.7**	-4.9***	-2.3**	-8.2***
		소득 효과	0.000	-0.002**	0.000	-0.003***
		빈곤 효과	0.001	0.001	-0.002	-0.002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1**
	기초 보장 급여	수급 비율	-0.001	-0.003	-0.001	-0.008
		균등화 급여	0.4	1.3	0.5	3.0+
		소득 효과	0.002+	0.003+	0.001	0.003
		빈곤 효과	-0.002+	-0.003+	-0.002	-0.003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1
	긴급 복지 지원	수급 비율	0.001	0.002	0.000	-0.001
		균등화 급여	0.1	0.2	-0.1	-0.4+
		소득 효과	0.000	0.000	0.000	0.000+
		빈곤 효과	0.000	0.000	0.000	0.000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0+
재난 지원금	수급 비율	0.999***	0.999***	0.944***	0.944***	
	균등화 급여	90.8***	90.8***	85.2***	85.2***	
	소득 효과	0.039***	0.039***	0.034***	0.035***	
	빈곤 효과	-0.010***	-0.010***	-0.012***	-0.012***	
	빈곤갭 효과	-0.006***	-0.006***	-0.005***	-0.005***	
순공적 이전	수급 비율	0.096***	0.100***	0.081***	0.065*	
	균등화 급여	91.3***	77.2***	64.3**	14.5	
	소득 효과	0.042***	0.031**	0.023+	-0.027	
	빈곤 효과	-0.022***	-0.022***	-0.023***	-0.013	
	빈곤갭 효과	-0.007+	-0.003	0.000	0.016	

〈표 4-18〉 계속

구분		19→20		19→21		
		식(1) β	식(2) β	식(1) β	식(2) β	
선형 추이 및 개인 특성 통제		×	○	×	○	
전시점 비취 업자	고용 보험 급여	수급 비율	0.011	0.005	0.007	0.014
		균등화 급여	6.4	9.0	2.6	7.9
		소득 효과	0.014*	0.014*	0.004	0.008
		빈곤 효과	-0.003	-0.003	-0.001	-0.004
		빈곤갭 효과	-0.004*	-0.004*	-0.002	-0.004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비율	-0.003	-0.016	-0.019+	-0.032
		균등화 급여	-0.9	-3.6***	-1.7*	-7.0***
		소득 효과	-0.003	-0.005+	-0.003	-0.009*
		빈곤 효과	0.001	0.003	-0.001	0.000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1+
	기초 보장 급여	수급 비율	-0.002	-0.005	0.000	-0.010
		균등화 급여	-0.1	3.8+	1.2	14.9**
		소득 효과	0.024*	0.027	0.016	0.044
		빈곤 효과	-0.001	-0.003	0.001	0.006
		빈곤갭 효과	-0.001	-0.003+	-0.002	-0.010**
	긴급 복지 지원	수급 비율	0.004*	0.004*	0.003+	0.001
		균등화 급여	0.5+	0.6	0.3	-0.4
		소득 효과	0.004	0.002	0.003	-0.001
		빈곤 효과	0.000	0.000	0.000	0.001
		빈곤갭 효과	0.000+	0.000	0.000	0.000
	재난 지원금	수급 비율	0.999***	0.999***	0.941***	0.941***
		균등화 급여	81.7***	81.8***	70.1***	70.3***
		소득 효과	0.186***	0.185***	0.137***	0.136***
		빈곤 효과	-0.010***	-0.010***	-0.007***	-0.007***
빈곤갭 효과		-0.018***	-0.018***	-0.012***	-0.012***	
순공적 이전	수급 비율	0.063***	0.066***	0.050***	0.071*	
	균등화 급여	54.3*	61.0+	46.6+	71.2	
	소득 효과	0.073**	0.055	0.024	-0.004	
	빈곤 효과	-0.016+	-0.019	-0.023*	-0.040	
	빈곤갭 효과	-0.005	-0.006	-0.004	-0.004	

주: 제2절의 식(1)과 식(2)를 추정한 결과이다. 원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이다. 순공적이전은 총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값이다.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고용보험급여 빈곤갭 감소 효과가 2019~2020년에 0.3%포인트, 2019~2021년에 0.2%포인트 증가하였다. 비록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면 고용보험급여 수급 비율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급여 빈곤갭 감소 효과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고용보험급여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9년에 크게 확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전후 수급 비율과 급여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1%포인트 감소하였다.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0년과 2019~2021년에 급여가 증가하였고,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특히 비취업자의 코로나19 전후 빈곤갭 감소 효과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4-17>의 기술통계에서는 기초보장급여 빈곤갭 감소 효과의 증가가 크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면 2019~2021년 기초보장급여 빈곤갭 감소 효과의 증가가 뚜렷하였다.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수급 비율 증가가 0.3%포인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특히 비취업자의 수급 비율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빈곤 및 빈곤갭 효과 변화는,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도가 확인되었지만, 0.0%포인트로 절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은 수급규모가 뚜렷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낮아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가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증가 효과,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가 분명하게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효과가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취업지위별로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이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갭

을 감소시킨 효과가 컸다. 순공적이전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빈곤 감소 효과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이와 같은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가 2021년까지 지속되지는 않았다.

2. 하위집단 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하위집단을 분석한다. 분량의 제약으로 공적이전의 빈곤갭 효과를 분석하였고, 서술의 편의를 위해 공적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를 ‘공적이전 효과’로 부른다. 우선 <표 4-19>에는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여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 변화를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0년과 2019~2021년에 노인에 대한 기초보장급여와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4-10>에서 살펴본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초보장급여 및 재난지원금 효과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즉,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노인의 빈곤갭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구규모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및 2019~2021년 기초보장급여 효과 증가가 1인 가구에 집중되었고, 재난지원금 효과 증가 역시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과 동거하는 집단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0년과 2019~2021년에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공적이전의 효과가 증가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9~2021년에 순공적이전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다. 2019~2020년 미취학 아동 존재 가구에 대한

코로나19의 고용·소득 충격에도 불구하고, 순공적이전이 이러한 충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1년에 아동 가구의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증가한 것이다(〈표 4-10〉 참조).

중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우선 상용근로자의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히 작았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경제적 지위가 높고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이 크지 않은 상용근로자는 재난지원금이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였고,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고용보험급여 효과 증가가 재난지원금보다 컸다. 임시근로자와 실업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및 2019~2021년 고용보험급여 효과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보험급여가 주로 임시근로자와 실업자의 빈곤갭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및 2019~2021년 재난지원금 효과와 2019~2021년 기초보장급여 효과가 크게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및 2019~2021년 기초보장급여 효과가 증가하였다. 즉, 평균적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기초보장급여 효과 증가가 0.5%포인트에 그쳤지만(〈표 4-18〉 참조),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이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에 대한 기초보장급여의 영향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자리 특성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시간제의 2019~2021년 고용보험급여 효과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고, 대체로 중규모 사업장의 2019~2020년 및 2019~2021년 고용보험급여 효과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고용보험급여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2019~2021년에 관

리자,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보험급여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집단의 빈곤갭을 감소시켰지만, 특히 시간제,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켰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기초보장급여 효과 증가 역시 눈에 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순공적이전 효과 증가는 소규모 사업장,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게 관찰되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고용보험급여 효과 증가가 개인취업소득 2분위 및 4분위, 가구시장소득 2~4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대체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고용보험의 보호가 불필요한 고소득층에 대한 고용보험급여의 영향이 작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및 2019~2021년 가구시장소득 1분위의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재난지원금 효과 역시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개인취업소득 1분위보다 가구시장소득 1분위에 대한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히 컸다.

다음으로 소득분위 이동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과 2019~2021년에 소득분위가 하락한 집단에 대한 고용보험급여 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보험급여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일정하게 대응하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 전후 소득분위가 하락한 집단보다 소득분위가 유지된 집단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거칠게 표현하면, 고용보험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패턴은 2019~2020년과 2019~2021년에 모두 관찰되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소득분위 상승 집단의 빈곤갭을 감소시킨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소득분위 유지 집단과 소득분위 하락 집단의 빈곤갭을 감소시킨 효과가 유사하게 크게 나타났다. 즉,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같이 소득 하락 집단의 빈곤갭을 감소시킨 효과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저소득층의 빈곤갭을 감소시킨 효과가 모두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19→21 표본 분석 결과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1년에 순공적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가 감소한 집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년, 아동 가구,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개인취업소득 5분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순공적이전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들은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으로, 대체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가처분소득 빈곤갭이 증가하였다(〈표 4-10〉 참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순공적이전이 감소하였거나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6]에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컸던 2020년까지의 고용보험급여, 재난지원금, 순공적이전의 빈곤갭 감소 효과 변화에 집중하여 〈표 4-19〉의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정리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대체로 임시근로자, 실업자,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시장소득 2분위, 개인취업소득분위 및 가구시장소득분위 하락 집단에 대한 고용보험급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재난지원금의 영향은 주로 노인,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가구시장소득 1분위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고용보험급여의 영향보다 컸다.

〈표 4-19〉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

(단위: 포인트)

구분	19→20						19→21					
	고용 보험 급여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긴급 복지 지원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고용 보험 급여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긴급 복지 지원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남성	-0.003	0.000	-0.001	0.000	-0.009	-0.001	-0.003	0.001	-0.005	0.000	-0.007	0.012
여성	-0.004	0.000	-0.002	0.000	-0.011	-0.007	-0.002	0.001	-0.004	0.000	-0.008	0.005
18~34세	-0.003	0.000	0.000	0.000	-0.005	-0.005	-0.003	0.001	0.000	0.000	-0.004	0.021
35~49세	-0.003	0.000	0.001	0.000	-0.006	-0.001	0.000	0.001	0.002	0.000	-0.004	0.024
50~64세	-0.005	0.000	-0.002	0.000	-0.009	-0.004	-0.003	0.000	-0.009	0.000	-0.008	-0.002
65세 이상	-0.002	0.001	-0.005	0.000	-0.027	-0.009	-0.004	0.003	-0.018	0.000	-0.019	-0.019
중졸 이하	-0.005	0.000	-0.004	0.000	-0.023	-0.027	-0.003	0.002	-0.016	0.000	-0.016	-0.010
고졸	-0.002	0.000	0.000	0.000	-0.009	-0.007	-0.003	0.001	-0.001	0.000	-0.008	0.018
전문대졸	-0.001	0.000	-0.001	0.000	-0.005	0.004	0.001	0.000	0.000	0.000	-0.004	0.002
4년제 대졸 이상	-0.004	0.000	0.000	0.000	-0.004	0.014	-0.003	0.001	-0.002	0.000	-0.003	0.014
가구주	-0.003	0.000	-0.002	0.000	-0.013	-0.006	-0.002	0.002	-0.007	0.000	-0.009	0.007
배우자	-0.003	0.000	-0.001	0.000	-0.008	-0.003	-0.003	0.000	-0.003	0.000	-0.007	-0.003
기타 가구원	-0.003	0.000	0.001	0.000	-0.008	-0.002	-0.003	0.001	-0.002	0.000	-0.006	0.028
1인 가구	-0.005	0.001	-0.009	0.000	-0.023	-0.019	-0.001	0.003	-0.026	0.000	-0.014	0.018
2인 가구	-0.005	0.000	-0.002	0.000	-0.018	-0.004	-0.010	0.001	-0.003	0.000	-0.014	-0.027
3인 가구	-0.005	0.001	0.000	0.000	-0.008	-0.011	0.001	0.002	-0.005	0.000	-0.006	-0.001
4인 이상 가구	0.000	0.000	0.001	0.000	-0.004	0.006	0.000	0.000	0.000	0.000	-0.003	0.035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0.001	0.000	0.003	-0.001	-0.006	0.008	0.002	0.001	0.004	0.001	-0.002	0.054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0.001	0.001	0.002	0.000	-0.005	0.011	0.002	0.002	0.003	0.001	-0.002	0.048
초등학생 동거 여성	-0.002	-0.001	0.000	0.000	-0.004	0.007	0.002	0.000	-0.001	0.001	-0.002	0.044
초등학생 동거 남성	-0.003	0.001	0.004	0.000	-0.005	0.018	-0.001	0.001	0.004	0.001	-0.003	0.056
상용근로자	-0.002	0.000	0.000	0.000	-0.001	0.004	0.001	0.001	0.000	0.000	-0.001	0.013
임시근로자	-0.007	0.000	0.001	0.000	-0.006	-0.005	-0.008	0.002	-0.002	0.000	-0.005	0.006
일용근로자	0.002	0.001	-0.001	-0.002	-0.011	-0.021	0.000	0.001	0.005	0.000	-0.007	-0.011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0.004	0.009	-0.007	0.000	-0.033	-0.019	0.009	0.018	-0.037	0.000	-0.020	-0.042
고용주	0.000	0.000	0.000	0.000	-0.004	0.002	0.000	0.000	0.000	0.000	-0.011	0.049
자영업자	-0.001	-0.001	-0.001	0.000	-0.015	-0.012	0.001	0.000	-0.001	0.000	-0.013	0.059
무급가족종사자	0.002	-0.001	-0.002	0.000	-0.016	-0.024	0.002	-0.002	-0.003	0.000	-0.018	0.028
실업자	-0.018	0.001	0.006	0.002	-0.010	0.015	-0.017	0.001	0.000	0.000	-0.007	0.013
비경제활동인구	-0.004	0.000	-0.003	0.000	-0.018	-0.006	-0.003	0.001	-0.011	0.000	-0.013	-0.005
직접고용	-0.003	0.000	0.000	0.000	-0.004	-0.003	-0.003	0.001	-0.001	0.000	-0.003	0.007
간접고용	-0.010	0.002	-0.004	0.000	-0.009	0.026	0.005	0.004	-0.003	0.000	-0.007	0.022

190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4-19〉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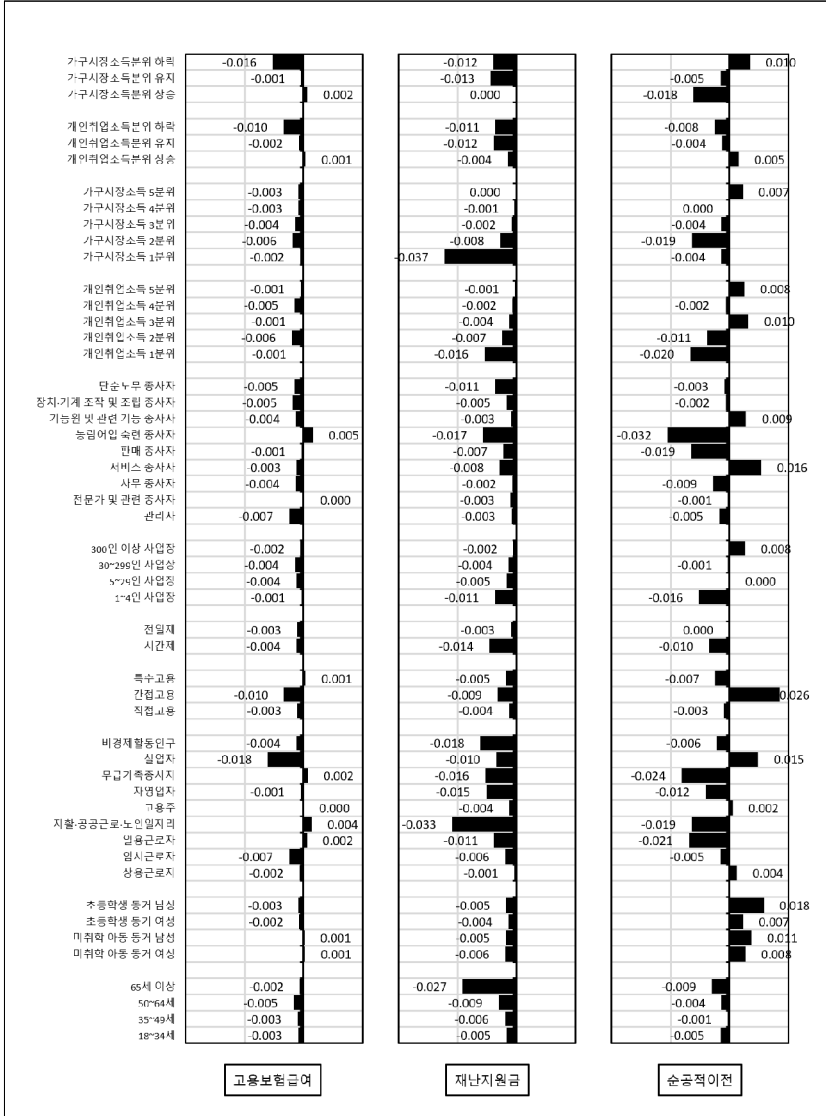
구분	19→20						19→21					
	고용 보험 급여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긴급 복지 지원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고용 보험 급여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긴급 복지 지원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특수고용	0.001	-0.001	0.003	0.000	-0.005	-0.007	0.000	0.000	0.003	0.000	-0.005	-0.024
시간제	-0.004	0.003	-0.002	-0.001	-0.014	-0.010	-0.008	0.006	-0.004	0.000	-0.008	0.013
전일제	-0.003	0.000	0.000	0.000	-0.003	0.000	-0.001	0.001	-0.001	0.000	-0.003	0.006
1~4인 사업장	-0.001	0.000	-0.002	0.000	-0.011	-0.016	0.000	0.000	-0.001	0.000	-0.011	0.024
5~29인 사업장	-0.004	0.000	0.002	0.000	-0.005	0.000	-0.003	0.002	0.000	0.000	-0.003	0.014
30~299인 사업장	-0.004	0.001	-0.001	0.000	-0.004	-0.001	-0.004	0.001	-0.001	0.000	-0.003	0.013
300인 이상 사업장	-0.002	0.000	0.000	0.000	-0.002	0.008	0.001	0.001	0.000	0.000	-0.001	0.010
관리자	-0.007	-0.001	0.001	0.000	-0.003	-0.005	-0.002	0.000	0.000	0.000	-0.002	0.0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0	0.001	0.000	0.000	-0.003	-0.001	0.002	0.002	0.001	0.000	-0.002	0.031
사무 종사자	-0.004	0.000	0.000	0.000	-0.002	-0.009	-0.003	0.000	0.001	0.000	-0.002	-0.004
서비스 종사자	-0.003	0.000	-0.002	-0.001	-0.008	0.016	-0.008	0.001	-0.001	0.000	-0.009	0.080
판매 종사자	-0.001	-0.001	-0.001	0.000	-0.007	-0.019	-0.003	-0.001	-0.001	0.000	-0.007	-0.03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05	0.000	-0.001	0.000	-0.017	-0.032	0.006	0.001	0.000	0.000	-0.014	0.0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4	0.000	0.001	0.000	-0.003	0.009	-0.001	0.000	-0.002	0.000	-0.003	0.00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05	-0.001	-0.001	0.000	-0.005	-0.002	-0.001	0.000	0.000	0.000	-0.005	0.026
단순노무 종사자	-0.005	0.001	0.000	0.000	-0.011	-0.003	-0.002	0.003	-0.006	0.000	-0.008	0.019
개인취업소득 1분위	-0.001	0.002	-0.001	0.000	-0.016	-0.020	-0.002	0.002	-0.002	0.000	-0.013	0.011
개인취업소득 2분위	-0.006	0.000	0.000	0.000	-0.007	-0.011	0.001	0.003	-0.003	0.000	-0.007	0.029
개인취업소득 3분위	-0.001	0.000	0.000	0.000	-0.004	0.010	-0.004	0.001	0.000	0.000	-0.003	0.016
개인취업소득 4분위	-0.005	0.000	0.000	0.000	-0.002	-0.002	-0.001	0.000	0.000	0.000	-0.002	-0.003
개인취업소득 5분위	-0.001	0.000	0.000	0.000	-0.001	0.008	-0.001	0.000	0.000	0.000	-0.002	0.028
가구시장소득 1분위	-0.002	0.002	-0.006	-0.001	-0.037	-0.004	-0.002	0.005	-0.020	0.000	-0.024	0.014
가구시장소득 2분위	-0.006	-0.001	0.001	0.000	-0.008	-0.019	-0.006	0.000	-0.001	0.000	-0.007	-0.049
가구시장소득 3분위	-0.004	0.000	0.000	0.000	-0.002	-0.004	-0.002	0.000	0.000	0.000	-0.004	0.007
가구시장소득 4분위	-0.003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1	0.039
가구시장소득 5분위	-0.003	0.000	0.000	0.000	0.000	0.007	-0.001	0.000	0.000	0.000	-0.001	0.030
개인취업소득분위 상승	0.001	0.000	0.001	0.000	-0.004	0.005	0.002	0.001	0.000	0.000	-0.004	0.031
개인취업소득분위 유지	-0.002	0.000	-0.002	0.000	-0.012	-0.004	-0.003	0.001	-0.007	0.000	-0.009	0.002
개인취업소득분위 하락	-0.010	0.000	-0.001	-0.001	-0.011	-0.008	-0.006	0.001	-0.002	0.000	-0.010	0.007
가구시장소득분위 상승	0.002	0.000	0.002	0.000	0.000	-0.018	0.004	0.001	0.005	0.000	0.000	0.037
가구시장소득분위 유지	-0.001	0.001	-0.003	0.000	-0.013	-0.005	-0.003	0.002	-0.010	0.000	-0.009	0.000
가구시장소득분위 하락	-0.016	-0.001	0.001	0.000	-0.012	0.010	-0.009	0.000	-0.001	0.000	-0.011	-0.008

주: 제2절의 식(2) β 를 추정한 결과이다. 원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통계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이다. 순공적이전은 총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값이다. $p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4-6] 하위집단별 코로나19 이전 대비 19→20 공적이전 빈곤갑 효과 변화

(단위: 포인트)



주: 제2절의 식(2) β 를 추정된 결과이다. 통제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이다. 순공적이전은 총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값이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19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표 4-20〉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의 집단 간 차이

(단위: 포인트)

구분	19→20						19→21					
	고용 보험 급여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긴급 복지 지원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고용 보험 급여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긴급 복지 지원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남성	0.001	0.000	0.001	0.000	0.002	0.006	-0.001	0.000	-0.002	0.000	0.001	0.007
여성	-0.001	0.000	-0.001	0.000	-0.002	-0.006	0.001	0.000	0.002	0.000	-0.001	-0.007
18~34세	0.001	0.000	0.001	0.000	0.007	-0.001	-0.001	0.000	0.006	0.000	0.005	0.016
35~49세	0.000	0.000	0.002	0.000	0.006	0.004	0.003	-0.001	0.010	0.000	0.005	0.022
50~64세	-0.002	-0.001	-0.001	0.000	0.002	0.000	-0.001	-0.001	-0.006	0.000	-0.001	-0.014
65세 이상	0.002	0.001	-0.004	0.000	-0.021	-0.005	-0.002	0.002	-0.015	0.000	-0.014	-0.033
중졸 이하	-0.003	0.000	-0.004	0.000	-0.017	-0.029	-0.001	0.002	-0.015	0.000	-0.011	-0.024
고졸	0.002	0.000	0.002	0.000	0.002	-0.006	0.000	0.000	0.006	0.000	0.000	0.015
전문대졸	0.003	0.000	0.001	0.000	0.006	0.009	0.004	-0.001	0.006	0.000	0.005	-0.006
4년제 대졸 이상	-0.001	0.000	0.001	0.000	0.009	0.026	-0.001	0.000	0.003	0.000	0.006	0.007
가구주	0.000	0.000	-0.002	0.000	-0.005	-0.004	0.001	0.001	-0.005	0.000	-0.003	-0.004
배우자	0.000	-0.001	0.001	0.000	0.003	0.002	0.000	-0.001	0.003	0.000	0.001	-0.017
기타 가구원	0.000	0.000	0.002	0.000	0.003	0.003	-0.001	0.000	0.004	0.000	0.002	0.025
1인 가구	-0.002	0.001	-0.009	0.000	-0.015	-0.017	0.002	0.002	-0.023	0.000	-0.007	0.010
2인 가구	-0.002	0.000	-0.001	0.000	-0.010	0.000	-0.009	0.000	0.002	0.000	-0.008	-0.047
3인 가구	-0.003	0.000	0.002	0.000	0.003	-0.010	0.004	0.001	-0.001	0.000	0.003	-0.013
4인 이상 가구	0.005	0.000	0.003	0.000	0.011	0.016	0.003	-0.001	0.007	0.000	0.007	0.043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0.004	-0.001	0.004	0.000	0.005	0.013	0.004	0.000	0.009	0.001	0.005	0.047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0.004	0.001	0.003	0.000	0.005	0.015	0.004	0.001	0.008	0.001	0.006	0.043
초등학생 동거 여성	0.001	-0.001	0.001	0.000	0.007	0.012	0.005	-0.001	0.004	0.000	0.006	0.037
초등학생 동거 남성	0.001	0.000	0.005	0.001	0.005	0.023	0.001	0.000	0.009	0.001	0.005	0.051
상용근로자	0.002	0.000	0.001	0.000	0.013	0.011	0.004	0.000	0.006	0.000	0.009	0.006
임시근로자	-0.005	0.000	0.002	0.000	0.006	-0.001	-0.007	0.001	0.003	0.000	0.004	-0.004
일용근로자	0.005	0.001	0.000	-0.001	-0.001	-0.016	0.003	0.000	0.011	0.000	0.001	-0.019
자활 공공근로·노인일자리	0.008	0.009	-0.006	0.000	-0.023	-0.016	0.011	0.017	-0.033	0.000	-0.013	-0.053
고용주	0.003	-0.001	0.001	0.000	0.007	0.007	0.003	-0.001	0.005	0.000	-0.004	0.041
자영업자	0.002	-0.001	0.000	0.000	-0.006	-0.008	0.003	-0.001	0.004	0.000	-0.006	0.055
무급가족종사자	0.005	-0.001	-0.001	0.000	-0.006	-0.022	0.004	-0.003	0.001	0.000	-0.011	0.021
실업자	-0.014	0.000	0.008	0.002	0.000	0.018	-0.013	0.000	0.004	0.000	0.001	0.004
비경제활동인구	-0.001	0.000	-0.003	0.000	-0.012	-0.003	-0.001	0.000	-0.010	0.000	-0.007	-0.021
직접고용	0.000	0.000	0.002	0.000	0.012	0.003	0.000	0.001	0.007	0.000	0.009	-0.003
간접고용	-0.007	0.001	-0.004	0.000	0.001	0.031	0.007	0.003	0.001	0.000	0.001	0.019

〈표 4-20〉 계속

구분	19→20						19→21					
	고용 보험 급여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긴급 복지 지원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고용 보험 급여	근로· 자녀 장려금	기초 보장 급여	긴급 복지 지원	재난 지원금	순공적 이전
특수고용	0.004	-0.002	0.004	0.000	0.005	-0.003	0.003	-0.001	0.008	0.000	0.003	-0.033
시간제	0.000	0.003	-0.001	-0.001	-0.004	-0.007	-0.006	0.005	0.002	0.000	0.000	0.006
전일제	0.000	0.000	0.002	0.000	0.014	0.007	0.002	0.000	0.007	0.000	0.009	-0.004
1~4인 사업장	0.003	-0.001	-0.001	0.000	-0.001	-0.014	0.003	-0.001	0.004	0.000	-0.004	0.018
5~29인 사업장	0.000	0.000	0.004	0.000	0.006	0.005	-0.001	0.001	0.005	0.000	0.005	0.006
30~299인 사업장	-0.001	0.001	0.000	0.000	0.007	0.004	-0.002	0.000	0.004	0.000	0.005	0.007
300인 이상 사업장	0.002	0.000	0.001	0.000	0.010	0.014	0.004	-0.001	0.005	0.000	0.008	0.000
관리자	-0.004	-0.001	0.002	0.000	0.008	-0.001	0.000	-0.001	0.005	0.000	0.006	0.0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4	0.001	0.001	0.000	0.008	0.004	0.005	0.001	0.006	0.000	0.006	0.025
사무 종사자	-0.001	0.000	0.001	0.000	0.009	-0.004	-0.002	-0.001	0.006	0.000	0.007	-0.014
서비스 종사자	0.000	0.000	-0.001	-0.001	0.002	0.022	-0.006	0.000	0.004	0.000	-0.002	0.075
판매 종사자	0.002	-0.001	0.000	0.000	0.004	-0.017	0.000	-0.002	0.004	0.000	0.000	-0.04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08	0.000	0.000	0.000	-0.007	-0.028	0.009	-0.001	0.005	0.000	-0.006	-0.0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1	0.000	0.002	0.000	0.008	0.014	0.002	-0.001	0.003	0.000	0.005	-0.009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02	-0.002	0.000	0.000	0.006	0.002	0.002	-0.001	0.005	0.000	0.003	0.019
단순노무 종사자	-0.002	0.001	0.002	0.000	-0.001	0.002	0.000	0.003	-0.001	0.000	0.000	0.011
개인취업소득 1분위	0.003	0.002	0.000	0.000	-0.007	-0.020	0.000	0.001	0.003	0.000	-0.006	0.003
개인취업소득 2분위	-0.003	0.000	0.001	0.000	0.003	-0.008	0.004	0.002	0.002	0.000	0.001	0.023
개인취업소득 3분위	0.003	-0.001	0.001	0.000	0.008	0.016	-0.002	0.000	0.005	0.000	0.005	0.007
개인취업소득 4분위	-0.002	-0.001	0.001	0.000	0.010	0.002	0.001	-0.001	0.005	0.000	0.007	-0.012
개인취업소득 5분위	0.002	0.000	0.001	0.000	0.011	0.014	0.002	-0.001	0.005	0.000	0.007	0.022
가구시장소득 1분위	0.002	0.003	-0.006	-0.001	-0.034	0.000	0.000	0.005	-0.019	0.000	-0.020	0.007
가구시장소득 2분위	-0.003	-0.001	0.003	0.000	0.003	-0.020	-0.005	-0.002	0.004	0.000	0.001	-0.072
가구시장소득 3분위	-0.001	-0.001	0.001	0.000	0.010	-0.001	0.001	-0.001	0.006	0.000	0.005	-0.001
가구시장소득 4분위	0.001	0.000	0.001	0.000	0.012	0.005	0.002	-0.001	0.005	0.000	0.008	0.037
가구시장소득 5분위	0.001	0.000	0.001	0.000	0.013	0.014	0.002	-0.001	0.006	0.000	0.008	0.027
개인취업소득분위 상승	0.005	0.000	0.002	0.000	0.007	0.009	0.006	0.000	0.006	0.000	0.005	0.031
개인취업소득분위 유지	0.003	0.001	-0.001	0.000	-0.004	0.000	-0.001	0.000	-0.005	0.000	-0.002	-0.018
개인취업소득분위 하락	-0.008	-0.001	0.000	0.000	0.000	-0.004	-0.003	0.000	0.003	0.000	-0.002	-0.002
가구시장소득분위 상승	0.007	0.000	0.004	0.000	0.013	-0.017	0.009	-0.001	0.012	0.000	0.010	0.045
가구시장소득분위 유지	0.005	0.001	-0.004	0.000	-0.007	-0.002	-0.001	0.002	-0.012	0.000	-0.004	-0.020
가구시장소득분위 하락	-0.015	-0.002	0.002	0.000	-0.002	0.019	-0.008	-0.002	0.005	0.000	-0.005	-0.019

주: 제2절의 식(3) δ 를 추정한 결과이다. 원가구ID 내 상관을 고려한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통계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규모이다. 순공적이전은 총공적이전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값이다. $p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표 4-20>에서는 개별 하위집단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빈곤갭 효과 변화가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고용보험급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9~2020년에 임시근로자, 개인취업소득분위 및 가구시장소득분위 하락 집단에 대한 고용보험급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고, 2019~2021년에 2인 가구, 임시근로자, 서비스 종사자, 가구시장소득분위 하락 집단에 대한 고용보험급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고용보험급여가 대체로 임시근로자, 서비스 종사자, 소득 하락 집단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강하게 받은 집단의 빈곤갭 감소에 중요하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2019~2020년에 일용근로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 1~4인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급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대체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초보장급여의 영향은 2019~2020년과 2019~2021년에 노인, 중졸 이하, 1인 가구, 비경제활동인구, 가구시장소득 1분위, 가구시장소득분위 유지 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컸고, 2019~2021년에는 중년,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개인취업소득분위 유지 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 1인 가구, 빈곤층과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보장급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난지원금 효과의 집단 간 차이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19~2020년과 2019~2021년에 재난지원금의 빈곤갭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집단은 노인, 중졸 이하, 1~2인 가구,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개인취업소득 및 가구시장소득 1분위, 개인취업소득분위 및 가구시장소득분위 유지 집단이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재난지원금의

영향은 대체로 코로나19와 무관한 전통적인 취약계층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노출된 피해집단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공적이전의 영향은 2019~2020년에는 중졸 이하, 1~4인 사업장, 판매 종사자, 개인취업소득 1분위에게 상대적으로 컸고, 2019~2021년에는 판매 종사자, 가구시장소득 2분위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제6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전후 2019~2020년 및 2019~2021년의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 변화를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여 코로나19 이전 변화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 비율을 분석하였다.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취업 비율이 2019~2020년에 3.2%포인트 감소하였고 2019~2021년에 2.5%포인트 감소하였다(〈표 4-9〉 참조). 즉, 코로나19 직후 2020년의 고용 충격이 상당히 컸고, 그 충격이 2021년에 소폭 완화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1년까지 상용근로자 비율이 3.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용량의 절대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질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표 4-9〉 참조).

코로나19 직후 2020년까지의 단기 충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영향으로 고용, 일자리의 질, 근로시간, 개인취업소득, 가

구시장소득, 가구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빈곤 및 빈곤갭이 증가하였다(〈표 4-9〉 참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을 분명하게 실증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2021년 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이 2021년에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도 상용근로자 감소와 간접고용 증가로 노동시장의 질이 낮아졌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1년 근로시간, 소득, 빈곤, 빈곤갭 변화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4-9〉 참조).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개인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첫째,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이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임시·일용근로자,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단순노무 종사자, 시간제, 중소기업 사업장의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이 감소하였다(〈표 4-10〉 참조). 특히,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코로나19 이전 대비 시장소득 빈곤갭이 2019~2020년에 4.2%포인트, 2019~2021년에 12.0%포인트 증가하여,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표 4-10〉 참조). 또한 판매 종사자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감소가 확인되었고,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는 2021년 까지 지속되었다(〈표 4-10〉 참조). 이는 코로나19 시기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판매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2021년까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이 대체로 사라졌지만,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와 판매 종사자에 대한 시장소득 빈곤 충격은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둘째, 가구 내 이차소득자에 대한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전후 배우자의 취업 비율 및 근로

시간 감소가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표 4-10〉 참조). 이와 같은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 하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미취학 아동과 동거하는 여성의 취업 비율이 9.1%포인트 감소하였고, 근로시간과 개인취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다(〈표 4-10〉 참조). 대체로 아동과 동거하는 여성의 가구소득 지위가 낮지는 않지만, 가구 내에서 가구주보다 배우자의 노동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이차소득자에게 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계층에 따른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복합적인 패턴으로 관찰되었다. 개인취업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19~2020년에 저소득층의 취업 비율, 근로시간,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지만, 고소득층의 가구가처분소득 감소와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갭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다(〈표 4-10〉 참조). 이는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코로나19의 충격이 가구 구성 및 공적이전을 경유하여 복합적인 패턴의 분배 효과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시장소득 충격보다 가처분소득 충격이 작았다는 분석 결과는(〈표 4-9〉 참조) 공적이전이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을 일정하게 완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고용보험급여,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이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근로·자녀장려금과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미 2019년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인상하여 크게 확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확대하지 못하였다(〈표 4-16〉, 〈표 4-17〉, 〈표 4-18〉

참조).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므로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복지지원은 2019~2020년 수급률이 0.1%에서 0.3%로 증가하였지만, 대체로 수급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급여 수준이 낮아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표 4-18〉 참조).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한 공적이전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난지원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보험급여의 수급률은 2019~2020년 6.0%에서 7.4%로, 2019~2021년 6.2%에서 8.0%로 증가하였다(〈표 4-16〉, 〈표 4-17〉 참조).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및 2019~2021년 수급 비율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빈곤갭 감소 효과가 0.2~0.3%포인트 증가하였다(〈표 4-18〉 참조). 이는 고용보험급여가 2021년까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기초보장급여는 2019~2020년과 2019~2021년에 수급률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급여 수준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9~2021년에 빈곤갭 감소 효과가 0.5%포인트 증가하였다(〈표 4-18〉 참조). 이는 동일 조건으로 추정한 고용보험급여 빈곤갭 감소 효과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즉, 기초보장급여 역시 2021년에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로 2020년 5월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9월 전국민의 88%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재난

지원금의 보편적 성격이 강하게 관찰되었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 빈곤 및 빈곤갭을 각각 1.0%포인트 감소시켰고, 2021년 빈곤 및 빈곤갭을 각각 1.0%포인트, 0.8%포인트 감소시켰다(〈표 4-16〉, 〈표 4-17〉 참조).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의 빈곤 및 빈곤갭 감소 효과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표 4-18〉 참조).

이와 같이 공적이전이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 역시 개인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고용보험급여는 대체로 임시근로자, 서비스 종사자, 소득 하락 집단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강하게 받은 집단의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켰고, 기초보장급여는 대체로 노인, 1인 가구, 저학력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시장소득 1분위와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켰다(〈표 4-20〉 참조). 그런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노인, 1인 가구, 저학력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시장소득 1분위의 시장소득 빈곤갭이 증가하지 않은 2019~2021년에(〈표 4-10〉 참조) 이들에 대한 기초보장급여 빈곤갭 감소 효과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분석 결과는(〈표 4-20〉 참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정책 변화가 기초보장급여의 효과를 강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요컨대, 대체로 고용보험급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기초보장급여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여 소득 하락 집단을 지원하는 역할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전후 공적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노인 및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적인 선별주의 소득보장 전략으로부터

의 전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시장소득 빈곤의 증감에 대응하는 자동안정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규모가 작아 자활사업 참여자와 같은 소수 극빈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경제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내 이차소득자와 같이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낮지 않지만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가 하락한 집단을 지원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긴급한 일시적 지원을 위해 보편적 지원을 선택하여 정책의 재정적 누수가 적지 않았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결론

제1절 분석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결론

제1절 분석 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로 월간·분기 반복횡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단기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2022~2023년까지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연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소득 및 경제활동의 종단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 노동시장 변화를 2019년 노동시장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주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대체로 2022년 초반에 2019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서비스업의 집중도가 높은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이들의 고용률은 시간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였다. 단, 미취학 또는 학령기 자녀가 존재하는 여성의 고용률 회복은 더뎠는데, 특히 학령기 자녀가 존재하는 여성의 고용률은 2022년까지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과 경력 단절이 여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0대의 고용률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는 사실도 언급해줄 만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고용 감소뿐 아니라 근로시간 감축이나 일시휴직 증가 역시 관찰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시휴직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을 부분적으로 완충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불완전 취업자 규모는 실업자 규모보다 작지 않았고, 2023년 중반까지 2019년 수준으로 감소하지 못하였다. 산업·직업·종사상시위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판매 종사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과 자영업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편, 2020년 이후 재정지원일자리 확대는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를 단순하게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시장소득 분배를 악화하였다는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통제하면, 코로나19 이전 시장소득 증가 추이 및 시장소득 분배 개선 추이가 2020년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 특성과 코로나19 이전의 선형 추이를 통제하여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 시장소득이 57만 원/년, 0.024 로그포인트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빈곤이 1.0%포인트 증가하였다. 단,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은 2021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이 주로 2020년에 집중되었고 대체로 2022년까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위집단 분석에서 관찰된 초등학생 동거 여성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가구 내 이

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하락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 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빈곤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취업소득 2분위, 비취업자, 가구시장소득 2분위 등과 같이 소득 수준이나 노동시장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긴급 재난지원금,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이후 가처분소득 수준 및 분배는 거의 악화하지 않았다. 개인 특성과 코로나19 이전의 선형 추이를 통제할 때, 재난지원금은 2020년과 2021년의 소득을 0.090~0.102 로그포인트 증가시켰고, 빈곤과 빈곤갭을 각각 1.4%포인트, 0.8~1.0%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체로 보편적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는 역할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하게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크게 확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2020~2021년에 소폭 축소하였고, 대체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코로나19의 빈곤 충격 완화에 일정하게 기여하였지만, 대체로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무관한 정책적 변화에 따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급여가 일정하게 증가하였지만, 고용·산재보험 급여의 분배 효과는 대체로 근로·자녀장려금과 기초보장급여보다 훨씬 작았고,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준이었다.

제2장과 제3장에서 반복횡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노동

시장 및 소득분배의 시계열 추이를 분석한 것과 달리, 제4장에서는 한국 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전후 2019~2020년 및 2019~2021년의 경제활동 및 소득·빈곤 변화를 선형 추이와 개인 특성을 통제하여 코로나19 이전 변화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 2020년의 고용 충격이 상당히 컸고, 그 충격이 2021년에 소폭 완화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직후 2020년까지 고용, 일자리의 질, 근로시간,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가구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고, 시장소득 빈곤 및 빈곤갭이 증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은 2021년에 상당히 완화하였다. 한편,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은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임시·일용근로자, 자활·공공근로·노인 일자리, 단순노무 종사자, 시간제, 중소기업 사업장의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이 감소하였고, 판매 종사자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2019~2020년 취업 비율, 개인취업소득, 가구시장소득 감소가 확인되었고 시장소득 빈곤갭 증가가 2021년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이차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 하락이 관찰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2019~2020년에 미취학 아동과 동거하는 여성의 취업 비율, 근로시간, 개인취업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제4장에서는 고용보험급여, 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이 코로나19 전후 소득·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9년에 크게 확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확대하지 못하였다. 긴급복지지원은 2019~2020년 수급률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수급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급여 수준이 낮

아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 완화 효과가 미미하였다. 고용보험급여와 기초보장급여는 2021년까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고용보험급여는 대체로 임시근로자, 서비스 종사자, 소득 하락 집단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강하게 받은 집단의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켰고, 기초보장급여는 대체로 노인, 1인 가구, 저학력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시장소득 1분위와 같은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빈곤 충격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재난지원금은 2020년 빈곤 및 빈곤갭을 각각 1.0%포인트 감소시켰고, 2021년 빈곤 및 빈곤갭을 각각 1.0%포인트, 0.8%포인트 감소시켰다. 보편적 성격이 강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여 소득 하락 집단을 지원하는 역할과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단, 제4장의 분석 결과는 한국복지패널조사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을 다소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공식 고용지표 작성에 활용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면,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의 고용률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하면,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2020년의 시장소득 감소 및 시장소득 분배 악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짧았고, 코로나19의 소득 충격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약하였지만, 여전히 기존 사회보장제

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몇 년 간의 사회적 경험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기존 노동시장정책 및 소득보장정책이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교훈으로 남겼다.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9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그밖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소상공인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된 덕분에 코로나19의 노동시장 및 소득·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현재, 코로나19 시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 충격이나 근로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소득보장제도로 근로·자녀장려금, 고용보험,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난지원금을 살펴보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19년에 연령·소득·재산 조건을 완화하고 급여를 인상하여 크게 확대하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에 대응하는 형태로 확대하지는 못하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활동에 참여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량이 감소하는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지원조건을 완화하면서 소폭 확대하였지만, 수급규모와 급여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기존 소득보장제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은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 완화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0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0년 이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과 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의 시행이 코로나19 유행기와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빈곤 충격을 일정하게 완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체로 코로나19의 빈곤 충격과 무관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효과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진입하면 급여를 지원하고 빈곤에서 탈출하면 급여를 중지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으로 인한 빈곤 충격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규모가 작아 대규모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구단위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가구 내 이차소득자와 같이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낮지 않지만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가 하락한 집단을 지원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다.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체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재산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주요 보장성 강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중간소득계층까지 확산되는 대규모 경제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실업급여 수급규모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소득·빈곤 충격을 일정하게 완화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험급여는 대체로 임시근로자, 서비스 종사자, 소득 하락 집단 등과 같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강하게 받은 집단의 빈곤갭을 크게 감소시켰다. 즉,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지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고용보험급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보험급여의 효과는 코로나19의 시장소득 충격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미래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정형·비공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확장해야 한다(구인회 외, 2021; 이병희 외, 2023). 2020년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나(김현경, 2023, p.9),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면적 확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남은 과제가 많다(정홍원 외, 2023, pp.141-149).

그밖에도,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실직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감축과 불완전 취업이 증가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부분실업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재정지원일자리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고령인구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인구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수준의 일자리의 질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 고용 감소는 코로나19 유행기에 집중적으로 부각되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일상적인 개인의 위기로 잔존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돌봄 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김형용, 2023). 적절한 급여 수준의 보편적인 상병수당의 필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김명희, 2023).



- 고영근, 안태현. (2022). 코로나 경제위기와 여성 고용. 노동경제논집, 45(1), 33-87.
- 고용노동부. (2021).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주요내용. 2021년 12월 13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에서 2023. 12. 8. 인출.
- 고용노동부. (202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1. 인출.
- 구인회, 김진현, 우해봉, 홍민기, 김동진, 김건. (2021). 소득기반 사회보험 구축 방안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명희. (2023).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상병수당 도입 경과와 합의 보건복지포럼, 318, 50-66.
- 김미루, 오윤해. (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정책포럼, 281.
- 김수현. (2021). “작년 서울 초등학교 42일만 학교 갔다... 전남의 1/3 수준”. 2021년 3월 16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에서 2023. 12. 8. 접속.
- 김수현. (2022). 코로나19 발생 전후 가계후생 불평등 변화: 한국의 사례. 동북아경제연구, 34(3), 1-28.
- 김을식, 강정환, 조무상, 김숙영, 송준모, 유정균, 이성우, 배영임, 최성환, 유영성, 김재신, 신혜리, 박민지. (2020).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수원: 경기연구원.
- 김이레, 남재현, 김새봄. (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1), 30-49.
- 김지연. (2021).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1-10.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김진리. (2022).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적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0, 111-115.

- 김현경. (2023).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고용안전망 변화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포럼, 318, 7-21.
- 김형용. (2023).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돌봄서비스 영역 대응과 평가. 보건복지 포럼, 318, 34-49.
- 남재현, 이래혁. (2020).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중사상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4), 215-241.
- 남재현, 이래혁. (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1), 63-95.
- 류재린, 문혜경. (2022). 코로나19 확산이 국민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복지장연구, 38(2), 31-63.
- 백명호. (2022). 팬데믹과 경제 불평등: 가구소득과 임금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45, 5-47.
- 백지선, 박우람. (2022). COVID-19, Childcare and Women's Labor Supply. The Korean Economic Review, 38(2), 323-345.
- 변금선, 이원진, 이해림, 김동진. (2023).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 위한 소득지원체계 구축방향. 서울: 서울연구원.
- 성재민. (2015).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 노동리뷰, 122, 5-17.
- 성재민. (2020). 코로나 극복이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노동리뷰, 184, 34-47.
- 손병돈, 문혜진. (202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 한국사회복지학, 73(3), 9-31.
- 송상윤. (2021).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2021-9.
- 양은모, 배호중. (2023).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및 부채 분석: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2), 167-192.
- 여유진, 오선정, 송경호, 류재린, 김상현, 김을식, ... 이지완.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오삼일, 이상아. (2020).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BOK 이슈 노트, 2020-9.
- 오선정. (2022). 코로나19 초기 확산과 세부집단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정책 학회보, 31(1), 25-49.
- 오유라. (2022). 코로나19 기혼 근로 여성의 일자리 변화 영향 요인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61(2), 145-175.
- 이병희, 강신욱, 김문정, 성재민, 강희정, 류재린, ... 이재은. (2023). 소득기반 사회보험 혁신.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승호, 홍민기. (2021).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 28(3), 17-44.
- 이승호. (2020).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노동리뷰, 189, 7-20.
- 이영욱. (2021).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노동경제논집, 44(1), 135-167.
- 이용관. (2021).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44(2), 71-90.
-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2).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 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경제학 연구, 70(1), 53-88.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관. (20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KDI 경제 전망, 37(2), 43-50.
- 이철희, 이수진. (2021). 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경제학연구, 69(3), 5-54.
- 이태, 안준홍. (2023).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비시장 노동의 성별 불평등 변화. 여성경제연구, 19(4), 1-28.
- 이태진, 이원진, 오욱찬, 김성아, 여유진, 구인회, 김미곤. (2020).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시행 20년의 변화와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 이현주, 정은희, 김문길, 전지현. (2020).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기영, 이재성, 강지성, 신서하, 이해춘, 신희연, ... 조준호. (202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추경 직접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전지원, 차승은, 은기수. (2022). 코로나 19 시기 재택근무가 남녀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에 미친 영향. 한국인구학, 45(3), 27-50.
- 정홍원, 김성아, 최혜진, 류진아, 김진욱, 이주하. (2023).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회적 위험의 추이와 변동.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민수. (2021). 40대 노동시장의 현황과 부문별 특징.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최진희. (2023). 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1), 246-264.
- 통계청. (2018). 가계동향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 통계청. (2023a). 경제활동인구조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2. 인출.
- 통계청. (2023b).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 통계청. (2023c). 연령별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 통계청. (2023d).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0. 인출.
- 통계청. (2023e). 취업시간별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10. 인출.

- 통계청. (2023f). 고용보조지표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 통계청. (2023g).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특성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7. 인출.
- 통계청. (2023h). 산업별 계절조정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 통계청. (2023i). 직업별 계절조정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 통계청. (2023j). 종사상지위별 계절조정 취업자 집계자료. <https://kosis.kr/>에서 2023. 10. 6. 인출.
- 통계청. (각 연도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0. 1. 인출.
- 통계청. (각 연도b). 지역별고용조사(B형)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0. 1. 인출.
- 통계청. (각 연도c). 지역별고용조사(C형)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0. 1. 인출.
-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MIDS 원격근서비스. DOI: 10.23333/R.930001.001.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18. 반출.
- 통계청. (각 연도e). 2019년 이후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에서 2023. 12. 8.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https://www.koweeps.re.kr/>에서 2023. 10. 9. 인출.
- 함선유, 김현경, 이정희, 한겨레. (2022).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의 노동시장 성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함선유. (2022). 코로나19의 확산과 이행기 청년의 고용변화. 산업노동연구, 28

(1), 69-101.

홍민기, 이승호, 오상봉. (2021).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및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2020).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월간노동리뷰, 189, 21-38.

황선웅. (2022a). 인구집단별 비정규직 비중과 코로나19 위기 중 고용 증가율 간 관계: 이중 차분 사건 연구 방법론을 이용한 고빈도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23(4), 333-355.

황선웅. (2022b). 코로나19와 실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교. 산업노동연구, 28(1), 7-31.

Clark, A. E., D'Ambrosio, C., & Lepinteur, A. (2021). The fall in income inequality during COVID-19 in four European countries.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9, 489-507.

Kim, S., Koh, K., & Zhang, X. (2020). Short-term impact of COVID-19 on consump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Evidence from Singapore. IZA Discussion papers, No.13354. Bonn: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IZA).

부록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3-1〉 하위집단 표본 비율 및 사례 수

(단위: %, 명)

구분	표본 비율						표본 사례 수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남성	48.2	47.9	48.0	47.7	47.9	48.2	19,522	19,150	18,723	17,999	17,640	17,200
여성	51.8	52.1	52.0	52.3	52.1	51.8	21,258	21,071	20,536	20,010	19,723	19,115
18~34세	25.5	23.5	22.5	21.4	21.4	22.1	9,947	8,944	8,304	7,670	7,253	7,036
35~49세	30.0	30.0	28.8	28.1	28.2	27.4	11,244	10,960	10,236	9,624	9,086	8,331
50~64세	26.9	27.7	28.8	29.0	29.2	29.4	11,018	11,253	11,450	11,123	10,985	10,741
65세 이상	17.6	18.8	19.9	21.5	21.3	21.1	8,571	9,064	9,269	9,592	10,039	10,207
중졸 이하	22.5	22.5	22.6	22.8	21.7	20.5	10,537	10,558	10,412	10,181	10,076	9,635
고졸	38.6	38.1	37.9	37.5	37.5	37.1	14,974	14,632	14,260	13,734	13,462	12,982
전문대졸	11.0	10.9	11.1	11.7	12.2	12.5	4,266	4,117	4,085	4,155	4,106	3,989
4년제 대졸 이상	27.9	28.5	28.4	28.0	28.6	29.8	11,003	10,914	10,502	9,939	9,719	9,709
가구주	43.9	44.5	45.1	46.0	46.5	47.4	18,497	18,640	18,406	18,064	18,187	17,954
배우자	30.5	31.0	30.9	31.0	30.7	30.1	12,411	12,352	11,966	11,573	11,268	10,832
기타 가구원	25.6	24.5	24.1	23.0	22.8	22.5	9,872	9,229	8,887	8,372	7,908	7,529
1인 가구	8.3	8.6	9.3	10.1	10.6	12.0	3,945	4,188	4,413	4,490	4,967	5,233
2인 가구	21.8	23.0	24.2	25.6	25.9	26.3	10,377	10,900	11,092	11,200	11,314	11,340
3인 가구	23.7	24.3	24.5	25.1	25.6	26.0	9,614	9,735	9,347	9,144	9,022	8,410
4인 이상 가구	46.3	44.2	42.1	39.2	38.0	35.7	16,844	15,398	14,407	13,175	12,060	11,332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6.0	5.8	5.3	4.9	4.8	4.5	2,269	2,176	1,887	1,641	1,458	1,268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5.7	5.6	5.1	4.7	4.6	4.3	2,166	2,087	1,800	1,569	1,392	1,211
초등학생 동거 여성	7.4	7.4	7.3	7.1	7.1	6.6	2,619	2,513	2,416	2,305	2,187	2,033
초등학생 동거 남성	6.7	6.7	6.7	6.6	6.6	6.2	2,368	2,288	2,203	2,128	2,022	1,886
한부모가구	2.2	2.0	1.9	1.7	1.8	1.6	913	814	718	671	641	574
상용근로자	32.0	32.3	32.8	32.1	33.0	35.0	12,220	12,112	11,893	11,298	11,091	11,138
임시·일용근로자	11.2	10.9	11.1	11.1	11.1	11.3	4,612	4,464	4,490	4,287	4,366	4,36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9	2.9	2.7	2.5	2.7	2.7	1,177	1,142	1,021	936	956	91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9.3	9.5	9.4	9.3	9.7	9.7	4,076	4,112	3,981	3,865	4,002	3,894
무급가족종사자	3.0	3.0	3.0	2.9	2.9	2.7	1,414	1,374	1,330	1,266	1,257	1,189
기타 종사자	1.3	1.3	1.5	1.6	1.5	1.5	502	496	537	539	496	467
비취업자	40.2	40.1	39.6	40.5	39.2	37.2	16,779	16,521	16,007	15,818	15,195	14,345
가구주 관리자	2.9	2.7	2.8	2.5	2.3	2.3	1,113	930	946	857	800	774
가구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4	13.3	13.3	13.7	13.9	14.5	5,031	4,884	4,725	4,579	4,396	4,336
가구주 사무 종사자	13.3	14.0	13.6	13.3	13.7	13.3	5,047	5,244	4,899	4,636	4,482	4,134
가구주 서비스 종사자	6.1	6.0	6.2	6.0	6.3	6.4	2,592	2,489	2,540	2,364	2,394	2,306

218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부표 3-1〉 계속

구분	표본 비율						표본 사례 수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가구주 판매종사자	8.3	8.0	7.7	7.3	7.5	7.6	3,162	3,047	2,868	2,697	2,620	2,502
가구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2	5.3	5.2	5.3	5.5	5.4	2,666	2,691	2,549	2,593	2,762	2,664
가구주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2	10.2	10.3	9.7	9.5	9.7	3,910	3,809	3,795	3,431	3,343	3,329
가구주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4	13.1	12.7	12.5	12.7	12.5	5,160	5,001	4,770	4,546	4,421	4,262
가구주 단순노무 종사자	10.0	9.9	9.9	9.7	9.5	9.9	4,159	4,074	4,064	3,798	3,875	4,001
가구주 비취업자	17.1	17.4	18.2	20.0	18.9	18.1	7,827	7,975	8,033	8,452	8,208	7,952
개인취업소득 0원	30.1	30.0	29.2	28.9	28.1	26.9	13,012	12,808	12,170	11,619	11,350	10,921
개인취업소득 1분위	13.9	13.9	14.0	14.1	14.3	14.6	5,721	5,705	5,703	5,585	5,648	5,757
개인취업소득 2분위	13.9	13.9	14.9	14.8	14.4	15.1	5,570	5,540	5,846	5,578	5,457	5,443
개인취업소득 3분위	14.0	14.1	13.5	13.7	15.5	14.1	5,545	5,477	5,112	5,138	5,628	4,869
개인취업소득 4분위	14.0	14.1	14.2	14.3	13.6	14.6	5,500	5,456	5,337	5,184	4,696	4,777
개인취업소득 5분위	14.0	14.0	14.2	14.3	14.0	14.6	5,432	5,235	5,091	4,905	4,584	4,548
가구시장소득 1분위	21.3	21.5	21.8	21.9	21.8	21.7	9,981	10,070	9,977	9,684	10,039	10,001
가구시장소득 2분위	19.5	19.5	19.5	19.6	19.7	19.7	7,804	7,980	7,695	7,558	7,457	7,217
가구시장소득 3분위	19.3	19.3	19.1	19.0	19.1	19.1	7,578	7,270	7,102	6,857	6,641	6,488
가구시장소득 4분위	19.5	19.5	19.7	19.6	19.5	19.7	7,448	7,371	7,279	6,984	6,647	6,416
가구시장소득 5분위	20.3	20.1	20.0	19.9	20.0	19.8	7,969	7,530	7,206	6,926	6,579	6,193

주: 표본 비율은 18세 이상에서 개별 하위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d).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부표 4-1〉 하위집단 표본 사례 수

(단위: 명)

구분	t→t+1 변화 분석					t→t+2 변화 분석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 20	15 → 17	16 → 18	17 → 19	19 → 21
남성	5,475	5,347	5,188	4,933	4,766	5,140	4,991	4,735	4,464
여성	7,051	6,906	6,714	6,359	6,181	6,738	6,583	6,217	5,897
18~34세	2,162	2,093	2,004	1,865	1,810	1,970	1,895	1,757	1,662
35~49세	2,965	2,862	2,755	2,529	2,359	2,831	2,752	2,531	2,249
50~64세	2,837	2,800	2,689	2,599	2,514	2,748	2,695	2,541	2,427
65세 이상	4,562	4,498	4,454	4,299	4,264	4,329	4,232	4,123	4,023
중졸 이하	5,452	5,239	5,009	4,678	4,464	5,179	4,944	4,626	4,193
고졸	4,025	3,951	3,831	3,669	3,564	3,813	3,715	3,528	3,387
전문대졸	1,017	1,023	1,026	983	955	975	979	932	915
4년제 대졸 이상	2,032	2,040	2,036	1,962	1,964	1,911	1,936	1,866	1,866
가구주	6,432	6,331	6,180	5,918	5,816	6,156	6,026	5,750	5,537
배우자	3,741	3,629	3,501	3,267	3,123	3,624	3,514	3,284	3,014
기타 가구원	2,353	2,293	2,221	2,107	2,008	2,098	2,034	1,918	1,810
1인 가구	1,919	1,947	1,957	1,962	2,008	1,836	1,822	1,810	1,890
2인 가구	4,026	3,960	3,849	3,665	3,590	3,854	3,789	3,621	3,427
3인 가구	2,655	2,647	2,555	2,399	2,337	2,529	2,516	2,343	2,212
4인 이상 가구	3,926	3,699	3,541	3,266	3,012	3,659	3,447	3,178	2,832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625	598	545	462	415	604	580	507	407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594	558	512	433	398	569	543	474	389
초등학교 동거 여성	752	709	653	610	563	712	678	594	541
초등학교 동거 남성	674	632	610	572	531	630	606	548	509
상용근로자	2,411	2,429	2,332	2,270	2,276	2,305	2,322	2,132	2,173
임시근로자	1,490	1,470	1,515	1,443	1,394	1,425	1,402	1,422	1,340
일용근로자	582	548	505	490	457	561	515	473	431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200	230	314	349	417	193	229	302	409
고용주	202	203	201	200	171	193	192	177	162
자영업자	1,500	1,438	1,337	1,269	1,235	1,455	1,392	1,277	1,201
무급가족종사자	578	536	479	415	373	562	527	459	366
실업자	152	163	175	145	152	139	147	160	150
비경제활동동인구	5,411	5,236	5,044	4,711	4,472	5,045	4,848	4,550	4,129
직접고용	4,235	4,231	4,195	4,029	4,116	4,047	4,041	3,885	3,938
간접고용	253	283	302	350	237	245	274	287	231

220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부표 4-1〉 계속

구분	t→t+1 변화 분석					t→t+2 변화 분석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 20	15 → 17	16 → 18	17 → 19	19 → 21
특수고용	195	163	169	173	191	192	153	157	184
시간제	578	668	804	926	889	561	646	763	861
전일제	4,105	4,009	3,862	3,626	3,655	3,923	3,822	3,566	3,492
1~4인 사업장	3,101	2,958	2,826	2,634	2,497	2,994	2,865	2,664	2,418
5~29인 사업장	1,760	1,707	1,647	1,514	1,500	1,688	1,617	1,530	1,435
30~299인 사업장	1,239	1,314	1,321	1,315	1,304	1,192	1,258	1,231	1,244
300인 이상 사업장	845	869	880	957	1,000	803	834	808	965
관리자	192	194	203	181	194	183	183	192	18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32	922	902	869	893	878	882	811	852
사무 종사자	855	849	833	823	807	804	802	767	764
서비스 종사자	621	605	611	643	663	599	587	567	638
판매 종사자	594	592	562	523	509	578	563	520	49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286	1,200	1,074	997	905	1,252	1,169	1,038	88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35	528	527	481	465	512	508	488	449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13	584	555	539	517	592	555	519	495
단순노무 종사자	1,314	1,358	1,395	1,361	1,351	1,275	1,308	1,321	1,307
개인취업소득 1분위	2,285	2,231	2,177	2,087	2,007	2,209	2,156	2,066	1,952
개인취업소득 2분위	1,363	1,340	1,298	1,319	1,317	1,306	1,285	1,219	1,261
개인취업소득 3분위	1,202	1,161	1,132	1,052	1,033	1,153	1,105	1,052	984
개인취업소득 4분위	1,109	1,122	1,088	1,031	1,015	1,067	1,076	998	974
개인취업소득 5분위	1,004	1,000	988	947	951	959	957	907	911
가구시장소득 1분위	5,077	4,858	4,782	4,575	4,431	4,810	4,577	4,424	4,171
가구시장소득 2분위	2,319	2,328	2,217	2,122	2,047	2,195	2,220	2,082	1,941
가구시장소득 3분위	1,916	1,830	1,782	1,636	1,670	1,826	1,726	1,597	1,598
가구시장소득 4분위	1,655	1,704	1,617	1,553	1,423	1,570	1,616	1,483	1,368
가구시장소득 5분위	1,559	1,533	1,504	1,406	1,376	1,477	1,435	1,366	1,283
개인취업소득분위 상승	1,702	1,730	1,791	1,695	1,445	2,026	2,059	2,054	1,884
개인취업소득분위 유지	9,353	9,028	8,632	8,259	7,941	8,041	7,685	7,246	6,771
개인취업소득분위 하락	1,471	1,495	1,479	1,338	1,561	1,811	1,830	1,652	1,706
가구시장소득분위 상승	2,070	1,858	1,841	1,747	1,898	2,106	2,023	1,942	2,013
가구시장소득분위 유지	8,460	8,417	8,132	7,729	7,404	7,525	7,274	6,846	6,441
가구시장소득분위 하락	1,996	1,978	1,929	1,816	1,645	2,247	2,277	2,164	1,9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부표 4-2〉 하위집단 표본 비율

(단위: 포인트)

구분	t→t+1 변화 분석					t→t+2 변화 분석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 20	15 → 17	16 → 18	17 → 19	19 → 21
남성	0.494	0.493	0.495	0.495	0.494	0.490	0.489	0.490	0.489
여성	0.506	0.507	0.505	0.505	0.506	0.510	0.511	0.510	0.511
18~34세	0.282	0.278	0.268	0.261	0.256	0.275	0.269	0.260	0.249
35~49세	0.304	0.298	0.300	0.295	0.288	0.309	0.307	0.305	0.292
50~64세	0.262	0.269	0.269	0.278	0.280	0.267	0.270	0.276	0.285
65세 이상	0.152	0.155	0.163	0.166	0.175	0.150	0.154	0.159	0.173
중졸 이하	0.236	0.231	0.226	0.222	0.217	0.234	0.230	0.226	0.214
고졸	0.392	0.382	0.379	0.377	0.371	0.385	0.380	0.376	0.370
전문대졸	0.114	0.121	0.126	0.127	0.128	0.120	0.124	0.126	0.130
4년제 대졸 이상	0.258	0.266	0.269	0.274	0.283	0.262	0.266	0.272	0.286
가구주	0.438	0.442	0.445	0.443	0.451	0.445	0.448	0.447	0.457
배우자	0.300	0.298	0.296	0.294	0.292	0.307	0.303	0.302	0.296
기타 가구원	0.261	0.260	0.260	0.263	0.257	0.249	0.249	0.251	0.247
1인 가구	0.082	0.088	0.095	0.101	0.111	0.084	0.088	0.095	0.113
2인 가구	0.227	0.229	0.233	0.236	0.240	0.230	0.232	0.234	0.240
3인 가구	0.256	0.264	0.262	0.268	0.272	0.257	0.266	0.266	0.274
4인 이상 가구	0.435	0.420	0.410	0.396	0.377	0.429	0.413	0.405	0.373
미취학 아동 동거 여성	0.060	0.059	0.054	0.050	0.051	0.062	0.060	0.058	0.053
미취학 아동 동거 남성	0.060	0.058	0.053	0.049	0.048	0.061	0.058	0.056	0.050
초등학생 동거 여성	0.075	0.074	0.070	0.069	0.065	0.076	0.075	0.068	0.066
초등학생 동거 남성	0.074	0.070	0.068	0.064	0.063	0.074	0.071	0.067	0.065
상용근로자	0.278	0.289	0.287	0.294	0.304	0.282	0.294	0.287	0.303
임시근로자	0.147	0.149	0.158	0.158	0.155	0.150	0.150	0.160	0.157
일용근로자	0.047	0.045	0.043	0.045	0.045	0.048	0.045	0.043	0.045
자활·공공근로·노인일자리	0.007	0.007	0.010	0.011	0.013	0.007	0.007	0.010	0.013
고용주	0.022	0.023	0.022	0.025	0.022	0.022	0.022	0.022	0.022
자영업자	0.079	0.077	0.075	0.073	0.078	0.079	0.077	0.076	0.078
무급가족종사자	0.026	0.025	0.023	0.021	0.020	0.026	0.025	0.023	0.021
실업자	0.017	0.019	0.021	0.018	0.018	0.016	0.018	0.020	0.019
비경제활동동인구	0.377	0.366	0.361	0.356	0.345	0.370	0.362	0.358	0.342
직접고용	0.440	0.452	0.453	0.455	0.472	0.447	0.457	0.456	0.473
간접고용	0.021	0.023	0.028	0.033	0.022	0.021	0.024	0.027	0.022

222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및 소득분배 변화

〈부표 4-2〉 계속

구분	t→t+1 변화 분석					t→t+2 변화 분석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 20	15 → 17	16 → 18	17 → 19	19 → 21
특수고용	0.018	0.015	0.017	0.019	0.022	0.019	0.015	0.017	0.023
시간제	0.045	0.048	0.058	0.069	0.066	0.046	0.049	0.058	0.065
전일제	0.434	0.443	0.440	0.438	0.451	0.441	0.446	0.443	0.453
1~4인 사업장	0.200	0.194	0.193	0.192	0.194	0.201	0.196	0.194	0.197
5~29인 사업장	0.172	0.178	0.173	0.174	0.171	0.176	0.178	0.173	0.171
30~299인 사업장	0.131	0.134	0.142	0.140	0.145	0.133	0.135	0.144	0.144
300인 이상 사업장	0.101	0.109	0.109	0.119	0.125	0.102	0.111	0.110	0.126
관리자	0.022	0.024	0.025	0.023	0.025	0.022	0.024	0.026	0.02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14	0.117	0.117	0.120	0.128	0.115	0.119	0.115	0.127
사무 종사자	0.102	0.104	0.106	0.112	0.110	0.102	0.103	0.108	0.110
서비스 종사자	0.058	0.058	0.058	0.062	0.066	0.059	0.058	0.058	0.066
판매 종사자	0.058	0.060	0.056	0.057	0.058	0.060	0.060	0.055	0.05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39	0.036	0.035	0.035	0.034	0.039	0.037	0.035	0.03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53	0.054	0.056	0.053	0.054	0.054	0.055	0.057	0.054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59	0.056	0.056	0.055	0.055	0.059	0.057	0.056	0.056
단순노무 종사자	0.098	0.104	0.107	0.108	0.105	0.101	0.105	0.108	0.106
개인취업소득 1분위	0.118	0.121	0.124	0.125	0.125	0.119	0.122	0.122	0.125
개인취업소득 2분위	0.123	0.122	0.122	0.125	0.126	0.123	0.124	0.123	0.127
개인취업소득 3분위	0.121	0.123	0.126	0.126	0.126	0.124	0.124	0.129	0.127
개인취업소득 4분위	0.121	0.125	0.123	0.125	0.129	0.123	0.126	0.123	0.130
개인취업소득 5분위	0.122	0.124	0.123	0.126	0.131	0.124	0.125	0.124	0.131
가구시장소득 1분위	0.223	0.218	0.221	0.220	0.222	0.221	0.217	0.221	0.222
가구시장소득 2분위	0.192	0.193	0.193	0.187	0.185	0.191	0.197	0.196	0.187
가구시장소득 3분위	0.191	0.189	0.193	0.188	0.195	0.193	0.188	0.190	0.196
가구시장소득 4분위	0.195	0.196	0.192	0.202	0.192	0.196	0.195	0.193	0.194
가구시장소득 5분위	0.198	0.203	0.202	0.202	0.206	0.199	0.202	0.201	0.200
개인취업소득분위 상승	0.166	0.180	0.187	0.184	0.157	0.209	0.224	0.233	0.220
개인취업소득분위 유지	0.711	0.686	0.685	0.686	0.684	0.637	0.610	0.613	0.600
개인취업소득분위 하락	0.123	0.134	0.128	0.130	0.160	0.155	0.166	0.154	0.180
가구시장소득분위 상승	0.197	0.182	0.193	0.185	0.195	0.215	0.225	0.224	0.228
가구시장소득분위 유지	0.612	0.632	0.631	0.625	0.617	0.563	0.559	0.548	0.554
가구시장소득분위 하락	0.192	0.186	0.176	0.190	0.189	0.222	0.216	0.228	0.2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